

## 목차

1. 개회식: 사회 이승희 (극동대학교)
2. 제1세션: 좌장 김성수 (한양대학교)
  - 발제1: 이승희 (극동대학교), 목자의 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보편윤리와 실천 중심의 가치
  - 발제2: 신윤철 (한국NGO학회), 정도전의 정치·사회철학과 지속가능발전 - 공공성·제도·거버넌스
  - 발제3: 이창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생태적 전환과 생활 실천
  - 토론1: 이원영 (한양대학교)
  - 토론2: 최은수 (송실대학교)
  - 토론3: 고상백 (연세대학교)
3. 제2세션: 좌장 사득환 (경동대학교)
  - 발제1: 이흥연 (평택대학교), 해외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정책 사례: 일본 오카야마(Okayama) ESD
  - 발제2: 조정선 (대구한의대),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발제3: 신진주 (영화감독), 영화감독의 다학제적 시선으로 본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유발형 ESD콘텐츠 전략과 사례-국제영화제 수상작 SDGs이념에 기반 작품 Liberation We Cannot Hear (version 1 -For the Deaf community) 중심으로-
  - 발제4: 김성균 (전략경영연구원)·박선영 (남도자연생태연구소),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의 혁신적 확산 전략과 새로운 실천 모델 : 글로벌 대안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4. 제3세션: 좌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 발제1: 임소담 (송실대학교)·최은수 (송실대학교), 르완다 Rwanda Coding Academy 교사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다영역 융합
  - 발제2: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환경학교육연구소),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점: 정책과 인식, 그 사이의 연결
  - 발제3: 임용석 (김해지속가능발전협의회)·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 온라인 언론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AI를 활용한 파이썬 기반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발제4: 오용운 (음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I·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2025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구분 /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30~10:00	30분	등록 및 내빈 티타임	
개회식 10:00~10:15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례: 대회 소개, 참가자 소개</li> <li>• 개회 인사</li> <li>• 내빈 인사</li> <li>• 지속가능발전학회 임원진 소개</li> <li>• 기념촬영</li> </ul>	사회: 이승희 (극동대학교)
제1세션 10:15~11:45	90분	<p>주 제: SDGs의 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p> <p>좌 장: 김성수 (한양대학교)</p> <p>발표1: 목자의 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보편윤리와 실천 중심의 가치 - 이승희 (극동대학교)</p> <p>발표2: 정도전의 정치·사회철학과 지속가능발전 - 공공성·제도·거버넌스 - 신윤철 (한국 NGO학회)</p> <p>발표3: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생태적 전환과 생활 실천 - 이창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p> <p>토론1: 이원영 (한양대학교) 토론2: 최은수 (숭실대학교) 토론3: 고상백 (연세대학교)</p>	
오찬 11:45~13:25	100분	오찬 및 교류 시간	활동가 교류 시간
제2세션 13:30~15:00	90분	<p>주 제: 한국 ESD(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확산 전략</p> <p>좌 장: 사득환 (경동대학교)</p> <p>발표1: 해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정책 사례: 일본 오카야마 Okayama ESD - 이흥연 (평택대학교)</p> <p>발표2: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조정선 (대구한의대)</p> <p>발표3: 영화감독의 다학제적 시선으로 본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유발형 ESD콘텐츠 전략과 사례-국제영화제 수상작 SDGs이념에 기반 작품 Liberation We Cannot Hear (version 1 -For the Deaf community) 중심으로- - 신진주 (영화감독)</p> <p>발표4: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혁신적 확산 전략과</p>	

		<p>새로운 실천 모델: 글로벌 대안대학 사례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성균 (전략경영연구원), 박선영 (남도자연생태연구소)</li> </ul> <p>토 론: 현장 패널 질의 응답 중심</p>	
휴식	20분	단상 정리 및 휴식	
제3세션 15:20~16:50	90분	<p>주제: 한국 ESD와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지평</p> <p>좌 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p> <p>발표1: 르완다 Rwanda Coding Academy 교사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다영역 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소담 (송실대학교), 최은수 (송실대학교)</li> </ul> <p>발표2: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점: 정책과 인식, 그 사이의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환경학교육연구소)</li> </ul> <p>발표3: 온라인 언론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AI를 활용한 파이썬 기반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석 (김해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li> </ul> <p>발표4: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I·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용운 (음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li> </ul> <p>토 론: 현장 패널 질의 응답 중심</p>	
정리·폐회 16:50~16:55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li> <li>• 1·2·3 세션 종합정리 및 폐회</li> </ul>	

(비워둔 면)

개회식

인사말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비워둔 면)

## 인사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기간 중 한국 지속가능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대회준비위원회,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해 주신 우리 학회 이창언 부회장님, 이승희 연구위원장님, 차영주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해 기획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1995년 부산광역시의 ‘지방의제21’ 수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사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10년을 맞이한 지금,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성과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우리 학회의 추계학술대회 역시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한층 축적된 실천의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제1부 주제는 ‘SDGs의 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입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과 SDGs 추진 및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부 주제는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황과 확산 전략’입니다. 일본 오카야마 사례를 통해서도 한국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발전대학, 국제영화제, 글로벌 대안대학 사례는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3부 주제는 ‘한국 ESD와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지평’입니다. ESD의 다영역 융합, 환경교육과 ESD의 접점 모색, 온라인 언론 분석, AI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발표는 이전에 많이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 더욱 기대가 큼니다. 좌장,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도 5년의 역사를 넘기고 있습니다. 융합, 포용, 실천의 가치를 내건 다학문 학회로서 우리 학회의 의의와 성과도 더욱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오수길

(비워둔 면)

## 제1세션

SDGs의 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

(비워둔 면)

# 묵자(墨子)의 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 보편윤리와 실천 중심의 가치<sup>1)</sup>

이승희(극동대학교 경영호텔대학 교수)

1. 墨子에 대하여
2. 墨子の 共同體 사상과 SDGs의 목표3, 4, 8, 10
3. 墨子の 經濟사상과 SDGs의 목표1, 8, 10
4. 墨子の 反戰·平和 사상과 SDGs의 목표16, 17
5. 결론에 대신하여

### I. 墨子에 대하여

춘추전국시대에 묵가사상(墨家思想, 이상 묵가)은 유가사상(儒家思想, 이상 유가)과 더불어 당대 사람들로부터 가장 환영과 호응을 받았던 학파였다. 그것은 묵가사상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했던 유가와 대비적으로 일반 서민 대중의 이익과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자 출신의 묵자는 억압·착취당하는 기층 민중 편에 서서 평생을 바쳐 투쟁한 평등주의자로서, 그 억압과 착취의 고리가 재화의 소비구조 즉, 문화·제도 등 상부구조에 있다고 보고 재화의 본래 목적을 초과하는 소비의 전형적인 제도인 전쟁을 없애고, 지배계급의 무용한 낭비, 인민을 떠난 음악, 호화로운 장례 제도 등 과시 소비를 토대로 한 지배착취 문화를 혁신함으로써, 노동 착취의 목적을 제거하여 착취구조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기세춘, 2021: 10) 묵가는 당시 여타의 사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배 계층을 위한 사상과는 구별되는, 일반 평민 서민 대중을 위한 사상이었다. 또한 “사람은 제 이웃을 제 몸 같이 사랑하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겸애(兼愛)를 주장하며 전국시대에는 가장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 (기세춘:2021, 9) 그런 묵가 사상의 핵심 텍스트인 “『묵자』는 원래 71편인데, 지금은 단지 53편만 전해지고 18편은 유실되었다.(이재준, 2007: 60)<sup>2)</sup> 당대의 주류사상인 유가에 밀려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어 역사에서 돌연 사라졌던 것이다.

1) 본 발표문은 강의자가 지난 2024년 5월 융합인문학 제12권 제2호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2) 『한서』 「예문지」에 전해지고 있다.

목가의 복귀는 청나라 필원(畢沅)이 『목자』를 정리하고 주해하면서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복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손이양(孫詒讓), 양계초(梁啟超), 호적(胡適)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목가 사상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鄭傑文, 張倩/ 민홍석 옮김, 2023: 7) 즉 근대에 와서야 목가 사상이 새롭게 인식되고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목자에 대한 쑨원의 평가를 봐도 중국인들이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고대에 사랑을 말한 사람으로 목자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목자가 말한 겸애는 예수의 박애와 같은 것이다.”(쑨원, 기세춘, 2021: 7)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쑨원의 목자에 대한 평가가 기독교 신자인 쑨원이 보았을 때도 능히 예수와 비견될 정도라는 것이다. 기세춘의 평가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목자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하였다. “목자는 학벌도 없는 목수 출신으로 세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사상가이며 또한 반전·노동운동을 지도하는 노동자”(기세춘, 2021: 7)라고 아주 높은 평가를 하였다.

즉 목가 사상이 현시기 냉혹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개인주의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동양고전의 새로운 대안, 공동체적인 사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의 생각 또한 2400년을 뛰어넘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시기 그의 사상과 그 학파가 설파한 사상에 더 많은 관심과 그 핵심 사상의 전승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자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평가는 좌·우파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목자는 초기 중국의 공산당으로부터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우파로부터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목자는 초기 공산당으로부터 제자백가 중 가장 위대한 경험론자이며 평등주의자로 인정받으면서도,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하는 하느님 사상으로 인하여 유물론과 계급투쟁의 적으로 간주돼 비판을 받았고, 우파에서는 그의 세습·상속을 반대하는 평등사상으로 인하여 좌파의 시조로 배척을 당했던 것이다.”(기세춘, 2021: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은 그의 선구자적인 ‘애민 정신’ 과 서민 대중에 대한 열정적 사랑은 현시기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지구적 여러 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과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필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있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sup>3)</sup>와의 비교 고찰이 많은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그동안 진화해 왔다. 새로운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조약,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2005 World Summit Outco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과 같은 다른 국제 문서의 내용에 입각해 있다.”(이창언, 2022: 19)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 많은 미디어에서 SDGs라는 단어를 접할 기회가 부쩍 많아졌다. “SDGs는 ‘지속가능한발전’ 을 골간으로 하는 인류의 발전 목표이다.” (명수정, 2023: 9) 또한 SDGs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세계인의 약속이다.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다.(이창언 : 348) SDGs는 빈곤과 기아, 질병과 결핍이 없는, 모든 생명이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 공포와 폭력이 없는 세상,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 보건 서비스, 사회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창언, 2023: 348)

이와 같은 SDGs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제시와 해결 방안들이 묵가 사상이 제기했던 내용들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성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00 여 년 이전에 주창되었던 사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제기되는 전 인류의 평등과 대동사상이 맞닿아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 공영과 ‘더불어 살자’ 라는 대명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묵가 사상에 대하여 김승석은 묵가 사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의 사회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김승석, 2021: 6)라 지적하며 그 한계성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정의와 공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김승석, 2021: 7)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완성태가 아니라 추구해야 할 과정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승석, 2021: 7) 고 지적한다.

물론 묵가 사상과 SDGs가 각각의 한계성과 극복할 내용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가 사상과 SDGs의 상호 비교 고찰은 나름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필자는 묵자의 공동체 사상, 경제사상, 반전·평화 사상 등 묵자가 주장하는 일부의 사상과 SDGs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 일부 과제와의 비교를 통해 그 둘의 연관성과 유사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 묵자와 SDGs를 비교를 시도한 첫 논문이다)

## 2.묵자의 공동체 사상과 SDGs의 목표 3, 4, 8, 10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천하에 남이런 없다(天下無人)’ 는 한마디로 요약한다.(기세춘, 2021: 271) 이 말은 온 세계와 인류가 서로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이다. 특히 그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몸소 노동을 했으며, 생명 죽임의 전쟁을 생명 살림 공동

체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평생동안 전쟁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세춘, 2021: 361) 이는 목자가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귀족과 천민의 구별 없이 공동체적인 사회구조를 염원했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대동사상’ 과도 맞 닿아 있다. 물론 대동사상(大同思想)은 목가가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대동’ 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예기(禮器)』 「예운(禮運)」 편이다. 대동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은 대동소이, 대동단결과 태평성세(太平盛世)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것을 이어받은 목자는 천하만민(天下萬民)은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동포라는 뜻으로 공동체 사회를 표현한 말로 ‘천하무인(天下無人)’ 이라 한 것이다. 세상에 남이란 없다는 뜻이다. 목자의 ‘상동(尙同)’ 은 ‘대동’ 을 숭상한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목가사상은 너와 나 구별 없이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 는 SDGs가 가진 세계관과 서로 상통됨을 발견할 수 있다. (표2 참조)

<표2>

	목자 사상	SDGs목표 3, 4, 10
공동체 사상	“두루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남의 나라 보기를 제 나라같이 보고 남의 가문 보기를 제 가문 같이 보고 남 보기를 제 몸같이 보라.” <sup>4)</sup>	모든 세대에서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 보장.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 증진과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

우선 목자의 공동체 사상, 즉 대동사상에 대해 알아보자. 목자는 “화동, 서로 다른 것들이 한길로 동반하는 것이다.”<sup>5)</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동일치(和同一致)’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귀한 자와 비천한 자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의 분배는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되며(分財不敢不均)” 통치는 “만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힘써 종사하면 인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sup>6)</sup>라고 힘써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인민의 공동체적 삶이 목자의 생각은 결국은 하늘의 의지와 하늘이 주재함을 이야기한다. 목자는 또 “하늘은 사람을 두루 평등하게 사랑하고 두루 평등하게 이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늘은 사람을 두루 보전하고 두루 평등하게 먹여주기 때문이다.”<sup>7)</sup>라며 두루두루 ‘더불어 삶’ 을 강조한다.

2,000여년 전이나 현재나 어려운 서민층의 삶은 괴롭고 신산한 법이다. 이에 목자는 다음과

4) 然則兼相愛 交相利之法 將奈何哉...視人之國 若視其國. 視人之家 若視其家. 視人之身 若視其身. ((鄭傑文, 張倩/ 민홍석 옮김, 2023 :151-152)

5) 同, 異而俱於之一也.(기세춘, 2021: 726)

6) 萬民之所便利, 而能彊從事焉, 則萬民之親可得也. (위의 책, 2021: 470)

7) 以其兼而愛之. 兼而利之也. 奚以知天兼而愛之 兼而利之也. 以其兼而有之 兼而食之也. (위의 책: 393)

같이 설파한다.

*“공평하면 천하가 평등하고, 평등하면 공평하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의 천하다.”<sup>8)</sup>*

이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당 시대를 표현한 말인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개발도상국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하층민의 생활을 아주 꺾진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현재의 전 지구적 여러 과제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중에 있다. 그중 하나가 SDGs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SDGs에 대해 살펴보자. 이 장에서는 SDGs의 이행 목표 중 목표 3, 목표 4, 목표 8, 목표 1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목표 3>은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이다. 이 목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언, 2022: 197)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삶의 질 차이와 의료, 건강, 복지 등의 현저한 차이를 국제적 협력과 실천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다음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확보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촉진한다. 즉, 모든 사람이 질 좋은 교육에 평생 접근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의 질 상황의 심각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목표 하나(4.b)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 기술, 기술, 공학, 과학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군소개발도상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sup>9)</sup> <목표8>은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다.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노동환경,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불안정한 노동 해결, 동일 노동·동일 임금, 창업 등 우리에게 절실한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창언, 2023: 211) 이어서 <목표 10>은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이다. 여기서는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나아가 국가 간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다. 현재 세계 부의 거의 절반을 불과 1%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소득 하위 절반의 인구가 가진 총자산의 65배에 해당한다. 이에 <목표

8) 公則天下平矣 平得於公...天下非一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也. (위의 책: 273)

9)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도서출판선인, 203

10>의 세부 목표 중에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한다.”가 있어 과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창언, 2020: 220)

“목자 사상이 폴리스가 공동체의 전형으로 여전히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곧 동양의 전통에서도 이러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작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제자백가들의 주의와 주장은 당시의 시대적 위기와 함께 진행되었지만, 현재 인간의 삶에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동일, 2021: 183) 이에 SDGs가 주장하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라는 일종의 공동체 사상은 목자의 겸애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 현시기 SDGs가 각국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엔 소속 국가들이 SDGs를 국가적으로 수용한 배경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지구 용량의 초과,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미세먼지,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저하, 고령화, 저출산, 자살률 등 지구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언, 2023: 274)

SDGs가 지나치게 사회 발전 중심으로 접근했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이하 MDGs)의 한계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세부 목표와 지표가 중복되기도 하고, 책무 부분에서도 그 한계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국가적, 지방의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다.

### 3. 목자의 경제사상과 SDGs의 목표 1, 8, 10

목자는 공자와 달리 경제를 중시한 실사구시의 사상가였다. 목자는 통치나 도덕률보다는 정치·사회·문화의 구조적인 제도를 중시하고, 허무보다는 현실을, 명분보다는 인민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 특이한 사상가였다. (기세춘, 2021: 319) 그래서 목자는 당시의 통치 세력의 무절제한 생활 방식과 사치를 비판하였다. 목자는 지도층은 당연히 “모든 백성을 살펴보고 굶주리면 먹여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병이 들면 보살펴 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묻어 준다.”<sup>10)</sup> 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보통 백성의 가장 최소한도의 생존 조건인 먹거리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였다.

*“식량은 나라의 보물이다... 나라에 삼년치의 양식이 비축되지 못하면 나라는 이미 자기 나라가 아니다.”<sup>11)</sup>*

10) 是故退睹其萬民，飢卽食之，寒卽衣之，疾病待養之，死喪葬埋之。(김승석, 2021: 228)

11) 食者國之寶也...國無三年之食者 國非其國也. (기세춘, 2021: 321)

목자는 통치자에 대해 “근본적으로 목자는 백성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은 人(지배계급)의 낭비 문화 때문으로 보았다. 그가 말한 절용은 절검(節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 있는 소비’ 라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 (기세춘, 2021: 327)

당시의 어두운 사회상을 목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환난이 있다. 굶주린 자는 먹을 수 없고 헐벗은 자는 입을 수 없고 고달픈 자는 쉴 수 없는 것이다.”<sup>12)</sup> 이 지적은 2,0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절절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백성이 통치자의 수혜만을 바라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목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올바른 사회라고 규정한다. 목자는 “사람들은 이득(집승)과 달리 노동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sup>13)</sup>라며 백성의 근면한 노동을 강조한다.

다만 당시 생산적 노동을 담당하는 일반 백성들이 일년내내 쉬지 않고 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 제대로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표3 참조)

<표 3>

	목자 사상	SDGs목표 1, 8
경제사상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환난이 있다. 굶주린 자는 먹을 수 없고 헐벗은 자는 입을 수 없고 고달픈 자는 쉴 수 없는 것이다.”	기아 근절, 식량안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모든 이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당시 노예처럼 쉴 새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일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굶주리지 않게 제대로 먹고, 헐벗지 않게 제대로 입고, 노동으로 인해 고달프고 피곤한 몸을 제대로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통치자의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인 일반 백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과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SDGs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우선 <목표1>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을 보자. 이는 영양, 교육, 보건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표현의 자유까지 빈곤의 모든

12) 民有三患 飢者不得食 寒者不得衣 勞者不得息.(鄭傑文. 張倩/ 민홍석 옮김, 2023 :215)

13) 今人與此異者也 賴其力者生 不賴其力者不生. (임건순, 2017: 452)

면을 포함하고 있다.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의 개념이 세부 목표들로 제시되고 있다. (이창언, 2022: 185) 이에 SDGs에서는 그 해결 목표를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사회 보호 대책의 실시와 토지, 재산,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경제적 자원에 관한 접근성 확보를 그 주요 목표로 삼았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외부의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에 대해 빈곤을 끝내기 위해 재원 조당과 투자 확대를 촉구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SDGs의 <목표8>에 대해 알아보자. <목표8>은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그 목표로 설정한다. <목표8>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 할 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노동환경,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불안정 노동 해결, 동일 노동·동일 임금, 창업 등의 과제이다. (앞 6쪽 참조)

현재 전 세계 많은 청년이 충분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국에서는 청년층 상당수가 취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아 니트(NEET)<sup>14)</sup> 상태에 빠져있다. (이창언, 2022: 212)

그러면 <목표8>의 세부 목표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서술해 보자. 첫째,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분에 초점을 두는 등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셋째,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한다. 넷째,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 그리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을 달성한다. 다섯째, 이주 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증진한다.

<목표10>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이다. 여기선 위 1장에 서술한 것(앞 7쪽 참조)을 제외한 <목표10>의 몇 가지 세부 목표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둘째,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한다. 셋째, 특히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이행을 강화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0여 년 전에 목자가 주장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 일반 백

14) 니트족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업하지 않으면서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이다. (위키백과)

성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사회복지, 노동 장려 등과 SDGs가 추구하는 목표 1, 8, 10이 추구하는 바가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목자를 지금 소환하는 의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 4. 목자의 반전·평화 사상과 SDGs의 목표 16, 17

목자는 당시 평화운동가이자 반전운동가였다. “목자는 인류사에 최초로 전쟁에 대해 고찰하고 반전운동을 전개한 사상가였다.” (기세춘, 2021: 361) 그는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재물의 약탈로 인해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평화를 촉구하며 인류애에 바탕을 둔 사랑을 강조하였다. “목자는 자기 사상을 ‘천하에 남이란 없다.’(天下無人)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사랑하라!’ 고 가르쳤다.” (기세춘, 2021: 361) 그는 또한 온 세계와 인류가 서로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뜻을 펼쳤다. 특히 그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몸소 노동을 하였으며, 생명 죽임의 전쟁을 생명 살림 공동체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평생동안 전쟁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세춘, 2021: 271) 가히 예수의 박애(博愛) 사상이 떠오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시대 당시에는 수많은 전란으로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병사들과 길에서 병들어 죽은 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목자는 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인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며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겸애교리(兼愛交利)를 역설하였다. 이런 목자의 열정에 대해 맹자는 목자가 차별 없는 사랑을 위해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다<sup>15)</sup>고 하였다. 또한 목자의 제자들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리전을 치르면서 도왔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국제간의 분규를 해결하여 평화주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이상호, 2021: 1-2)

“그의 반전운동은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받는 나라를 방어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쟁을 문화·사회적으로 관찰했으므로 전쟁을 없애기 위해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세했다. 그는 놀랍게도 전쟁으로 인한 재화의 낭비와 노동의 손실을 지적하고, 전쟁 비용으로 적국에게 경제 원조를 해서 적국의 인민을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세춘, 2021: 355) 당시 제후국 간의 끊임없는 전란 속에 다량의 물자, 인력, 재력의 낭비가 심했으며, 수많은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살 곳을 잃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고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니 목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했던

15) 『孟子』「盡心 上」2장: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것이다.

또한 묵자는 “큰 나라(또는 가문)가 작은 나라(또는 가문)를 공격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해치지 않으며, 영리한 자가 어리숙한 자를 속이지 않는다. 또한 귀족이 천민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젊은이가 노인을 약탈하지 않는다.” 16)고 하여 강국이 약소국을, 대가문이 작은 가문을, 귀족이 천민을 공격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수가 소수를 해치지 말라고 하여 평화대동(平和大同) 사상을 주창하였다.

“모든 나라는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하느님의 마을이며, 사람은 나이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하느님의 백성이다.” 17) 이 또한 예수의 사상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은 야박하다. 또 전쟁의 낭비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근본을 해치는 것으로 천하 인민의 재물과 이용을 고갈시킴이 다 셀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이다.” 18) 그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낭비가 심해 백성들의 삶이 물자 부족으로 인해 고달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세상에 전쟁에서 이익을 보는 자 누구던가? 그건 바로 일부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위정자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화하고 찬양하는 기현상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반드시 한 번 죽을 죄가 있다 한다....이런 죄에 대해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 알고 비난하며 불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더 큰 불의를 저지르며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를 좇아 칭송하면서 의롭다고 말한다.” 19)

*“...공격과 전쟁을 하는 노력과 비용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생산은 배로 커질 것이며 군대를 동원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제후들의 곤란을 구해 안정시켜 주면 이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참으로 클 것이다.” 20)*

이처럼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반전·평화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묵자는 실제 송(宋)나라를 공격하려던 초(楚)나라 혜왕을 설득하여 전쟁을 사전에 막았으며, 초나라가 정(鄭)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막았고, 노(魯)나라를 공격하려던 제(齊)

16) 大不攻小也，強不侮弱也，衆不賊寡也，詐不欺愚也，貴不做賤也，富不驕貧也，壯不奪老也。(김승석, 2021: 78)

17) 今天下無小大國，皆天之邑也。人無幼長貴賤，皆天之臣也。(위의 책, 2021: 101)

18) 夫殺之人 爲利人博矣 又計其費 此爲害生之本 竭天下百姓之財用 不可勝數夜 則此下不中人之利矣。(기세춘, 2021: 365)

19) 殺一人，謂之不義，必有一死罪矣....當此，天下之君子皆知而非之，謂之不義 今至大爲不義攻國，則弗知非，從而譽之，謂之義。(임진순, 2017: 424)

20) 易攻伐以治我國 攻必倍. 量我師舉之弗 以爭諸侯之斃 則必可得而序利焉。(기세춘, 2021: 370-371)

나라를 저지시킨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인류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한시라도 멈추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서로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렇다는 것이다.(여기서 전쟁의 근원과 책임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목자의 반전·평화 사상과 SDGs 목표 16, 17의 관련성과 유사성에 대해 서술해보자.(표 4 참조)

<표 4>

	목자 사상	SDGs목표 16, 17
반전·평화 사상	남의 나라 보기를 제 나라같이 보고 남의 가문 보기를 제 가문 같이 보고 남 보기를 제 몸같이 보라고 한다. .” <sup>21)</su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모든 이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보 및 효과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강화

SDGs의 <목표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이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우리나라와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분쟁을 겪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으로 한정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아직 진행형이다. 분쟁에 의한 사망자 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이창언, 2022: 238) 그러면 <목표16>의 몇가지 세부 목표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대폭 감소한다. 둘째,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셋째,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도난 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한다. 넷째,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다섯째, 국배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재중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목표17>은 ‘이행 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이다.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이나 인재를 동원하여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관 등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는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1>부터

21) 然則兼相愛，交相利之法，將奈何哉。子墨子言，視人之國，若視其國。視人之家，若視其家。視人之身，若視其身。(기세춘, 2021: 362)

<목표16>까지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 실시 수단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과도 관련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과거 제3세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과거의 ‘불의한 행위’ 를 했던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SDGs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책무이다. (이창언, 2022: 241)

그러면 <목표17>의 세부 목표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국가의 세금 및 기타 세외 수입의 징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해 각국의 국내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금원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셋째, 최빈개발도상국을 위한 투자 증진 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한다. 넷째, 기존 메커니즘, 특히 유엔 차원의 메커니즘 간의 조율 향상과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의 지역 및 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한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이고 목표에 기반한 역량 함양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수립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지원한다. 여섯째,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활용,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몇 가지 목표만을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목자의 반전·평화 사상에 대해 SDGs의 목표 16.17과 비교 고찰해 보았다. 목자의 사상이 다소 종교적이며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고, SDGs의 목표 16.17 또한 강제성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 목표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의 인류 공영 실현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앞에서 목자의 공동체 사상과 SDGs의 목표 3, 4, 8, 10을, 목자의 경제사상과 SDGs의 목표 1, 8, 10을, 목자의 반전·평화 사상과 SDGs의 목표 16, 17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목자 사상과 SDGs의 공통점의 핵심적 내용으로 정리하면 대동사상(大同思想)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대동은 대동소이(大同小異), 대동단결(大同團結), 태평성세(太平盛世)라는 의미로 쓰인다.” 또한 대동사회(大同社會)는 평등·평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대동사회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즉 천하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인 공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목자가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병든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돌봐주고, 사망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매장해 준다.”<sup>22)</sup>는 겸애의 자세로 상호부조를 주장하고, “힘 있는 자는 부지런히 남을 돕고, 재물이 있는 자는 힘써 남에게 나눠주며, 도리를 깨친 자는 권면하여 남을 가르쳐야 한다.”<sup>23)</sup>는 더 붙어 삶을 강조한 것은 SDGs가 주장하는 여러 이행 목표들과 상통하는 것이다. 목자의 겸애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철학자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은 목자의 겸애를 급진적인 공감의 사상’ (김승석, 2021:149에서 재인용)이라고도 한다. 이는 SDGs의 존재 이유와 활동 목표에도 부합되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김승석은 목자의 사상이 2천 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에도 우리에게 많은 반성과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승석, 2021: 8)” 고 하였다.

목자 평화 사상의 한계는 장기간에 걸쳐 펼쳐진 약탈 전쟁과 혼란에 피폐해지고 염증을 느낀 당시의 인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목자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라(겸애)는 주장은, 너무 선언적이고, 교육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당시 모두가 성인이 되지 않고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목자는 사회 실천가이자, 최초의 유물론자이자, 혁명가에 가까우면서도 “세상의 현학은 유학과 묵학(墨學)이다.”<sup>24)</sup>와 같이 현학적이란 비판도 있었던 것이다. 순자(荀子) 또한 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세상을 위해 물자가 부족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온 천하 전체의 걱정이 아니라 다만 목자의 과도한 개인적인 걱정이다.” (爲天下憂不足, 非天下之公憂也, 特墨子之私憂過計也.) (김승석, 2021: 265)<sup>25)</sup>

SDGs의 목표 1-17가지도 비슷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유엔에서 제기하고 ‘권유’ 하는 SDGs의 17가지 목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산적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SDGs의 17가지 목표 해결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강제성이 부여된 것도 아니며 좀 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DGs의 틀은 기부자, 정부, 엘리트주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SDGs의 궁극적 목적인 글로벌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의 대표성을 강조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빈곤과 지구적 재난에 직면해 굶주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력 장악이 시급한 문제다.”<sup>26)</sup>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대표성

22) 飢則食之, 寒則衣之, 疾病侍養之, 死喪葬埋之.(민홍석, 2023: 119)

23) 有力者疾以助人. 有財者勉以分人. 有道者勸以教人.(위의 책, 2023: 221)

24) 『한비자』 「현학」 (민홍석, 2023: 150)

25) 『목자』 「제십(第十) 부국(富國)」

26) “The framework of SDGs should be escape from the donors, governments, elitism, and

을 보장하고 참여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의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27)

그럼에도 동양의 전통사상인 묵가 사상과 SDGs가 인류공영(人類共榮)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류 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유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묵자의 사랑과 평화의 이상은 당시의 사회 배경 아래에서 실현될 수 없었다. 요컨대 묵자의 ‘겸애’의 이상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기반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유토피아적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어쩌면 묵자가 지향한 사랑과 평화 이념은 ‘신의 가호’ 아래에서만 가능한지도 모른다.(윤무학, 2017: 221) 이러한 공감과 배려는 개인적인 성찰과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김승석, 8)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신에게만 의지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두 손 놓고 앉아 그 숭한 문제들이 알아야 해결되길 바라야 한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2,000 여 년 전의 묵자를 소환하는 것도, 현재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DGs의 목표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묵자의 사상을 되짚어 보고 그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필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은 전 지구적인 많은 과제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

economism. It should be firmly based on the principles of global justice, which is the ultimate end of SDGs, emphasiz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least-advantaged members in a globalized world. It is not just a matter of “principles of justice” as many scholars suggested, but an urgent issue of direct and practical seize of power by the starving and suffering people confronting severe poverty and global disasters. (Jungkeun Lim, 2021: 151-152)

27) “Implementation of a system that will guarantee the compulsory obligations that the state must comply with to ensure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and people’s legitimate demands for participation.” (Jungkeun Lim, 2021: 151-152)

## 參考 文獻

### ○ 문헌자료

기세춘(2021), 목자, 바이북스.

임건순(2017), 목자, 공자를 딛고 일어난 천민 사상가, 시대의 창.

김승석(2021), 목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북코리아.

목자의 철학, 일파소.

金學主(2002), 목자, 그 생애·사상과 묵가(墨家), 明文堂.

목자, 신동준 옮김(2018), 목자, 인간사랑.

任繼愈(2017), 墨子與墨家, 北京出版社.

황중예(2008), 다시 보는 목자, 신원문화사.

신정근(2015), 노자와 목자, 자유를 찾고 평화를 넓히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목경1-2(2012), 한길사.

천웨이런, 윤무학 옮김(2018), 목자가 필요한 시간, 흐름출판.

윤무학(2017), 한국철학논집 vol., no.55, pp. 221-245.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도서출판 선인.

-----(2023), SDGs에 다가서기, 선인.

마이클 샌델(2020),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 <논문>

김지영(2020), 유엔 MDGs와 SDGs 시대 개발 파트너십의 의미 비교 분석 연구, 국제개발협력 연구 제 14권 2호, 21-40.

김이성(2021),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환경,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철학 / *Environmental Philosophy*. Dec 31, 32-43.

김민아(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의 과제, 국토연구원, 34-39.

명수정(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이행 현황, 국토연구원, 6-14.

박병도(2022),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일감법학 제 51호, 145-182.

이동일(2021), 목자(墨子)의 겸애(兼愛)와 교상리(交相利)에서 나타난 공동체성, 한국학논집 제85집(2021), 181-218.

이상호(2021), 목자(墨子)의 반전(反戰) 평화론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제9호, 2021.06, 1-23.

이창언·차영주(2023), 한국 SDGs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로컬리티 인문학 30, 207-242.

임강택(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동북아 협력: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15-19.

- 연규민·김현진(2020), 목자 겸상애교상리 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미래사회복지연구*, 2020, vol.11, no.3, 73-102.
- 최원근(2022), 국제개발협력과 난민 보호의 분절현상에 대한 소고: SDGs 속 난민 소외와 비호-개발 연계의 모색,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022-10 37(2), 69-105.
- 이주영(2023),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 Vol.6 NO. 40*. 1-13.
- 이재준(2007), 목자의 교육학적 읽기: 儒家와 墨家の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7, Vol. 8, No. 3, pp. 55-79.
- RLADBRUD(2023), 쿠바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집 4호*, 61-86.
- 朱 承(2022), 墨子の共同体意识及其困境,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22 年第 5 期, 10-20.
- 李广星 李之文(2020), 论墨子的兼爱大同思想, *职 大 学 报* 2020 年 第 6 期, 28-32.
- 龐世偉·陳文殿(2022), 墨子消費思想對構建生態文明消費觀的時代價值, *棗庄學院學報*, 第39卷第 6期, 10-17.
- Jungkeun Lim(2021), Conceptual Reframing of SDGs for Global Just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Dec 30, 2021* 12(6), 1939-1954.

# 정도전의 정치·사회철학과 지속가능발전 - 공공성·제도·거버넌스

신윤철(한국NGO학회)<sup>1)</sup>

## I. 머리말

### 1. 연구 배경: SDGs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정책화, 그리고 ESG 경영의 부상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범지구적 목표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포용성과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SDGs의 철학을 조직 운영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확산되었다. ESG는 환경책임, 사회적 가치, 투명한 지배구조를 평가 기준으로 하며, 조직 단위에서 SDGs 이행을 촉진하는 실천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유엔(2024)에 따르면 SDGs의 전 세계적 진척은 부진하며, 203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과제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United Nations, 2024). 이에 국제사회는 2024년 유엔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을 채택하며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United Nations, 2024b).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 SDGs와 ESG 논의는 주로 서구적 행정·정책 관점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적 사상 전통과의 연계는 미흡하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현지화(localization) 관점에서 중요한 한계로, 한국 사회의 역사·철학적 자산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담론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 2. 문제의식: 한국 전통 정치철학 속 지속가능성 개념의 탐색 가능성

전통 정치철학 속에는 공동체의 안녕, 자원의 절제와 순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가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교 정치사상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지만 동시에 천지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통치 철학은 오늘날의 지속가능성 담론은 물론 ESG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형평성, 책임성, 거버넌스 투명성과도 일정한 접점을 가진다.

이러한 접점의 탐색은 단순히 과거의 사상을 현대의 틀에 끼워 맞추는 행위를 넘어선다. 오히려 전통 고전에서 발견되는 '지속가능성 지향적 원형(prototype)'이 현대적 가치와 '같지 않으면서도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서구 중심의 지속가능성 담론이 가지는 한계(예: 지나친 경제주의, 이분법적 사고 등)를 보완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고유의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ESG 가치'라는 현대적 관점이 한국 전통 정치철학 속에

1) 이 발표문은 이창언·신윤철(2025)의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탐색하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다. 이때 분석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조선의 건국기 대표 제도서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다. 정도전에 의해 편찬된 이 문헌은 조선 초기의 이상적 정치구조를 정리한 고전으로, 유교 정치사상의 제도화 시도라는 측면에서 높은 의의를 가진다.

### 3. 연구 목적: 『조선경국전』에 내재된 SDGs·ESG 관련 요소의 규범·정책적 재조명

『조선경국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한영우, 2002: 114) 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평가부터(김용옥, 2004: 30), 근대 헌법의 맹아(양승태, 2008), 조선 법전 체제의 시발(김태희, 2018: 32), 조선왕조 법전편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문헌(李成茂, 1990: 92), 새로운 법전의 지침서(노태천, 1991: 34),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을 논한 일종의 규범서이자 법률서(옥영정, 2016: 8), 조선의 건국이념을 지탱하는 법제의 방향을 제시한 공식 입법 지침서(정공식, 2015: 96), 『조선경국전』이 편찬될 시점의 이룩한 성과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윤훈표 외, 2007) 등, 연구자마다 그 성격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국대전』에 선행하는 제도적 원형으로서 『조선경국전』의 역사적 위상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조선경국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치사 및 국가론적 접근으로는 송재혁(2020: 157-191)이 『조선경국전』에 반영된 원 제국 유산과 정도전의 국가 구상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아영과의 공저(송재혁·이아영, 2019: 245-275)에서는 「부전(賦典)」을 중심으로 군주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다루어, 국가재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조항덕(2005: 267-297)은 이 문헌을 통해 정도전이 지향한 공동체의 이상적 형태를 규명하려 시도하였다.

둘째, 법제사 및 헌정사적 접근으로는 양승태(2008: 114-135)가 『조선경국전』을 한국 헌정사에서 근대 입헌주의의 사상적 기원으로 조명하였으며, 정공식(2015: 85-116)은 조선 초기 법제 정비 과정에서 이 법전이 갖는 입법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종수(2018: 513-541)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조선경국전』의 통치 이념을 분석하였고, 오기수(2012: 167-198)는 조세 개념과 제도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시 재정 시스템의 철학적 기반을 추적하였다.

셋째, 사상사 및 유교정치철학 관점의 연구로는 김인규(2017: 99-124)가 『조선경국전』에 담긴 『주례(周禮)』<sup>2)</sup> 이념을 분석함으로써 유교적 이상국가론과의 관계를 조명하였고, 김태희(2018: 31-65)는 유가적 법치 개념이 조선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논하였다.

넷째, 사회경제 및 제도사 중심 연구로는 노태천(1991: 32-37)이 『조선경국전』의 농공(農

2) 주례의 원래 명칭은 주관(周官)으로, 주의 관직 제도를 서술한 가장 오래되고 완비된 행정조직 법규이다. 중앙 관직을 크게 6부서인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관(六官)으로 나누고, 주례 또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관(冬官)이 일실된 후 후대인에 의해 「고공기(考工記)」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관 아래 60인(人)의 속관(屬官)이 있었음으로 형식상 360관이 되나, 현행 주례에 의하면 천관편에 대제(大宰) 이하 63관직, 지관편에 대사도(大司徒) 이하 78관직, 춘관편에 대종백(大宗伯) 이하 69관직, 하관편에 대사마(大司馬) 이하 67관직, 추관편에 대사구(大司寇) 이하 64관직, 동관 편에 수인(輸人) 이하 31관직 등 모두 372관직을 망라해 각기 그 직무의 성격과 관장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직의 이름만 있고 내용은 유실된 것이 모두 16항목이다.(김인규, 2017: 18-19)

그) 관련 조항을 분석하며 정도전의 산업 인식을 규명하였으며, 옥영정(2016: 7-39)은 서지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필사본의 발견과 『조선경국전』 자체의 문헌학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조선경국전』의 제도 형성과 정치철학적 성격, 법제사적 위상, 국가정체성 논의에 기여해 왔으며, 정도전의 사상과 조선 초기 통치 이념의 구체화를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경국전』의 전통 정치이념과 국가 통치 체계에 대한 내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문헌에 내재된 규범 구조와 제도 설계가 현대의 SDGs 가치체계 및 ESG 경영 원칙과 어떤 접점을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경국전』에 담긴 가치와 규범, 정책 원리들이 SDGs의 핵심 가치와 어떤 접점을 이루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민본주의, 공공복리의 추구, 절제와 검약, 생태적 조화관, 공동체적 윤리와 같은 전통적 가치가 SDGs의 포용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원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경국전』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적 배려, 사회적 연대, 책임 있는 통치와 제도운영 등은 오늘날 ESG의 핵심 영역인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와도 일정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며, ESG 가치의 역사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고전 정치 철학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현지화 전략과 ESG 경영의 문화적 내재화를 위한 이론적 및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 4. 연구 방법: 문헌사적 접근과 SDGs·ESG 기준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조선경국전』이라는 역사 문헌을 대상으로 한 문헌사적 접근을 통해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먼저 정도전의 사상체계와 『조선경국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행정·법제·경제·복지·군사·예제 등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규범 구조와 정책 철학을 담고 있는 육전(六典)<sup>4)</sup>을 중심으로 SDGs의 핵심 목표 및 ESG와의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SDGs 측면에서는 유엔이 제시한 17개 목표를 분석 틀로 설정하고, 『조선경국전』 육전의 각 조항이 포용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각 목표(예: 빈곤 해소, 교육 확대, 기후 행동, 제도 구축 등)와 관련된 고전적 가치의 현대적 해석 가능성을 탐색한다. 동시에 ESG 적 요소도 기준으로 하여, 『조선경국전』에서 발견되는 환경 보전 의식, 공동체적 복지 및 약자 보호,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제도 설계 등을 분류·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의미의 유사성 파악을 넘어서, 개념이 적용된 사회 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규범적 접근을 병행하며, 현대 ESG 경영의 철학적 기반을 전통 사상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선경국전』이 갖는 지속가능성

3) 이는 현 한국 학계에서 동양 전통 철학과 서구 개념인 SDGs를 연계하는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고전과 SDGs를 연계한 연구는 이창언·신윤철(2025)이 있고, 한국 철학과의 연계를 시도한 연구는 이창언(2025d)가 있으며, 동양 고전과 연계를 시도한 연구는 이승희(2024), 전선숙(2025), 이창언(2025b), 이창언(2025c)이 있다.

4) 육전 체제는 『주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天)·지(地)·춘(春)·하(夏)·추(秋)·동(冬)의 육전 체제로 된 주례가 이상적인 국가례(國家禮)로 여겨 전근대 중국의 통치와 법전의 근간을 이루는 분류체계로, 역대의 행정과 정치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정부 조직에 있어서 북주(北周)의 육관(六官)을 비롯하여 수(隋)·당(唐)에서 청말(淸末)에 이르는 육부(六部) 제도가 바로 주례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김인규, 2017: 104)

및 책임 있는 통치에 대한 함의를 재조명함으로써, SDGs의 현지화 전략과 ESG 가치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전통 정치철학을 현대 정책과 경영 의제로 재맥락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구조 개요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개발 지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책 체계 전반에 통합해야 할 규범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각국의 문화, 전통, 제도 환경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을 요구한다. 즉 SDGs는 보편적 지향을 담은 글로벌 표준이면서도, 그 이행 과정에서는 지역별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SDGs의 이행 철학은 ESG 개념과 밀접히 연계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책과 제도, 지역사회 운영 원리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세 축은 SDGs의 5P 구조와 대응되며, ESG는 조직과 정책 차원에서 SDGs를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운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UNDP와 UN SDSN은 SDGs 이행의 핵심 전략으로 현지화(localization)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2030 아젠다에서도 각국의 개발 수준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이행이 명시된다(United Nations, 2015<sup>5)</sup>). SDGs 현지화는 목표 설정부터 실행 수단 결정, 모니터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지역 맥락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Jones & Comfort, 2020). 특히 현지화는 SDGs를 단순 이식이 아닌, 지역 맥락에서 “인지 가능하고, 시급하며, 의미 있게 보이도록” 재해석하는 개념적 과정이다(Brynhildsen Reinart & Lundberg, 2023). 따라서 현지화에는 고정된 모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병행된다(Ningrum et al., 2024; Zinkernagel & Neij, 2018). 더불어 SDGs 현지화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지역사회의 변화와 통합 발전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이창언, 2024: 35).

SDGs 현지화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지역정부(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LRGs)가 전략을 수립·이행·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함하여 실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이창언, 2025a: 97). 이는 SDGs 목표를 지역의 행정 구조와 현실에 맞게 해석·적용하는 작업이며(Krantz & Gustafsson, 2021: 2643), 전 지구적 목표를 현지 관점에서 “인지 가능하고,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며, 유의미한 것으로 재해석되도록” 하는 것이다(Brynhildsen Reinart & Lundberg, 2023: 2443). 따라서 현지화는 단일한 기준이 아닌 복수의 전략과 실천 경로로 구현된다(Ningrum et al., 2024; Zinkernagel & Neij, 2018).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ESG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게 SDGs 이행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ESG는 조직 운영의 윤리적·제도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생태적 변화를 촉진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SDGs를 단순 도입 수준을 넘어 역사·사상적 맥락과 결합한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5) 74.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t all levels wi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y will be voluntary and country-led, will take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capac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will respect policy space and priorities.(<https://sdgs.un.org/2030agenda>)

다. 특히 유교적 공동체 윤리, 절제와 균형의 가치, 민본적 정치철학 등 한국 전통 사상이 지닌 지속가능성 요소는 SDGs와 ESG 담론을 심화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보편성의 접점을 탐색하는 연구는 SDGs 현지화와 ESG 내재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 2. 『조선경국전』의 구성과 성격

『조선경국전』을 편찬한 삼봉 정도전(三峯 鄭道傳, 1342~1398)의 사상은 오늘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과도 일정한 접점을 갖는다. 그는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세제민의 정신을 정치철학의 중심에 두었으며, 자연 자원의 절제된 활용과 사치의 억제 등을 통해 물질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권력 구조 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SDGs가 강조하는 형평성과 공동체성, 제도적 거버넌스와 철학적·윤리적 기반에서 공명하며, 특히 SDGs의 현지화가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의 접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맥락에서 중요한 비교사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정도전의 사상은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변기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정치, 외교, 사회, 사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정도전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통찰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정치적·사상적 기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전의 중심 문제의식은 혼란한 고려 말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성리학적 도덕 질서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려는 정치철학의 정립이었다. 그는 정치 혼란을 천명과 도덕이 어긋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천인합일론에 따라 유교적 윤리 회복이 곧 정치 회복이라 인식했다. 특히 춘추의리 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올린 공양왕 3년 상소에서는 ‘폐가입진(廢假立眞)’ 논리를 통해 우왕·창왕을 가짜 왕실로 규정하고, 대의명분에 따라 동조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김남일, 2007: 106), 이러한 사상은 단지 정치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철학으로 기능했다.

정도전은 먼저 유교 경학(經學)의 정치적 실천 가능성을 강하게 신뢰하였다. 특히 그는 『주례(周禮)』를 통해 유교·성리학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설계를 찾으려 했는데(부남철, 2008: 332), 이는 곧 유교적 이상 국가 건설의 실천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통치 철학은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도현철, 2000: 175).

그의 정치체제 구상의 핵심은 재상 중심의 관료제적 질서였다. 정도전은 군주를 도덕적 정통성과 국가의 상징으로 삼되, 현인 재상(賢人宰相)을 통하여 이상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범용론적 군주론을 제시하였다(도현철, 2008: 61). 이를 통해 그는 전제 권력을 방지하고, 합리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정도전은 또한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정립을 도모하였다. 그는 성리학의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과 의리론(義理論)을 통해 공리적·퇴폐적 사회를 극복하고, 도덕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경세실용적 『맹자』 해석을 통해 인정(仁政)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함영대, 2015: 263). 그리고 이러한 구상은 단지 이상론에 그치지 않았고, 조선 성립 이후에는 왕조의 지속성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송재혁, 2017: 94-95).

이처럼 정도전의 사상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제도화 가능한 국가운영의 원리로 구체화하려는 실천적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제도의 공정성

과 구조적 균형, 그리고 백성의 생계와 공공복지를 중심에 둔 민본주의를 중시하였으며, 그 속에서 도덕적 리더십과 제도적 안정성이 결합된 국가체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도전의 사상은 『조선경국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정도전은 단순히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경국(經國)'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운영 원리를 근본부터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유교적 덕치를 기반으로 한 관료제적 통치 체계를 정착시키려 했던 것이다.

『조선경국전』은 조선의 건국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적·철학적 기획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이념, 조직, 운영 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여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정도전은 『주례』 등의 고전 및 원나라의 『경세대전』까지 참고하여 본인의 이상적인 통치 이념을 제도적 틀로 재해석하여 이를 조선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조선의 국가체제를 단순한 현실 정치의 기술로 파악하지 않고, '경국(經國)' 즉 나라를 경영하는 도(道)의 구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경국전』은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이념과 실천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도와 가치, 이념과 현실, 유학과 정치의 통합을 지향한 이 문서는 오늘날 제도와 철학의 연결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에도 일정한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조선경국전』을 고찰하는 일은 단지 과거 제도의 역사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과제를 전통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선경국전』은 상권(上卷)과 하권(下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에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위를 바르게 함(正寶位)」, 「국호(國號)」, 「국본을 정함(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의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통치 규범으로서 육전인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이 수록되어 있다. 육전은 하권으로 이어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이 수록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정충(鄭摠)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어, 전체의 사상적 지향을 요약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상하권에 걸쳐있는 「치전」에서 「공전」까지의 육전은 『조선경국전』을 단순한 정통 선언서가 아닌 실질적인 통치 규범서로서 기능하게 한 핵심 구성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육전은 유교 정치이념의 철학을 실제 운영 가능한 법과 제도로 구현한 구조로서, 조선의 초기 국가 체제가 도덕적 이상과 실천적 행정의 접점을 찾고자 했던 시도였음을 잘 보여준다. 각 전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통치 윤리(치전), 국가 경제(부전), 문화교화(예전), 국가안보(정전), 법구조(헌전), 산업기반(공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조선의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축을 형성한다. 이는 정치-경제-사회-환경-제도 간 통합 거버넌스라는 SDGs와 ESG의 이중적 구조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조선경국전』은 항목 구성 면에서도 고도의 기획성과 통합성을 보여주며, 오늘날 지속가능발전(SDGs)이 지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뿐 아니라, ESG의 실천적 이행 체계와도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한다. 이는 고전 문헌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대적 가치와 제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육전과 SDGs의 17개 목표, 그리고 ESG의 세 영역을 함께 대응시켜 분석해 본다면, 한국 전통사상과 제도가 오늘날의 지속가능성 담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글로벌 규범과의

접목, 그리고 SDGs 및 ESG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육전(六典)에 내재된 SDGs 연관 요소 분석

#### 1. 치전(治典)<sup>6)</sup>에 내재된 SDGs·ESG 요소: 공정한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인재 등용

치전은 조선 초 국가의 정치·행정 운영 원리를 체계화한 핵심 문헌으로, 재상 중심 국정 운영, 관제 개혁, 인재 양성, 재정 및 군사 조직 관리 등 주요 거버넌스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체계는 오늘날 SDGs 및 ESG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치전」의 총서(摠序)는 최고 관직인 총재의 역할을 “위로는 군부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것(上以承君父 下以統百官治萬民)”으로 규정한다. 특히 “오직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물러나게 하면 여러 가지 공적이 이루어지고 백관이 다스려질 것(惟知人之賢不肖而進退之 庶績興而百官治)”이라고 명시하며, 능력과 덕목에 기반한 공정한 인재 등용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SDGs 목표 16(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중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과 ESG 거버넌스(G) 영역의 핵심인 공정하고 윤리적인 리더십과 직결된다. 관제(官制)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름과 실재가 서로 부합되게 하였다(循名而責實也)”고 명시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감사가 풍기를 바로잡는 역할과 수령이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리라고 명시된 것은 현대적 의미의 감찰 기능 및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ESG S)을 선형적으로 보여준다.

보리(補吏) 조에서는 서리 임용 시 “본인의 가계 및 율·문·서·산에 능통한 사람을 살펴서(考其家世及通律文書筐者得補爲吏)” 실무 능력 중심 채용으로 규정했다. 또한 입관(入官) 조를 통해 “중앙에는 성균관과 부학을, 지방은 주군에 향교를 설치하여 교수와 생원을 두어 가르치게 한다(於是內而成均部學 外而州郡鄉校 各置教授生員 贍其廩食)”고 하여 교육 접근성 확대와 실력 중심의 인재 양성을 강조하였다.

재정 운영에 있어 전곡(錢穀)은 “이러므로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여 3년마다 1년간 쓸 전곡이 저축되고, 30년 뒤에는 9년간 쓸 수 있는 전곡이 저축되었다(量其入而以爲出 三年有一年之蓄 通計三十年 有九年之蓄)”고 명시하며 재정 안정성을 도모했다. 이는 총재가 “절제와 제한을 두어(以爲之制節限量)” 멀리 내다본다는 인식 아래 소비 절제를 제도화했음을 보여준다. 군관(軍官) 조에서는 “각 도에는 절제사를 두고 주군의 군사를 당번제로 상경시켜 숙위하게 했다(每道置節制使 其州郡之兵番上宿衛)”라고 하여 중앙·지방 군사 협력 체계를 확립, 국가 안정을 꾀하였다.

결론적으로, 「치전」은 유교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인재 등용, 재정 운용, 관료 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제도적 원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치전」의 통치 원리들은 현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교육의 질 향상(SDG 4), 불평등 감소(SDG 10),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SDG 11),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SDG 16) 구축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의미 있는 연계 지점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치전』은 현대 ESG 원칙과의 다각적인 연결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원의 절제와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적 책임(E)에 대한 예지적 접근, 포용적 인재 등용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S)의 구현 노력,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G) 원칙에서 해당 요소들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6) 鄭道傳. 『三峯集』 卷13, 「朝鮮經國典」 上, 治典.

## 2. 부전(賦典)7)에 내재된 SDGs • ESG 요소: 자원 관리와 민생 안정

부전은 조선 건국기 국가가 추구한 이상적 사회경제 질서와 통치 철학을 담은 문헌으로, 백성의 생존권 보장, 자원 관리, 공정한 분배 및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현을 통해 현대 SDGs 및 ESG 개념과 다수 상응한다.

사회안전망 관련, 의창(義倉)은 흉년 구휼의 지속성(“如遇凶荒之歲 盡發以賑 待歲豐登 亦收其本以資長遠”)을,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은 질병 의료 접근성 보장(“凡有疾病者 持斗米疋布 至 則隨所求而得之”)을, 견면(蠲免)은 재난 시 백성 부담 경감(“不幸被水旱霜蟲風雹之災 隨其傷損之多寡 蠲免賦役有差”)을 규정했다.

식량 기반 강화 조항인 농상(農桑)은 “농사와 양잠은 의식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의 우선이다(農桑 衣食之本 王政之所先)”고 했으며, 군자(軍資)는 “한황지를 개간하고 노는 백성을 모두 농사로 돌려야 한다(莫若闢閒荒之地 汰遊手之民 盡歸之南畝…然後兵食可得而足也)”고 명시하여 식량 자립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꾀했다.

경제 질서 및 분배 관련, 공상세(工商稅)를 두고 “본실(本實, 농업)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而歸之本實)”이라고 하여 농업 중심 경제를 지향했다. 경리(經理)는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 겸병 폐단을 해소하고 공정한 토지 분배를 추구했다. 부세(賦稅)에서는 “백성이 10분의 1세로 통치자를 봉양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봉양해 주는 백성에 대한 보답도 역시 중한 것이다(而上之所以報其養者亦重矣)”라고 명시하며 조세의 정당성 및 책임 있는 보상을 제시했다.

격차 해소에 관하여, 경리(經理)에서는 “호강자가 남의 토지를 겸병하여…가난한 사람은 송곳 꽃을 땅도 없게 되었다.(豪強得以兼并…貧者無立錐之地)”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토지제도를 통한 부의 분배를, 판적(版籍)에서는 인구 증감에 따른 차등적인 부역 부과를 통한 공정한 부역제도 성립을 도모했다.

자원 관리 및 절제와 관련, 염법(鹽法)은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독점이 아니다(蓋與民同其利 非禁而權之也)”라고 명시, 자원 공공성을 강조했다. 산장·수량(山場水梁)은 “망이 총총한 그물을 못에 넣지 않고, 나무 잎이 다 떨어진 뒤에 산에 들어간다(數罟不入洿池 草木零落 斧斤以時入山林)”라고 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재정의 공공성과 통치자 윤리를 강조한 상공(上供), 국용(國用), 부세(賦稅), 녹봉(祿俸)은 “인군에게는 사유재산이 없다(故曰人君無私藏)”고 “헛되이 소비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이다(庶乎不至於妄費也)” 등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 원칙을 강조했다.

조운(漕運) 조에서는 “왜구가 물러나 해운이 통하니 백성의 힘이 줄고 재정이 풍족해졌다(於是遠遁 而海運通…民力省而國用裕)”라고 명시, 해상 운송의 중요성과 백성 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 물류 시스템을 강조했다. 금·은·주옥·동·철(金銀珠玉銅鐵) 조항과 주군(州郡) 조는 국가 전략 자원 및 지방 거버넌스 규정을 담고 있다.

「부전」은 의창, 혜민전약국, 견면 등을 통해 백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퇴치(SDG 1)와 건강 및 복지 증진(SDG 3) 목표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유희지 개간 및 인력 재배치를 도모한다는 점은 기아 종식(SDG 2)과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ESG 환경 E)과 연결시킬 수 있다. 토지 재분배와 공정한 부역 제도를 통한 구조적 격차 해소 노력은 불평등 감소(SDG 10) 및 사회적 포용(ESG 사회 S) 가치에 부합하며, 염법, 산장·수량 조항에서 드러나는 자원 순환 및 생태계 보전 원칙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라는 ESG 환경(E) 책임을 예지적으로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7) 『三峯集』卷13, 「朝鮮經國典」上, 賦典.

국가 재정의 공공성과 통치자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한 조항들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제도(SDG 16)의 근간이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ESG 거버넌스 G)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전」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SDGs와 ESG의 핵심 가치들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조선 초의 정치철학과 제도 구상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3. 예전(禮典)<sup>8)</sup>에 내재된 SDGs · ESG 요소: 사회 질서와 교육, 자연과의 조화

예전은 조선 초기 국가 통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유교적 규범체계로, 국가의례, 교육제도, 사회윤리, 제사문화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오늘날 SDGs 및 ESG 개념과 다층적으로 공명하는 요소를 내포한다.

총서에서는 “예의 핵심은 질서다(爲說雖多 其實不過曰序而已)”라 명시하여 제도적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회(朝會)·경연(經筵)·공신도형사비(功臣圖形賜碑) 등의 의례는 “대위를 바르게 하고 백관을 통솔한다(正大位而統百官 朝廷之序也)”라고 규정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구언·진서(求言進書)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말을 구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글을 바치면 상하의 정이 통한다(上之求於下者以言 下之進於上者以書 則決壅去蔽 上下之情通矣)”라고 하여 상하 소통을 장려했다.

교육제도와 관련 있는 문묘(文廟), 학교(學校), 경연, 공거(貢擧), 유일천거(學遺逸)와 같은 조에서는 “묘학을 세워 예로써 제사 지낸다(皆建廟學 當春秋二仲上丁之日 祀之以禮載)”고 명시하며 유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병률·서산·의약·상역 등을 가르쳤다(曰兵律曰書筐曰醫藥曰象譯 亦倣置教授 以時講勸 其教之也亦至矣)”라고 하여 실용 학문 교육의 폭넓은 제공을 보였다. 또한 “덕과 행실이 갖추어진 자를 천거한다(其有經明行修…可爲師範者)”고 하는 등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포용적 인재 선발을 제도화했다.

적전(籍田)은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고, 적은 권농의 근본이다(農者 萬事之本也 藉者 勸農之本也)”라 했고, 사직(社稷) 조항은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다(蓋人非土不立 非穀不生)”라고 하여 농업의 근본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풍운뇌우(風雲雷雨)는 “오곡을 살찌게 하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風雲雷雨 滋五穀滲品彙 則其澤物也至矣)”라고 하였고, 역(曆)은 “천도의 운행을 밝히고 절후를 구분한다(所以明天道之運行 定日月之躔度 分節候之早晚)”라고 하여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담았다.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종묘(宗廟), 문묘, 향음주(鄉飲酒), 악(樂), 여복(輿服) 등의 의례와 관련된 조, 생애주기 윤리를 확립한 혼인(婚姻), “성인을 만드는 도리이다(冠者 成人之道也)”와 상제(喪制), “죽음은 친의 끝이자 인도의 큰 변화다(夫死者 親之終而人道之大變也)”는 사회적 결속과 도덕적 삶을 중시했다. 사신 파견(遣使) 조에서는 “학문이 풍부하고 사명이 능란한 자라야 국가의 아름다움을 선양한다(苟非學問之富 辭命之善 足以專對命而揚國美者)”고 하여 외교 및 국제 교류를 제도화했다.

예전(禮典)은 조선의 이상적 통치 체제를 규범화한 유교 정치 모델이지만, 그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 속에서 오늘날 SDGs와 ESG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들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E) 측면에서는 적전과 사직 조항의 식량 생산 지속가능성 강조, 풍운뇌우 제사 및 역(曆) 운행 파악을 통한 자연 질서 순응은 생태적 조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간접적 관심을 제도화했음을 보여준다. 사회(S) 측면에서는 문묘·학교·경연 등 교육제도로 교육 기회 확대와 실용 학문 제공을 추진했으며, 공거·유일천거 조항을 통해 능력 기반 인재

8) 『三峯集』卷13, 「朝鮮經國典」上, 禮典.

등용과 사회 통합을 도모했다. 혼인·상제 등 생애주기 윤리 확립은 공동체 결속 강화에 기여했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는 총서와 의례를 통한 국가 운영 질서 확립으로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조하며, 구언·진서 조항의 상하 소통 장려와 사신 파견 조항의 국제 협력 지향은 책임 있는 통치와 외교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예전은 사회 구성원의 삶과 자연, 국가 간 관계의 조화를 강조하며 현대 SDGs와 ESG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제도적 원형을 제시한다.

#### 4. 정전(政典)<sup>9)</sup>에 내재된 SDGs·ESG 요소: 국방, 복지, 생태 보전의 조화

정전은 단순한 병정 제도의 체계화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행정을 통해 국가의 정의, 복지, 경제적 자립, 생태 보호, 제도적 질서 등 다양한 공공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고전적 규범이다. 특히 이 규범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총서에서는 “병(兵)은 성인이 부득이 마련한 것인데 반드시 정(正)으로써 근본을 삼았으니, 성인이 병을 중히 여긴 뜻을 볼 수가 있다(兵非聖人之得已 而必以正爲本 聖人重兵之意可見矣)”라 하여 군사 운영의 근간을 정의에 두었다.

상벌(賞罰)에서는 “상과 벌이,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공과 죄에 따르지 않고 한 개인의 기쁨과 노여움에서 결정된다면…(然賞罰不因於衆人之功罪 而出於一己之喜怒)”,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은…상과 벌은 공적인 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掌軍者…不可無賞罰 而賞罰不可不出於公也)”라 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병사 복지에 관하여 존휼(存恤)에서 “늙은이와 어린 사람은 놓아 보내고…(老幼者放歸之)”라 하여 인권 보장을, 공역(功役)에서는 “병졸들이란…지나치게 안일하게 하여도 안 되는 것이다(故凡兵卒…亦不可使之過逸)”라 하여 근무 환경의 균형을 제시하였다.

둔전(屯田) 제도는 “조운하는 불편을 덜고 군량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所以省漕運而贍軍食也)”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실패 원인을 “그 폐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其弊在人而不在法)”라 분석하였다.

인프라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역전(驛驛)에서 우전(郵傳)의 설치 체계를 설명하는 한편 군기(軍器)에서는 군기감(軍器監) 설치를 통한 체계적 병기 관리를 언급하며 행정·통신·군수 체계를 정비하였다.

전렵(畋獵)은 “해치는 짐승만 잡고(一則曰除禽獸之害民穀者), 잡은 짐승은 제사에 바친다(一則曰獻禽以供祭祀)”라고 하여 군사훈련과 공공가치를 결합하였다.

이렇듯 「정전」은 단지 군사 기술이나 병정 제도론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공공가치를 구현하려는 고전적 규범으로서 현대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계 지점들을 제공한다.

병사 복지(존휼)를 통한 빈곤 퇴치(SDG 1), 건강 증진(SDG 3), 불평등 감소(SDG 10)는 사회적 책임(ESG S)등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둔전(屯田) 제도를 통한 식량 자급 노력(SDG 2) 및 전렵(畋獵) 조항의 생태계 보전(SDG 15) 의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ESG E)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인 인프라(군기, 역전) 구축은 산업과 인프라(SDG 9)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SDG 11)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총서와 상벌(賞罰) 조항에서 강조하는 정의에 기반한 군사 운영 원칙과 공정한 상벌 제도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SDG 16) 구현의 핵심 요소이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

9) 『三峯集』卷14, 「朝鮮經國典」下, 政典.

버넌스(ESG G)의 원형적 형태를 제시한다.

## 5. 헌전(憲典)<sup>10)</sup>에 내재 된 SDGs • ESG 요소: 도덕적 법치와 약자 보호, 법 교육

헌전은 조선 초기 제도의 핵심 원리를 담았으며, 단순한 형벌 중심의 규범체계를 넘어, 인민의 생명과 존엄, 공정한 행정, 지속가능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정치철학을 담고 있다. 헌전은 조선 초기의 법제 철학과 실천 원리를 집대성하였으며, 그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나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을 상징한다는 것에 있었다.

총서에서는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하는 것이다(辟以止辟 刑期無刑)”라 하여 형벌의 불필요를 궁극목표로 삼았다. 또한 “성인의 법은…공경하고 애홀하는 인과 신중함을 다한 뒤 시행된다(聖人之法…故必致欽恤之仁 明慎之心 然後可行也)”라고 하여 집행자의 윤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명률』을 방언으로 번역해 쉽게 깨우치게 했다(爰命攸司將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라고 하여 백성의 법 이해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도적(盜賊) 조에서는 “기한이 몸에 절실해지면…대부분 부득이 도적이 되는 것일 뿐이다(飢寒切身…多迫於不得已而爲之耳)”라 하여 빈곤이 범죄 원인임을 밝혔다.

가정 질서에 있어서는 범간(犯姦) 조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君子之道 造端夫婦)”, 호역(戶役) 조에서 “혼인이…근엄하지 않으면 음란한 행동이 일어난다(曰婚姻…不謹則有淫僻之行)”라고 하여 부부 윤리를 사회 기반으로 보았다.

경제·행정 질서에 관해서는 호역에서 “창고는…완비되지 않으면 낭비된다(曰倉庫…不備則有虛耗之弊)”, “시전은…살피지 않을 수 없다(曰市廛…不可以不察者也)”라 하였고, 영조(營造)에서 “옛날에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불과 3일(古者 役民歲不過三日 其不欲勞民如此)”이라는 구절을 내세움으로써 자원 및 노동 절약을 중시하였다.

관진(關津), 우역(郵驛)에서는 각각 나라의 관·진이 있는 곳에는 “모두 토지를 지급하여 진리(津吏)를 먹이고…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皆爲給田以食津吏…而不征其稅)”, “도로의 완급과 인마의 다과를 헤아려서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하였다(量其道路緊緩 人馬衆寡 給田有差)”라고 하여 인프라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즉, 「헌전」은 형벌의 불필요를 지향하고 집행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법철학을 통해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SDG 16) 구축과 윤리적 거버넌스(ESG G)의 기반을 제시한다. 빈곤이 범죄의 구조적 원인임을 인식하여 백성의 생계 안정을 도모한 점은 빈곤 퇴치(SDG 1) 및 사회 안전망(ESG S)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백성의 법 이해를 돕고, 부역 부담을 최소화하며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려 한 노력은 양질의 교육(SDG 4)과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SDG 11) 조성에 기여한다. 이처럼 「헌전」은 인민의 삶과 권리, 그리고 공정한 통치를 아우르며 현대 지속가능성 가치 및 ESG 프레임워크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전근대적 규범체계를 보여준다.

## 6. 공전(工典)<sup>11)</sup>에 내재된 SDGs • ESG 요소: 자원 효율성과 장인 존중, 공공 인프라 관리

공전(工典)은 조선 건국 초 국가 통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토목과 기술, 장인과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원칙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

10) 『三峯集』 卷14, 「朝鮮經國典」 下, 憲典.

11) 『三峯集』 卷14, 「朝鮮經國典」 下, 工典.

리했다. 이 공전은 단순한 건축·기술의 절차 내용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절약과 민력의 보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 등을 아우르는 정치·경제·문화적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궁원(宮苑)에서는 “사치란 악의 큰 것이니…검소해야 한다(侈 惡之大也…寧儉)”, 노부(鹵簿)에서는 “문물을 다 갖추는 것은 종묘나 교사(郊社)에 제사지낼 때에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간소하게 한다(然盡文備物 當祭宗廟郊社則爲之 其餘則簡焉)”라고 하여 절제를 강조하였다.

노동력 운용 측면에 있어서는 총서에서 “백성을 부릴 경우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였다(而其使民皆於農隙)”라 하여 민생을 존중하였다.

성곽(城郭)에서는 “성이란 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역사는 시기를 어겨서는 안 된다(城不踰制 役不違時)”, “공사의 양을 헤아려 기간을 정해야 한다(量功命日)”라 하여 공사의 적정성과 준비 절차를 명시하였다.

창고(倉庫)에서는 “나라에 3년간 쓸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國無三年之儲 國非其國)”라 하고, 각 창고에 대해서는 의창·장흥창은 “빈민 곡식 진대(所以賑貸於貧乏者也)”, 광흥창은 “백관의 녹봉 지급(所以支百官祿俸)”, 풍저창은 “국용 저장과 재변 대비(所以儲國用 備凶荒不虞之災)”라고 하였다.

금공 등의 장인들(金玉石木攻皮埴埴等工)에 대해서는 “백공의 기술은…국가에 긴요하여 폐지할 수 없다(百工之技…實爲緊要 皆不可廢也)”라 하여 기능직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종묘에서는 “제사는 국가의 대사…반드시 먼저 종묘를 세운다(祀國之大事也…必先立宗廟)”, “천지와 조상에는 공경, 자신은 검소(所以致敬於天地祖宗 而自處以薄)”라 하여 제례와 정치 정통성을 연결하였다.

병기(兵器)에서는 중앙에서는 군기감(軍器監)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각도의 도절제사에게는 도내에서 제조한 병기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군수품 품질 관리와 제도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전」은 단순한 건축·기술 규범을 넘어, 당시 국가 통치 체계가 지향했던 폭넓은 공공 가치를 담고 있으며 현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결 지점들을 제공한다. 환경(E) 측면에서는 궁원과 노부에서 강조된 검소와 절제, 창고의 장기 비축 원칙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 및 책임 있는 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사회(S) 측면에서는 농한기 민력 활용 규정과 장인 존중을 통해 인간 중심의 노동 관념과 양질의 일자리(SDG 8)와 같은 요소를 확인 할 수 있고, 다목적 창고 운영은 빈곤 퇴치(SDG 1)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 내재되어 있다 평할 수 있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는 성곽 등 공공 사업의 계획성과 병기 관리의 체계화는 효율적 인프라(SDG 9, 11) 구축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가 운영과 연결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경국전』이라는 조선 초 제도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내재된 지속가능성 가치 및 ESG적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전통 정치철학이 현대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어떻게 접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육전(六典)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 나타난 규범 구조와 제도 원리를 현대의 SDGs 및 ESG 프레임과 비교함으로써, 고전 문헌이 지닌 사상적·제도적 연속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경국전』은 단순한 통치 규범집이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절제, 생태적 조화, 도덕적 리더십 등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들을 제도화하려는 기획 문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은 SDGs의 포용성·형평성·지속가능성 원칙과 ESG의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들과 구조적으로 상응하는 ‘지속가능성 지향적 원형’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치전은 공정한 관료제 구축, 인재 등용,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등에서 거버넌스(G) 요소를 중심으로 주로 SDG 16(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4(양질의 교육) 등과 밀접히 연결된다. 부전은 의창, 해민전약국, 산림·광물 자원 관리 등을 통해 사회(S) 및 환경(E) 영역에서의 빈곤 퇴치(SDG 1), 기아 종식(SDG 2), 건강과 복지(SDG 3),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SDG 12) 등 실천적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예전은 질서, 교육, 윤리, 생태 순환에 대한 의식을 통해 사회(S) 및 환경(E) 영역과 연결되며, SDG 2(기아 종식), SDG 4(양질의 교육), SDG 13(기후 행동) 등과 맞닿아 있다. 정전은 군사 조직과 복지, 병농일치 체계를 통해 거버넌스(G), 사회(S), 환경(E) 전 영역과 접점을 가지며, SDG 1(빈곤 퇴치), SDG 3(건강과 복지), SDG 15(육상생태계) 등 다양한 목표와 연관된다. 헌전은 도덕적 법치, 법의 교육적 성격, 약자 보호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거버넌스(G) 및 사회(S) 요소를 실현하여 SDG 1(빈곤 퇴치), SDG 4(양질의 교육), SDG 5(양성평등), SDG 16(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 등과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전은 자원 절약, 공공건축의 효율성, 장인 기술 존중 등을 통해 ESG 전 범주에 걸쳐 구조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며, SDG 1(빈곤 퇴치),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6(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 등의 목표와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조선경국전』이 조선 초기의 국가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문헌인 동시에,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SDGs 및 ESG 가치체계의 ‘한국적 원형(Korean Prototype)’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서구 중심의 지속가능성 담론이 가지는 한계(예: 지나친 경제주의, 이분법적 사고 등)를 보완하고, SDGs의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에 있어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사상적·문화적 전통을 독자적인 관점과 대안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ESG 가치의 문화적 내재화를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선경국전』이라는 단일 문헌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국대전』,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다른 한국 전통 문헌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통 사유의 계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주로 규범 분석 및 개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실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SDGs 이행 전략 및 ESG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선경국전』의 규범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적·정책적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고전의 현대적 재맥락화와 정책적 실천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전통 정치철학에 기반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담론의 재구성과, SDGs·ESG의 토착화를 위한 사상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헌자료

-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5輯, 민족문화추진회, 2002.
- 김남일(2007). 정도전의 정치사상과 조선건국. **한국철학논집**, (24), 93-120.
- 김인규(2014). 禮 이념의 전개와 國家禮 - 『周禮』와 「朝鮮經國典」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38, 7-34.
- 김인규(2017). 朝鮮經國典에 나타난 周禮 이념. **온지논총**, 52, 99-124.
- 김용옥(2004).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통나무.
- 김태희(2018). 조선의 '유가적 법치' 이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31-65.
- 노태천(199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나타난 정도전의(鄭道傳) 농공(農工)에 대한 인식. **대한 공업교육학회지**, 16(1), 32-37.
- 도현철(2000).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 **한국사학보**, (9), 169-196.
- 도현철(2008). 정도전의 경학관과 성리학적 질서의 지향. **태동고전연구**, 24, 1-40.
- 문철영(2008). 삼봉 정도전의 의식세계(意識世界) 연구 - 해배(解配) 이후 조선 건국 시기를 중심으로 -. **동양학**, 44, 201-229.
- 부남철(2008).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周禮』. **영남학**, (43), 327-358.
- 송재혁(2016). 정도전의 군주론. **정치사상연구**, 22(2), 75-98.
- 송재혁(2017). 정도전의 신질서 구상과 『서경』. **아세아연구**, 60(3), 7-35.
- 송재혁, 이아영(2019). 정도전은 군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려 했는가 『조선경국전』 「부전」 상공 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2(3), 245-275.
- 송재혁(2020). 정도전(鄭道傳)의 국가론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원(元) 제국의 유산-. **한국사상사학**, 65, 157-191.
- 양승태(2008). 한국 헌정이념사 연구서설. **정치사상연구**, 14(2), 114-135.
- 오기수(2012). 『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9(1), 167-198.
- 옥영정(2016). 새로 발견된 朝鮮經國典의 書誌學的 가치. **조선시대사학보**, (76), 7-39.
- 윤훈표·임용한·김인호(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해안.
- 이승희(2024). 묵자사상(墨子思想)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련성 소고(小考). **융합인문학**, 12(2), 7-28.
- 이정주(1997). 사상가로서 鄭道傳의 새로운 모습. **한국사학보**, (2), 133-168.
- 이종수(2018). 鄭道傳 [朝鮮經國典] 法治思想 分析. **퇴계학논집**, (23), 513-541.
- 이창언(2024). SDGs 현지화를 위한 '자발적 지역 검토(VLR) 프로세스' 연구. **사회적질연구**, 8(2), 31-61.
- 이창언(2025a). SDGs 현지화 과정에서 지방정부(LRGs)의 전략적 역할과 과제 AIIPA 프레임워크를 통한 통합적 접근. **NGO연구**, 20(1), 89-122.
- 이창언(2025b). 『천자문』 윤리 기반 지속가능성 연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질적 분석 연구: 동아시아 공동 자산으로서의 고찰. **아시아연구**, 28(3), 223-244.
- 이창언(2025c). 천자문(千字文)에 나타난 윤리적 가치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적용 가능성 탐색: 책임 있는 시민성 함양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7(3), 151-182.
- 이창언(2025d).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과 SDGs/ESG 연계: 한국적 생명 지혜와 '생명수양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담론의 심화 연구. **통일인문학**, 103, 245-292.
- 전선숙(2025). [묵자(墨子)]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98, 195-218.
- 정궁식(2015). <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 **서울대학교 법학**, 56(2), 85-116.
- 정성식(2003). **포은과 삼봉의 정치철학**. 심산.
- 정성식(2020). 14세기 정도전의 유교입국론. **동양고전연구**, 81, 327-351.
- 조항덕(2005).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연구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 **한 문고전연구**, 11, 267-297.
- 한영우(1987).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영우(2002).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 함영대(2015). 정도전의 『맹자』 해석에 대한 일고. **韓國古典研究**, 32, 255-283.

- Brynhildsen Reinart and Lundberg(2023). Goals à la carte: Selective transl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trategic municipal planning in Norway.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7(11), 2442-2458.
- Dianty Ningrum, Shirin Malekpour, & Rob Raven(2024). Three Perspectives on Enabling Local Ac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lobal Sustainability*, 7, 1-29.
- Jones, P., & Comfort, D(2020). A commentary on the localis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ournal of Public Affairs*, 20(1), e1943. doi.org/10.1002/pa.1943.
- Krantz, V., and Gustafsson, S(2021). Local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in municipalities: early experiences from a Swedish forerunner.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4(14), 1877642. doi: 10.1080/09640568.2021.1877642
- Lawrence, M., Homer-Dixon, T., Janzwood, S., Rockström, J., Renn, O., & Donges, J. F(2024). Global polycrisis: The causal mechanisms of crisis entanglement. *Global Sustainability*, 7, 1-16.
- Ningrum, M. N. A., Purbaningrum, W. P., Purwoarminta, C., ... & Prasetia, D(2024). SDG Localization in Indonesia: Strateg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Urban Management*, 13(1), 1-11.
- UNEP(2024). Global assessment on planetary health and human wellbeing.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 United Nations(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202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 United Nations(2024b). Pact for the Future. Outcome document of the Summit of the Future.
- WEF(2024). Global Risks Report 2024.
- Zinkernagel, R., Evans, J., & Neij, L.(2018). Applying the SDGs to cities: business as usual or a new dawn? *Sustainability*, 10, 3201.

○ 포럼 자료

문철영(2011). 정도전과 「조선경국전」. *인문정책 포럼*, 8, 100-103.

○ 인터넷 자료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s://sdgs.un.org/2030agenda>(검색일: 2025.7.23.)

# 무위당 장일순의 지속가능성 윤리와 SDGs·ESG의 접합 가능성 연구<sup>12)</sup>

이창언(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20세기 한국 사회는 해방, 전쟁, 군사 독재,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급격한 전환의 과정을 겪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 속에서 무위당 장일순(張壹淳, 1928-1994)의 사상은 기존 근대화 패러다임이 내재한 한계를 넘어, 생명과 평화, 공생과 무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 전환의 지평을 열어 보였다. 그는 국가주의와 성장 지상주의, 산업화의 논리를 비판하면서도 단순한 정치 운동가나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철학과 종교, 예술과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를 전개한다. 장일순의 '좁쌀 사상', '모심', '살림', '전일적 세계관' 등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생태 파괴, 불평등 심화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허찬란(2019: 470)은 '호랑나비'와 '시카고 야경'의 비유를 통해 현대 문명의 파괴적 속성을 비판하며 장일순의 위기 진단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역설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거버넌스(ESG)라는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실천 과정은 여전히 물질주의적·경제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의식의 전환과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라는 내적 차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장일순 사상의 현대적 의의가 부각된다. 그의 사유는 '살림'과 '공생'이라는 생활 속 실천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조와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에 이르는 다층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나미(2019: 41)는 장일순이 1980년대 한국의 주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우주와 하나 되는 생태적 삶'을 주장했음을 강조한다.

### 2. 연구사 검토의 필요성

장일순 사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등재후보 포함) 논문은 총 46편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제의 편중, 방법론의 단선성, 사상적 맥락의 단편적 접근 등 한계를 지닌다. 일부 연구는 특정 시기나 사건, 혹은 장일순의 예술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 이나미(2019: 55)는 주류 학계에서 장일순의 사상적 위치가 이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연구가 때로 과소평가되었음을 시사한다. 조성환(2019: 71)은 장일순을 윤노빈, 김지하와 함께 '원주의 생명학파'의 일원으로 보며 그가 기존 학문적 틀에서 벗어나 동학을 생명사상으로 재

1) 본 연구는 아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함.

이창언. 2025.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과 SDGs/ESG 연계: 한국적 생명 지혜와 '생명수양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담론의 심화 연구」. 『통일인문학』 103: 245-292.

해석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다른 연구들은 동학, 불교, 기독교, 노장사상 등과의 비교를 통해 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으나, 현대 글로벌 담론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 허찬란(2019: 463)은 장일순 사상이 통합적 환경 윤리 사고를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중요한 방안이 됨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되, 장일순 사상의 SDGs/ESG 연계 및 새로운 인간관 탐색이라는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엄선된 18편의 핵심 논문(등재지 17편, 비등재지 1편)을 중심으로 장일순 사상 연구의 지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의 사상을 SDGs와 ESG라는 새로운 지구적 의제와 연결함으로써, 한국적 인문학 자산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다.

### 3. 연구 목적과 질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위당 장일순 사상의 철학적 핵심을 연구사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이를 21세기 글로벌 지속가능성 의제인 SDGs와 ESG의 연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기존 장일순 연구의 축적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장일순 사상의 지형과 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장일순 사상에서 '생명', '모심', '살림', '공생', '무위', '전일성', '영성', '좁쌀 사상' 등의 개념은 어떤 철학적·실천적 함의를 가지며, 이는 동학·노장·불교 등 전통 사상과 어떻게 회통되는가?

셋째, 이러한 개념들은 SDGs 17개 목표와 ESG의 E·S·G 영역과 어떤 지점에서 접속하며, 상호 보완적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넷째, 장일순 사상을 토대로 SDGs/ESG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실천 개념-'생명수양경영(生命修養經營; Spiritual Sustenance Management)'-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다섯째, 장일순 사상과 SDGs/ESG의 접목이 한국 인문학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담론에 줄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기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장일순 사상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어떤 독자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특히 한국적 맥락의 지혜가 서구 중심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보완하고 질적으로 심화하는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4.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의 방법론은 장일순 사상에 대한 연구사적 분석, 비교철학적 해석, 그리고 SDGs/ESG 담론 연계 분석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구사적 분석에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등재후보 논문 46편 중 본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8편의 핵심 논문을 선정하여 시기별·주제별·방법론별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흐름, 공통 주제, 차별적 접근, 미비점 등을 도출한다. 둘째, 비교철학적 해석에서는 장일순의 사상적 텍스트(『나라 한 알 속의 우주』,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등)를 1차 자료로 삼아, 동학사

상, 노장사상, 불교 사상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담론 연계 분석에서는 유엔 SDGs(2015~2030)와 ESG 경영 담론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장일순 사상과의 철학적·실천적 연관성을 매핑(mapping)한다. 이를 위해 SDGs 17개 목표와 ESG 세 영역(E·S·G)을 표로 정리하여,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과 대응시킨다. 또한 장일순의 사상과 실천이 구현된 한살림 운동, 풀무농업고등학교 교육, 지역 생명운동 사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 장일순의 생전 발언과 회고록, 구술 자료를 보조적으로 인용한다.

## 5. 연구 범위와 구성

연구 범위는 시간적으로 장일순의 생애(1928~1994) 전 기간을 포괄하되, 특히 1980년대 이후 생명·평화·공생 담론이 구체화된 시기에 주목한다. 내용적으로는 장일순의 사상을 철학적·실천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며, 사상적 배경, 개념 체계, 현대적 함의를 함께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 장일순 사상 연구사 검토 - 시기별·주제별·방법론별 분석과 학문사적 위치

제3장 장일순 사상의 핵심 이해: 생태 및 공생 세계관의 해명

제4장 장일순 사상의 생태-사회적 함의와 SDGs/ESG의 심층 연계 및 실천적 함의 그리고 '생명수양경영' 개념 정립 - ESG 보완을 위한 생명윤리 기반 실천 모델

제5장 결론: 연구 의의, 학문적 기여, 향후 연구·실천 과제 제안

## II. 장일순 사상 연구의 연구사적 분석

### 1. 서설: 연구사 분석의 의의와 방법

장일순(張壹淳, 1928-1994)은 한국 현대사에서 사상가·운동가·교육자·예술가로서 다양한 궤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사유는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전환기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생명사상과 공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개인의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당대의 민주화·생태 위기·지역 공동체 운동 등 구체적 사회현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장일순 사상 연구의 흐름과 지형을 검토하는 일은 곧 한국 현대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 가능성을 재점검하는 과정과 직결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인용색인(KCI)에 등재된 46편의 논문 가운데, 연구의 핵심성을 기준으로 엄선한 18편의 논문을 심층 분석한다. 이 분석은 단순한 문헌 검토를 넘어, 연구 주제의 경향과 변화, 학문적 공백, 그리고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현대 글로벌 담론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거버넌스(ESG)와 어떠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 2. 연구 주제 분석: 장일순 사상의 다면성

본 연구의 연구사적 분석 결과, 무위당 장일순 사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주제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그의 사상이 지닌 다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류는 장일순 사상 연구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본 연구가 왜 18편의 핵심 논문을 엄선하여 심층 분석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표 1> 장일순 사상 연구의 주제별 분류

범주	주요 내용	대표 연구자 (연도)
사상 해명 중심 연구	장일순의 생명사상, 전일적 세계관, 평화사상, 좁쌀사상 등 핵심 개념 정의와 철학적 구조 해명에 집중한다.	서광열(2022a), 김재익(2020), 김재익(2024), 박준건(2003), 이정애(2024)
비교 사상 연구	동학 최시형, 노자, 불교 화엄·화쟁 사상, 함석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장일순 사상의 독창성과 사상적 연원을 규명한다.	백효민(2021), 황종원(2023), 황종원(2022), 조성환(2019), 이나미(2019)
사회운동·실천 분석	한살림 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 등 구체적 사회 변혁 실천에서 장일순 사상의 적용을 검토한다.	신민선(2023), 허찬란(2019), 정주아(2024), 김보경(2023), 이은주 외(2005), 박순금(2003)
학제 간 융합 연구	종교학, 지리학, 환경사회학, 정치사상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장일순 사상을 접목한다.	허찬란(2019), 황종원(2022), 이나미(2019), 조성환(2019)

### 1) 사상 해명 중심 연구

이 분야의 연구들은 장일순 선생의 고유한 사상 체계와 핵심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명하는 데 주력한다. 주로 그의 생명사상, 전일적 세계관, 평화사상, 좁쌀사상 등의 정의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사유가 지닌 근본적인 세계관을 규명한다. 일례로 서광열(2022a: 111)은 장일순 사상의 전개와 특성을 '생명문제'와 '전일성' 중심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그의 사유가 담고 있는 존재론적 바탕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김재익(2020: 37)은 장일순의 생태철학을 '전일적 세계관'이라는 틀 속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의 사상적 근간을 밝히고, 김재익(2024: 275)은 장일순의 생명 사상을 불교적 '생태보살' 개념과 연결하여 생명 개념의 존재론적, 실천적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본 연구의  $\text{SDGs/ESG}$  연계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박준건(2003: 2)은 김지하의 생명사상 연구를 통해 '내유신령' 개념이 우주적 영성을 품고 있음을 설명하며 장일순의 생명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이정애(2024: 7)는 '한살림'을 통한 장일순의 '어울림관'을 제시하며, 만물이 배제 없이 평화롭게 관계 맺는 그의 생명 철학을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 2) 비교 사상 연구

이 영역은 장일순 선생의 사상을 한국 및 동양의 전통 사상(동학 최시형, 노자, 불교 화엄 사상 등)이나 동시대 다른 사상가들(함석헌, 김지하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의 사상적 연

원과 독창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의 사상이 지닌 회통적 성격과 특정 사상으로부터의 수용, 변용 과정을 조명하여 사상사적 지형을 그려낸다. 예를 들어 백효민(2021: 279)은 해월 최시형의 철학이 장일순의 '경물사상'과 '전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장일순 사상의 한국적 뿌리를 밝혀준다. 황종원(2023: 275)은 노자의 '생태노동론적' 관점에서 장일순의 사상을 해석하며 전통 사상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조성환(2019: 71)은 장일순을 윤노빈, 김지하와 함께 '원주의 생명학파'로 명명하며, 이들 모두가 동학을 생명사상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서구 근대의 부작용을 극복하려 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장일순 사상의 사상사적 위치를 정립했다. 이나미(2019: 62)는 장일순의 사상을 1980년대 한국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과 비교하며 그의 영성적이고 장기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부각한다.

### 3) 사회운동·실천 연구

이 범주의 논문들은 장일순 선생의 사상이 한살림 운동, 교육 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변혁 실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의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과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신민선(2023: 131)은 장일순의 평생교육 사상을 분석하여 현대 성인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명한다. 정주아(2024: 49)는 197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론과 '민중-생태' 운동이 성장주의에 맞서 한국적 생태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분석하여 장일순 사상이 시대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김보경(2023: 10)은 『녹색평론』의 생태 담론이 장일순 사상과 접점을 가지며 형성되었음을 제시하여 그의 사상이 실제 언론과 사회 운동에 미친 영향을 드러낸다. 이은주 등(2005: 183)과 박순금(2003: 139)은 장일순의 '살림' 사상이 유아교육의 '돌봄' 개념에 적용될 수 있음을 구체화하며 그의 사상이 실제 교육 현장에 지닌 함의를 밝힌다.

### 4) 학제 간 융합 연구

이 범주는 장일순 사상이 종교학 지리학 환경사회학 정치사상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장일순 사상의 총체적이고 회통적인 성격이 현대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융합적 접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허찬란(2019: 463)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한살림 운동의 공간적 의미와 지속가능성 함의를 분석하며 SDGs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황종원(2022: 47)은 장일순 생태사상의 생태기술론적 의의를 탐색하여 그의 사상이 기술과의 연계 속에서 어떻게 현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학제 간 융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나미(2019: 38)는 장일순을 1980년대 한국 정치사상사의 주요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사상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조명한다. 조성환(2019: 71)은 장일순을 종교학적 관점에서 '원주의 생명학파'로 분류하며 그의 사상이 '새로운 근대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네 가지 주제군은 장일순 사상 연구의 주요 축을 형성하며 본 연구가 그의 사상을 SDGs 및 ESG 담론과 연계하고 '생명수양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분석 기반을 제공한다.

###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연구사적 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여 장일순 사상 연구의 흐름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SDGs/ESG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문헌 검토를 넘어 장일순 사상이 한국 학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연구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 1)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장일순'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총 46편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논문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8편의 핵심 논문을 엄선하여 심층 분석한다. 이 46편의 KCI 등재 논문 중 일부는 그의 사유의 핵심인 생태-사회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특정 사건이나 예술 활동 등 제한적인 분야에 머물러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엄선된 18편의 논문은 본 연구의 목적(장일순 사상의 SDGs/ESG 연계 및 새로운 인간관 탐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

첫째, 연구 주제의 핵심성 및 대표성이다. 장일순의 생명사상, 전일적 세계관, 모심, 공생, 무위, 영성, 풀뿌리 민주, 비폭력 평화사상 등 그의 핵심 사상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어 SDGs/ESG와 연결되는 윤리적,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논문을 우선 선정한다(대표 연구자: 김재익(2020), 서광열(2022a), 이정애(2024), 박준건(2003)).

둘째, 사상적 연원 및 계승 관계의 명확성이다. 장일순 사상의 독창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전통 사상(동학, 노장, 불교, 기독교)을 수용하고 변용했는지, 혹은 어떤 현대 사상가와 비교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논문을 포함한다(대표 연구자: 백효민(2021), 황종원(2023), 김소남(2017), 전호근(2016), 이나미(2019), 조극훈(2023)).

셋째, 실천적 함의 및 사회 운동과의 연계성이다. 장일순 사상이 한살림 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교육 운동 등 실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문을 선정한다(대표 연구자: 김기섭(2021), 하승우(2008), 신민선(2023), 서광열(2022b), 정주아(2024), 김보경(2023), 이은주 외(2005), 박순금(2003)).

넷째, 학제 간 융합적 관점: 장일순 사상이 철학, 종교, 사회학, 교육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을 포함한다(대표 연구자: 허찬란(2019), 황종원(2022), 이나미(2019), 조성환(2019)).

다섯째, KCI 등재 여부 및 연구사적 가치이다. 학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KCI 등재(등재후보 포함) 여부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이창연(2015)의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의 경우 비등재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장일순의 생애와 사상 전반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좁쌀 사상'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며, 장일순 연구의 지형 형성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엄선된 목록에 포함한다.

#### 2) 선행 연구 분석 과정

선정된 18편의 논문에 대해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및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한다. 각 논문에서 핵심 논지와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1차 및 2차 자료의 활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각 논문이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예: 생명사상 모심 무위 영성 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는지 비교 분석하여 개념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각 논문이 주로 사용

하는 연구 방법론(문헌 연구 질적 연구 역사학적 접근 등)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각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장일순 사상의 어떤 측면이 SDGs 및 ESG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목표 및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본 연구의 연계 모델 구축에 활용한다.

###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장일순 연구의 연구사적 지형을 분석한다. KCI 등재지 논문 46편과 엄선된 18편 논문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비교하여 장일순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집중도를 파악한다. 각 논문이 장일순 사상 해석에 기여하는 바를 유형화하고 연구의 간극(gap)과 해석상의 편향 담론 내 긴장 구조 등을 식별한다.

둘째,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을 재해석한다. 엄선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생명사상, 모심, 공생, 무위, 영성, 풀뿌리 민중, 비폭력 평화사상)을 심층적으로 해명하고 그의 사상이 동학 노장 불교 등 전통 사상과 어떻게 회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장일순의 '좁쌀 사상'이 만물과의 '전일성'을 드러내는 비서구적 통찰임을 강조한다.

셋째, 장일순 사상-SDGs/ESG 연계 모델 구축을 시도한다.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SDGs의 17개 목표와 ESG의 E, S, G 영역에 어떤 철학적 윤리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지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계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장일순 사상을 SDGs 및 ESG라는 새로운 렌즈로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적 인문학적 자산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담론에 기여하고 학제간 연구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론과 실천의 괴리 물질주의적 사고의 한계에 봉착한 SDGs/ESG 실천에 장일순 사상의 "인식과 삶의 근본적인 전환"(김소남 2017: 19)이라는 내면적 동력과 한국적인 실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방법론적 특징과 한계

기존 장일순 사상 연구는 주로 문헌 분석에 의존하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병행 활용한다. 이는 장일순 사상의 사상적 깊이와 회통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실증적 자료 활용 부족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논의가 이론 및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장일순 사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사회적 실천, 즉 한살림 운동의 구체적 현장, 지역 운동 사례, 생태 교육 실험과 같은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 기반의 질적 연구나 현장 인터뷰 분석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사상의 실제적 적용과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둘째, SDGs-ESG와 같은 현대 글로벌 담론과의 체계적 연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장일순 사상이 지닌 지속가능성 관련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SDGs나 ESG와 같은 현대 글로벌 담론과 심층적으로 연결하는 분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장일순 사상이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개념 정의에서 중복성 및 모호성이 존재한다.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인 생명사상, 전일성, 영성 등은 연구자마다 강조점과 해석이 달라 개념 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메타 분석적 비판과 재정립 논의가 부족하여, 사상 전체의 명료한 이해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 5) 선행 연구 평가와 본 연구의 위치

기존 장일순 사상 연구사 검토를 통해, 장일순 사상 연구는 '사상 해명 중심 → 비교 사상 분석 → 사회운동 적용'으로 심화되고, 최근에는 '학제 간 확장' 및 글로벌 담론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글로벌 지속가능성 담론과의 연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SDGs·ESG 맥락에서 장일순 사상을 해석하고 실천 모델로 제시한 시도는 거의 전무한 학문적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장일순 사상을 SDGs·ESG의 철학적·실천적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지닌 방법론적 한계(실증적 자료 활용 부족, SDGs·ESG 연계 부족, 개념 정의의 모호성)를 극복하기 위해, 장일순 사상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모델과 '생명수양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제안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현대 지속가능성 담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는 장일순 사상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SDGs·ESG 실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III. 장일순 사상의 핵심 이해: 생태 및 공생 세계관의 해명

본 장은 장일순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사유가 현대적 생태 및 공생 세계관으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의 사상이 동학, 노장, 불교 등 한국 및 동양의 전통 사상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회통(會通)하며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밝힘으로써, 장일순 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보편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1.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 분류 및 해설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심오한 통찰과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다. 각 개념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장일순의 통합적 세계관을 구성한다. 개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략한 표로 정리한다.

<표 2>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 분류

핵심 개념	사상적 의미와 내용	전통 사상과의 회통 및 특징	현대적 함의
생명사상 및 전일적 세계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총체적 생명을 지향하며 부분 속에 전체의 이치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 '좁쌀 사상'으로 대표된다.	불교 화엄사상의 상호 연기(緣起)와 동학 이천식천의 확장,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인식 전환.	물질주의와 분열적 사고를 넘어선 통합적 생태주의의 기반 제공. 근본적인 의식 전환의 필요성 제기.

모심(侍) 및 살림	생명을 포함한 만물에 대한 공경과 보살핌의 태도(모심)이며 이를 통해 생명을 온전히 길러내고 살려내는 행위(살림)이다.	동학 2대 교조 해월 최시형의 경물(敬物) 정신을 실천 윤리로 구현. '밑으로 기어 만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 강조.	자발적 자기 제한과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 강조. 공동체적 상생을 지향하는 한국적 생활 운동 모델 제공.
공생(共生)	인간과 자연, 생물과 비생물 등 모든 우주적 존재가 서로의 생존 근거임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장일순 사상의 전일성이 실현되는 방식. 경쟁과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협동과 관계 회복의 원리.	사회적 연대와 화합의 가치 증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 제시.
무위(無爲) 및 자기비움/자기해방	사심이나 작위적인 욕망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행동하며 (무위) 자아의 집착을 버리고(자기비움) 만물과 하나 되는 주체적인 변화(자기해방)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장(老莊)의 무위 자연 철학을 현대 문명 비판에 적용. 영성적 자각을 통한 의식의 근본적 전환 강조.	과잉 소비와 무한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대안. 내적 성숙과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 제기.
영성(靈性) 및 영성적 인간	근대 문명에 의해 간과된 인간 본연의 우주적 생명력에 대한 자각(영성)이며 이를 통해 만물과 연결된 '생태적 인간'으로 거듭난다.	불교의 확장된 자아 개념과 통하며,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실천적 생명력을 강조.	단절된 삶을 치유하고 전일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적 동력 제공. 윤리적 리더십의 기반으로서 영성 강조.
풀뿌리 민중 및 개문류하(開門流下)	사회 변화의 주체를 제도권 밖의 '평범한 사람들'(풀뿌리 민중)에서 찾고 이들과 '바닥에서 어울리며'(개문류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실천 방식이다.	동학의 풀뿌리 민중 운동 전통 계승. 엘리트 중심이 아닌 민중 참여형 사회 변혁 모델 제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법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와 참여를 유도.
비폭력 평화사상	단순한 폭력의 부재를 넘어선 갈등을 인정하고 상대를 포	공생 정신의 윤리적 최고 단계. 적극적인 평화를 통한 사회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근원

	용하며 함께 변화해 나가는 근원적인 공존과 화해를 지향하는 생명 이념이다.	적 치유와 통합 모색.	적인 화해와 공존의 원리 제공.
--	---	--------------	-------------------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해석은 <표 2>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각 개념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장일순이 추구했던 근원적인 생명 공동체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천적 지침이 된다.

### 1) 생명사상 및 전일적 세계관

장일순 사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생명사상이다. 이 사상은 서구 근대 산업 문명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에 목적을 두고 있는 총체적인 사유(김재익, 2021: 39)이다. 김재익(2020: 37)은 장일순의 생태철학이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인간 중심의 산업화와 서구 중심의 근대화 문제"가 야기한 "생명의 경시와 환경 파괴"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장일순은 "이 물질과 이 자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방법을 도출할 적에 전체가 건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장일순, 1997: 40)라고 질문하며 근대 문명이 잃어버린 '영(靈)'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 진화론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시대에 "생명계가 전일적이고 유기체적인 상자(相資), 상보(相補), 상생(相生)의 세계임"(김소남, 2017: 27)을 역설함으로써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김재익(2024: 275)은 장일순의 생명사상을 불교적 생태보살 개념과 연결하여 그의 '참사람'이 생명의 전일성에 기반하여 인간과 자연의 분리 회복을 지향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명사상은 전일적(全一的)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장일순에게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풀 한 포기라도 우주 전체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김재익, 2021: 47). 그의 독특한 관점은 심지어 "돌멩이와 같은 무기물에게도 생명을 부여"할 정도로 만물에 내재하는 생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김재익, 2021: 47). 서광열(2022a: 111)은 "생명 문제와 전일성"을 장일순 생명사상의 핵심 특성으로 제시하며, 존재의 본질을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부분인' 관계로 해석한다. 그는 장일순이 노자를 해석하며 "전일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고요하여 아무 의도나 욕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천하가 스스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장일순, 1998: 362)라고 말했음을 인용한다. 이렇듯 '하나'라는 인식은 한국 철학의 기본 정신인 '하나의 큰 마음 한마음 일심(一心)'(한자경, 2008: 7)과도 궤를 같이 한다(김재익, 2020: 46). 허찬란(2019: 465)은 장일순의 생명사상을 설명하며, '우주의 에너지'와 '인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호 진화'(공진화)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정애(2024: 7)는 장일순의 생명사상이 "하늘과 땅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어울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어울림관'임을 제시하며 만물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일적 세계관은 단순히 물질적 연계를 넘어선다. 전호근(2016: 99)은 장일순의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사상(이창언, 2015: 20)이 의상 대사의 화엄철학에 보이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一即多多即一)"라는 사유의 현대적 전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舍十方)'(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과 같은 화엄철학적 통찰과 연결된다(전호근, 2016: 99). 장일순은 "나락 한 알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으며 "날파리 하나도 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김익록, 2010: 121; 전호근, 2016: 99)다고 강조한다. 김소남(2017: 21)은 장일순의 좁쌀 사상이 유불선 삼교뿐 아니라 기독교, 간디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깊이 통찰하여 하나로 모아 생명사상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만물을 다껴안고 살리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이치와 같다고 해석한다. 황종원(2023: 275)은 노자의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해석하며 만물이 도에 의해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삶이 무위의 본질임을 밝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땅을 본받아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인법지(人法地)'의 이치는 만물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인법자연(人法自然)'으로 귀결된다(황종원, 2023: 55-56). 조성환(2019: 83)은 장일순이 최시형의 '경물사상'을 통해 인간을 넘어 '사물'까지 공경하는 '생명의 전일성'을 강조하며 '전생(全生)운동'으로 나아갔음을 설명한다.

## 2) 모심(侍) 및 살림

장일순 사상의 핵심 실천 윤리는 모심과 살림으로 대표된다. '모심'은 단순히 존경의 의미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경과 보살핌의 태도를 의미하며, '살림'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온전히 살려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김재익(2021: 52)은 장일순이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모든 생명에 포태되어 있는 우주적 생명성"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각성하고 함양하는 것이 곧 '모심'이라고 설명한다. 장일순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장일순, 2009: 117)는 사유를 바탕으로, 풀 하나, 돌 하나, 벌레 하나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모셔야 함을 강조한다(김재익, 2021: 54). 김용휘(2017: 179)는 최시형의 '경물(敬物)' 정신을 통해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최시형은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라는 '물물천·사사천(物物天·事事天)'을 강조하며, "모든 만물이 하늘"이므로 음식을 먹는 행위조차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것"이라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원리를 제시한다(김용휘, 2017: 176). 물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에 내재한 고유성과 상호 관계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경물이라는 것이다(김용휘, 2017: 179). 조성환(2019: 75)은 장일순이 최시형의 '경물사상'을 계승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사물까지도 공경하고 살리는' 생명운동의 영역을 확대했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장일순의 '모심'과 '살림' 사상은 유아교육의 '돌봄' 개념과 연결되어 교육적 실천 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이은주 외, 2005: 183; 박순금, 2003: 139).

살림은 이러한 모심의 구체적인 구현이자 생명의 본성 그대로 온전히 기르는 행위이다. 김기섭(2021: 106)은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에서 그의 생명사상이 '모심과 섬김'을 통해 '한살림 운동'으로 구체화된 과정을 분석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는 실천적 행위로서의 살림을 강조한다. 장일순에게 한살림은 단순히 생협 운동을 넘어 "죽음 아닌 살림의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태·생명 운동"을 가리킨다(김재익, 2021: 44). 허찬란(2019: 465)은 한살림 운동의 주요 원칙들이 생태학적 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은 자라남', '생명은 유기적인 전체' 등 7가지 생명의 특징을 통해 '총체적 생명 세계관'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김용휘(2017: 180)는 최시형의 '양천주(養天主)' 사상, 즉 하늘을 키우는 가르침이 "인간이

자기와 이웃과 자연 안에 내재해 있는 우주 생명을 키움으로써 '자아'와 '공동체'와 '생태계'의 공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말로 '살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는 최시형이 "가장 천대받던 어린이를 하늘님으로 모시라는 가르침"을 통해 태아 보육까지 '양천'의 구체적 모습으로 제시했음을 언급한다(김용휘, 2017: 180). 서광열(2022b: 164) 역시 장일순 사상에 내재된 윤리적 함의와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신비주의적 요소가 '한살림'과 같은 "일상적 실천"을 통해 윤리적 의의를 획득함을 강조한다. 이는 '생명 살림의 이치'가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발현되면 "사회적 치유의 살림 운동"이 된다고 보았다(김용휘, 2017: 181)

### 3) 공생(共生)

공생은 장일순 생명사상의 궁극적 목적이자 구체적인 지향점이다. 그는 "'공생(共生)'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共生是道)"이라고 천명한다(김재익, 2021: 42). 이 공생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공존을 넘어선 확장된 개념이다.

김재익(2021: 49)은 공생의 차원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휴머니즘을 넘어선 인간과 자연, 생물과 비생물 등 모든 온 우주의 것을 포괄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구현"으로 나아간다고 정의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상대의 존재가 곧 자기 생존의 근거임"을 인정하고 "공존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전호근, 2016: 97). 김기섭(2021: 39)은 장일순의 "삶의 편력은 공생의 삶으로 나아갔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문제를 천착"하였다고 강조한다. 허찬란(2019: 470)은 장일순의 생명 중심 사상이 "모든 생명 형태 간의 공생"과 "생명의 순환"을 포함하는 '친밀성'을 강조함을 제시한다.

장일순은 당시 사회를 "경쟁을 강조하는 이기주의적인 사회 풍조 속에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공해"(김재익, 2021: 50)를 낳았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생을 제시한다. 그는 '일등'과 '이등 이하'를 "서로 보완해 주는 또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며(장일순·이현주, 2003: 360), 이익에 기반한 경쟁은 결국 생명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간파한다(하승우, 2008: 41). 이는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홀대할 수 있느냐는 말"(전호근, 2016: 97)로 이어지는 만물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의미한다.

구태환(2022: 60)은 장일순의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공생의 중요한 실천으로 해석하며, 타인을 '적대자'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다. 그는 "모시고 간다는 건 병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풀어주는 거지"(장일순·이현주, 2003: 241)라는 장일순의 인용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한 "화해하고 공존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장일순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한 한 포기의 풀과 같이 존경해야 한다"(장일순, 1997: 118)고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수용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창언(2015: 34)은 장일순이 생명운동, 민중운동, 계급운동 등 다양한 부문 운동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밝히며, 이것이 "공생을 통한 무위의 변화를 전제한다"고 해석한다. 이정애(2024: 7)는 장일순의 '어울림관'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어울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강조한다.

### 4) 무위(無爲) 및 자기비움/자기해방

무위(無爲)는 장일순 사상에서 '욕심 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독특한 실천 방식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수행이 바로 자기비움과 자기해방이다.

장일순의 무위는 "아무것도 함이 없는 무위"가 아니라,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비

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개념"(김소남, 2017: 25)이다. 김재익(2020: 56)은 그의 무위가 "공생·공존하는 바탕에서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뜻하며, "자신의 근본인 도와 생명으로 돌아가려는 치열한 노력"인 '위무위(爲無爲)'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이 무위"라는 그의 인용을 통해 무위가 사심(私心) 없는 절대적 순리에의 동참임을 강조한다(장일순, 2017: 42). 황종원(2023: 275)은 노자의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해석하며 만물이 도에 의해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삶이 무위의 본질임을 밝힌다.

이나미(2019: 58)는 장일순이 '생이불유 장이부재(生而不有 長而不幸)'라 하여 'نال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키웠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는 노자의 주장을 따라 소유에 비판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장일순은 "자연은 소유하려는 게 없어요"(장일순, 2016: 142)라고 말하며, 이러한 소유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그의 '무위' 사상과 직결된다.

자기비움은 장일순의 핵심 수행 요체이다. 이는 '진인무사심(真人無私心)', '하심공경(下心恭敬)', '시(侍)'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김재익, 2021: 55). 장일순은 "자기 몸이 '자기'는 아니야.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닌 동시에 전체가 '나'란 말이야"(장일순, 2009: 32)라고 역설한다. 이는 작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생명이 하나"임을 아는 무아(無我)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자기비움의 본질이다(김재익, 2021: 55-56). 이는 '무심'이라는 개념으로도 나타나는데,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아무 생각과 의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차별심'을 없애 '평등심'을 얻는 것이다(장일순·김종철, 1998: 60). 서광열(2022b: 164)은 자기비움이 "소외되어 있던 자기의 본성인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는 '생명에 대한 우주적인 각성(覺醒)'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자기해방은 자기비움과 연결된 실천적 지향이다. 이는 "천하 만물이 일체와 스스로 동일해"지고 "희로애락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이다(김재익, 2021: 57; 장일순, 2017: 166). 김재익(2021)은 예수와 석가를 "우주와 자기가 하나로 되는 무한한 무아 형식에서 사신 분들"로 예시하며, 이는 '사(私)가 없는 존재', 즉 '지인(至人)은 무기(無己)'라는 장자의 가르침과 통한다고 설명한다. '자기비움'이 '수동적' 측면이라면, '자기해방'은 사심 없이 자신으로부터 촉발된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수동적 적극성'을 의미한다(김재익, 2021). 하승우(2008: 41)는 함석헌과 장일순이 '스스로 함'을 통해 "인위적인 지배와 간섭을 비판한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과 통하였다"고 설명하며,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으로부터의 주체적 발현을 강조한다.

## 5) 영성(靈性) 및 영성적 인간

영성은 장일순 사상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그가 강조하는 '새로운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근대 문명에 의해 간과되었던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김재익(2021: 52)은 영성을 "그동안 소외되어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이자,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우주 생명"이라고 해석한다. 장일순은 "생명이란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있"고 유교가 "영성이 빠졌기 때문"(장일순, 2009: 209)에 중국에서 참패를 보았다고 비판한다(김재익, 2021). 이는 '영성'이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 삶의 근원적인 활력과 만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시사한다. 그의 사상적 지향은 잃어버린 '영(靈)'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회개와 실천에 있다(김재익, 2020). 조성환(2019: 71)은 장일순의 '전생(全生)운동'을 '생명의 전일성에 입각한' '새로운 근대성'으로 보며, 이 전일성이 바로 영성적 측면에서 발현됨을 암시한다.

이러한 영성을 회복한 존재가 바로 영성적 인간이며, 이는 장일순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이자 생태적 인간이다(김재익, 2021). 영성적 인간은 '시천주'인 모심을 통해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사명을 갖는다. 안지영(2024: 29)은 장일순 사상이 "자연을 영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인디언 등 토착민들의 사유와 가이아 이론 등의 수용을 통해 영성 개념을 정립"하는 영성적 생태주의 계보에 있음을 밝힌다. 이는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가 아닌 '자연의 청지기'(안지영, 2024: 51)로 인식하고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안지영, 2024: 52)을 인정하는 폭넓은 관점으로 이어진다. 허찬란(2019: 471)은 동학의 '내유신령 외유기화'(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 개념을 장일순의 영성적 인간관과 연결하며, 인간 내면의 영적인 자각이 외부 세계에 발현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허찬란(2019: 468)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 받으소서』와 스리 오로빈도, 테이야르 드 샤르댕의 사상을 인용하며 장일순의 영성 사상이 서구의 종교적·과학적 영성 사상과도 궤를 같이함을 제시한다. 박준건(2003: 2)은 김지하의 생명 사상 연구를 통해 '내유신령' 개념이 우주적 영성을 품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는 창조적 진화의 중심이 된다고 본다.

영성은 단순히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 장일순은 "인간의 영성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김지하, 1993: 8-9)이라고 보았음을 안지영(2024)은 인용한다. 즉 인간의 내면적 변화가 환경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서광열(2022b: 164)은 장일순의 영성 사상이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한살림'과 같은 "일상적 실천"을 통해 윤리적 의의를 획득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영성이 '인식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됨을 설명한다. 황종원(2022)은 장일순의 생태 사상이 지닌 '종교 회통적' 성격이 다양한 사상을 '영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묶어내는 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며, 장일순이 영성을 동서양 사상을 회통하는 주요 매개로 사용했음을 제시한다. 이나미(2019: 62)는 리영희, 박현채와 달리 문익환과 장일순을 종교적·영성적 인물로 분류하며 그들이 '자연의 회복'이라는 장기적 미래에 관심을 가졌음을 밝힌다. 이러한 '감수성의 대전환'(안지영, 2024: 56)은 SDGs Goal 4(양질의 교육) 및 ESG의 인적 자원(S) 영역에서 '생태적 의식 전환'을 통한 주체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민선(2023: 131)은 장일순의 교육 사상을 평생교육적 함의를 통해 그의 생명사상이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명한다. 김보경(2023: 10)은 『녹색평론』의 생태주의가 김지하, 장일순의 생명 사상과 접점을 가지며 영성적 생태주의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한다.

## 6) 풀뿌리 민중 및 개문류하(開門流下)

풀뿌리 민중은 장일순 사상에서 '사회 변화의 주체'이자 '희망의 씨앗'으로 정의되며,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개문류하(開門流下)의 정신이 강조된다(이창언, 2015: 35). 하승우(2008: 40)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장일순 사상을 분석하며, 풀뿌리 운동의 주체를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풀뿌리 민중'은 "더 좋은 미래를 박탈당했음을 통감하는 자"로서, 인류세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닌 인류세적 주체로 해석될 수 있다(안지영, 2024: 49). 장일순은 "선생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 '개문류하'라고 녀 자를 한문을 써주시면서 이어서 '바닥 놈들과 어울려야'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래야 개인이고 집단이고 오류가 없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이현주, 2003)라는 그의 일화를 통해, 진정한 변화가 민중의 삶에서 시작됨을 역설한다. 이나미(2019: 58)는 장일순이 소유에 비판적이고 '알뜰함'을 강조하며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강조한 점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로 해석한다.

개문류하는 '문을 열고 아래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바닥 놈들과 어울려야 오류가 없다'(이창언, 2015: 35; 김소남, 2017: 24)는 장일순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의 방식이다. 김소남(2017: 24)은 장일순이 "자신을 낮추어서 꽃 하나, 벌레 하나, 풀 하나만큼 낮아짐으로써 다툼이 사라지고 일체가 화합하고 공존을 위해 협동하는 삶이 된다"고 보았다고 서술하며, '기어라'는 평화사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연대를 강조한다. 장일순은 "남을 도와서 남이 앞서게 하라"(장일순, 1997: 97)며 '자기에 대한 철저한 낮춤'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역설한다. 이나미(2019: 59)는 장일순이 합동전사회에서 자신의 작품에도 '글씨: 장일순, 석각: 김진국, 받침대: 김진성'이라고 명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참여자들의 노고까지 기록한 일화를 통해 그의 개문류하 정신을 설명한다.

구태환(2022: 57)은 장일순의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이러한 풀뿌리 정신과 연결된다고 본다. 타자를 '적대자'로 규정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운동 방식을 넘어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라"(최성현, 2004: 86-87)는 장일순의 가르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방식을 제시한다. 신민선(2023: 131)은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지닌 평생교육적 함의를 분석하며,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드는" 풀뿌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식인이 "민중을 계몽하고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돕는 역할 조정자의 역할"(하승우, 2008: 6. 결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허찬란(2019: 471)은 장일순의 한살림 운동이 바이오리전(bioregion)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실천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풀뿌리 민중의 자발적 주체 형성과 깊이 연관됨을 시사한다. 이나미(2019: 59)는 장일순이 '국민'이 아닌 '주민'을 주권의 주체로 내세웠고 독재 정권에 종속된 국민을 넘어선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열고자 했음을 강조한다. 그의 협동조합 정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주아(2024: 52)는 197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론과 '민중-생태' 운동이 '시장의 밖'을 상상하는 운동으로 '시장의 심성'에 부딪히며 난관을 겪었음을 제시하여, 풀뿌리 운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 7) 비폭력 평화사상

장일순의 비폭력 평화사상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넘어선 근원적인 '공존'과 '화해'를 지향하는 그의 총체적인 생명 이념과 직결된다.

전호근(2016: 92)은 장일순의 평화사상을 원효의 '화쟁론'과 의상의 '화엄철학'이라는 한국 전통 불교의 지혜와 연결하여 분석한다. 그는 "독재 정권 타도를 민주화 운동의 제1 가치로 내세우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적대 세력을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화쟁의 현대적 실천"이라 설명한다. 이는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와 '무조건적인 투쟁'을 넘어, 상대를 포용하고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승우(2008: 40)는 함석헌과 장일순이 추구한 평화가 "인위적인 것일수록 반평화적인 것으로 보았고 자연주의에 귀착"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지 않는 것'과 같은 노장적 통찰을 포함한다(하승우, 2008: 41). 이나미(2019: 62)는 리영희, 박현채가 현실에 집중한 반면, 문익환과 장일순은 평화를 강조하며 자연의 회복이라는 장기적 미래를 꿈꿨다는 공통점을 지적한다.

김소남(2017: 24)은 장일순의 평화사상이 "주먹을 쥐고 상대를 때려 눕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써 비협력과 비폭력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한다. 장일순

은 "자신을 낮추어서 꽃 하나, 벌레 하나, 풀 하나만큼 낮아짐으로써 다툼이 사라지고 일체가 화합하고 공존을 위해 협동하는 삶이 된다"고 보았다(김소남, 2017: 24). 이는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사상과도 궤를 같이하며,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과 통하"는 지점이다(김소남, 2017: 17). 장일순의 통일관은 "내부의 대립과 갈등부터 해소해야" 하며, 통일 문제를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우주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의 일환"으로 확장한다(전호근, 2016: 101, 104).

장일순의 비폭력 평화사상은 단순히 정치적 투쟁 방식을 넘어선 생활 양식 전반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는 '자연이 인간과 한 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멸의 위기에 놓인' 현대 사회에 대해 "비폭력과 비협력의 모심·섬김 사상으로 탈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김소남, 2017: 22). 백효민(2021: 279)은 장일순이 동학의 '관심'을 '저항'과 '영성'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하면서 "부당한 권위와 폭압적인 체제에 저항하면서도 운동의 대상을 비인격화하는 사회 운동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을 시도"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외부의 폭력에 대한 수동적인 저항을 넘어,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허찬란(2019: 469)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언급하며 종교적 차원에서의 환경 윤리와 생명 중심적 사고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제시하며, 장일순 사상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나미(2019: 56)는 장일순이 공생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비폭력 비협력 해야죠"라고 강조했음을 인용하며, 그의 비폭력 평화사상이 시대의 폭력에 대한 실천적 응답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폭력 평화사상은 SDGs Goal 16(평화, 정의) 및 ESG의 사회(S)와 거버넌스(G)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 인권 존중,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 IV. 장일순 사상의 생태-사회적 함의와 SDGs/ESG의 심층 연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장일순 사상과 SDGs 그리고 ESG 담론은 '근대 문명이 초래한 총체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공명은 단순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세계관의 전환과 삶의 방식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들이 SDGs/ESG가 직면한 실천적, 철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 연계 모델을 논증한다.

##### 1. 근대 문명 비판: 장일순 사상과 SDGs/ESG의 문제의식 공명

장일순 사상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를 단순히 현상적 문제로 보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을 '영성(靈性)의 부재'와 '생명 경시'에서 찾는다(김재익, 2021: 52). 그의 이러한 관점은 SDGs와 ESG가 다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성찰하게 한다. 장일순의 위기 진단은 SDGs/ESG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천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설득력을 지닌다.

<표 3> 장일순 사상과 SDGs/ESG의 공명하는 문제의식 요약

문제 영역	장일순 사상의 문제 진단 (주요 개념)	SDGs/ESG의 문제 의식 (핵심 목표/영역)
환경	'죽임의 문명', '토건 국가', '생명 경시',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무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SDGs 13, 14, 15; ESG E)
사회	'경쟁'과 '이기주의', '공동체 상실', '인간 소외'	빈곤, 불평등, 건강, 공정성 (SDGs 1, 3, 10, 11; ESG S)
거버넌스	'권력의 횡포', '비민주적 정책',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	평화, 정의, 효과적 제도, 투명성 (SDGs 16; ESG G)

장일순은 인간 중심의 산업화와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초래한 생명 경시와 환경 파괴(김재익, 2021: 39)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문명을 "죽임의 문명"으로 규정한다. 그는 환경 파괴를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은 유기적 전체라는 인식을 상실하고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삼으면서 비롯된 근원적 파괴로 진단한다(허찬란, 2019: 465). 이는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며(안지영, 2024: 52), SDGs 환경 관련 목표가 단순한 기술적 해법을 넘어선 존재론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장일순은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인간 소외", "공동체 상실"이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하승우, 2008: 42)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이기주의적인 사회 풍조 속에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공해'(김재익, 2021: 50)를 진단하며, 이는 SDGs 사회 영역이 다루는 핵심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는 "권력이 노골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하승우, 2008)을 비판하며, 이는 소유와 지배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나미, 2019: 58). 이러한 문제의식은 SDGs Goal 16(평화 정의) 및 ESG의 지배구조 영역이 추구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 2. 장일순 사상의 통합적 연계 모델: '생명수양경영'의 실천적 논리 전개

장일순 사상의 주요 개념들은 SDGs의 목표 및 ESG의 영역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기반, 강력한 내면적 동기, 그리고 혁신적인 실천 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SDGs와 ESG가 추구하는 가치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체화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표 4> 장일순 사상 핵심 개념과 SDGs/ESG 목표/영역 매핑

장일순 사상 핵심 개념	SDGs 목표 및 ESG 영역	구체적 연계 방안 및 함의
생명사상 및 전일적 세계관	E, S, G (SDGs Goal 13, 14, 15, 17)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인지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근본 윤리 제공. SDGs의 통합적 접근과 ESG의 총체적 관점 강화에 기여한다. '비인간 행위자'(안지영, 2024: 52)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허찬란(2019: 465)이 제시한 '생명은 유

		기적 전체' 등 7가지 특징과 조성환(2019: 71)의 '전생 운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한다.
모심 및 이천 식천	E, S (SDGs Goal 2, 12)	만물을 공경하는 '모심'(김용휘, 2017: 179)과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이천식천' 사상(이창언, 2015: 18)을 통해 자원 낭비 없는 순환 경제 및 윤리적 생산·소비를 지향하는 실천 모델을 제시한다. 동학의 '시(侍)' 사상이 우주의 대화 방식을 친밀성으로 구현한다(허찬란, 2019: 466).
공생 및 살림	S, E, G (SDGs Goal 10, 11)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적 이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림과 해방 운동'(김용휘, 2017: 182)을 통해 SDGs의 사회적 가치 및 ESG의 사회적 책임(S)을 구현한다. '혼합 공동체'(허찬란, 2019: 472)로서의 '생명 공동체'를 추구한다.
무위 및 자기 비움/자기해방	G (SDGs Goal 16)	사심과 작위적 욕망 없는 '무위'(김재익, 2020: 56)와 '자기비움'(김재익, 2021: 55)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제공한다. ESG 거버넌스(G)의 질적 향상 및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를 부여한다. 노자의 '생이불유 장이부재' 사상(이나미, 2019: 58)과도 연결된다.
영성 및 영성적 인간	S, G (SDGs Goal 4)	잃어버린 인간 본성의 회복(김재익, 2021: 52)을 통한 생태적 감수성 함양은 SDGs의 양질의 교육(Goal 4)에서 추구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 접근을 제공한다. 동학의 '내유신령 외유기화'(허찬란, 2019: 471) 개념과도 연결되며, ESG 인적 자원(S) 개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다.
풀뿌리 민중 및 개문류하	S, G (SDGs Goal 11, 16)	권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삼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하승우, 2008: 40)이다. 바닥 농들과 어울리는 '개문류하' 정신(이창언, 2015: 35)은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 확대 및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의 실천적 지침이 된다.
비폭력 평화사상	S, G (SDGs Goal 16)	적대 세력을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전호근, 2016: 92) 화쟁적 실천을 통해 갈등을 넘어선 화합과 공존을 지향한다.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인권 증진,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며, ESG의 사회(S)와 거버넌스(G) 영역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기반이 된다.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개념과 SDGs/ESG 목표/영역 간의 구체적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생명사상과 영성: 존재론적 각성과 실천의 동력

장일순 사상의 출발점은 풀 한 포기, 닭의 울음소리, 심지어 똥오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전체 우주를 지탱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심오한 생명사상과 전일적 세계관에 있다. 이 인식은 ESG의 E, S, G가 분리 불가능한 전체임을 명확히 하며, SDGs의 통합적

접근에 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영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장일순이 말하는 영성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인 각성에서 비롯되는 깊은 공감 능력이다(서광열, 2022b: 164). 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넘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제공하며, 한살림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일상적 실천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영성 회복은 SDGs Goal 4(양질의 교육)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목표인 의식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철학적 기반이 된다.

## 2) 모심과 살림: 공생의 실천 원리

전일적 세계관과 영성의 각성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윤리적 원리가 바로 모심과 살림이다. 모심은 만물에 깃든 생명을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하며(김용휘, 2017: 179), 이는 장일순의 이천식천(以天食天) 사상(이창언, 2015: 18)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늘의 것을 하늘로 먹여 살린다는 이 사상은 밥 한 그릇이 만사지라는 해월의 밥 사상을 계승하여(김소남, 2017: 23),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신성하게 여기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 이는 SDGs Goal 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와 ESG 환경(E) 영역이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 및 순환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살림은 모심의 태도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자기희생을 통해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김용휘, 2017: 177) 행위로, ESG의 사회적 책임(S)과 SDGs Goal 10(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 공생의 구체적 방법론이 된다.

## 3) 무위와 풀뿌리 민중: 윤리적 거버넌스와 변화의 주체

장일순의 무위(無爲)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비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개념(김소남, 2017: 25)이다. 이를 위한 핵심 수행은 자기비움이다. 이 사상은 남을 도와서 남이 앞서서 하라(장일순, 1997: 97)는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의 정신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리더십 모델은 ESG 거버넌스(G)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넘어, 리더의 겸양과 봉사 정신을 통해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혁신을 제시한다. 나아가, 장일순은 권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하승우, 2008: 40)인 풀뿌리 민중을 변화의 주체로 규정한다. 바닥 놈들과 어울려야 오류가 없다는 '개문류하(開門流下)' 정신(이현주, 2003)은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SDGs Goal 16)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적 지침이 된다. 이 모든 개념들은 분절된 개별 지표를 넘어,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통해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명수양경영의 구체적 실천 모델로 통합된다.

## 4) 비폭력과 평화: 갈등을 넘어선 화쟁(和諍)의 지혜

장일순 사상의 궁극적 지향점은 비폭력 평화사상에 있다. 그는 적대 세력을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전호근, 2016: 92) 화쟁(和諍)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독특하고 근원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SDGs Goal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대한 서구적 접근인 '제도와 법치'를 보완하여,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적 화해를 통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장일순의 사상은 SDGs/ESG의 각 목표와 영역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그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삶의 혁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 3. 장일순 사상을 통한 SDGs/ESG 실천의 혁신 모델: '생명수양경영'

장일순 사상은 SDGs/ESG 담론이 공유하는 근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심화하며, 단순히 정책적 목표 달성을 넘어 세계관의 전환을 통한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본 장에서는 장일순 사상의 핵심이 응축된 '생명수양경영'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SDGs/ESG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 모델을 논증한다.

#### 1) 장일순 사상을 통한 SDGs/ESG 실천의 혁신 모델 제안

장일순 사상은 생태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SDGs/ESG의 기술적·경제적 접근을 넘어선 '정신 혁명'으로서의 문명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철학적 심화와 내면적 동력을 제공한다.

##### (1) 철학적 심화 및 내면적 동력 제공

장일순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영성(靈性)의 부재'와 '생명 경시'에서 찾고, '영성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첫째, 영성 회복을 통한 실천 동력이다. 장일순은 SDGs/ESG가 단순히 지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생명의 가치'와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그 실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역설한다. "도덕적 의무보다 자발적 참여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SDGs/ESG 실천의 내면적 동기를 강화한다.

둘째, 삶-사상의 일치이다. 그의 "삶-사상 일치형" 면모는 진정한 변화가 이론에 앞선 개인의 삶의 변화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며, 이는 SDGs/ESG 실천을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를 시사한다. 그의 '무사(無私)적 삶'과 '무위(無爲)'는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은 실천적 도덕성의 근간이다.

##### (2) 새로운 윤리적 실천 모델 제시

장일순 사상은 SDGs/ESG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윤리적 모델을 제시하며,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 장일순의 사상은 단순한 지표 달성을 넘어 생태적 실천 강화, 사회적 포용과 정의 실현, 그리고 윤리적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

<표 5> 장일순 사상을 통한 새로운 윤리적 실천 모델

실천 영역	장일순 사상의 핵심 원리 및 개념	SDGs/ESG 연계 및 함의
생태적 실천 강화	모심, 이천식천, 경물, 바이오리전/바이오크라시	자연을 생명 자체로 섬기는 윤리적 책임 ESG-E. '이천식천'을 통한 자원 낭비 없는 순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생산·소비(SDG 12).
사회적 포용과 정의	양천, 살림, 공생, 타자와의 관계	'양천'을 통한 '살림'의 사회

의 실현	맺기	적 약자에 대한 해방 운동으로 확장. 불평등 감소 (SDG 10, 5) 및 포용적 공동체 의식 (ESG-S) 구현.
윤리적 거버넌스 혁신	무위, 자기비움, 불감위천하선, 풀뿌리 민주주의, 협동조합	'무위'와 '자기비움'을 통한 겸손하고 사심 없는 리더십 (ESG-G). '개문류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SDG 16).

### (3) 한국적 지혜의 글로벌화: '새로운 인간관'을 중심으로

장일순 사상은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를 넘어선 비근대적 생태 문명을 모색함으로써(안지영, 2024: 40), SDGs/ESG가 추구하는 '문명 대전환'에 한국적 통찰을 더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서광열, 2022a: 111) SDGs의 현지화 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허찬란(2019: 468)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언급하며 장일순 사상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핵심은 장일순이 제시하는 '새로운 인간관'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영성적 인간' 또는 '생태적 인간'은(김재익, 2021)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만물과의 상호 연결성을 자각하는 인간으로서(안지영, 2024), SDGs 및 ESG가 지향하는 총체적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주체적 전환을 의미한다. 조성환(2019: 83)은 장일순이 동학의 '인내천'을 넘어 '물내천'의 사상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화를 통한 새로운 생명 의식을 의미한다.

## 2) '생명수양경영(生命修養經營)': 새로운 개념어의 제안

장일순 사상의 핵심 가치들을 통합하고 SDGs/ESG 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명수양경영(生命修養經營: Spiritual Sustenance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제안한다. 이는 장일순의 '생명' 중심 세계관,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통해 '생명'을 이해하고 공경하며, 이를 사회적 '경영'으로서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려는 철학이자 실천 체계이다. '생명수양경영'은 SDGs/ESG의 'Why'(존재론적 당위)와 'How'(실천적 방법)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적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 1) 생명수양경영의 정의 및 구성 요소

'생명수양경영'은 장일순의 '생명' 중심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통해 '생명'을 이해하고 공경하며, 이를 사회적 '경영' 즉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철학이자 실천 체계이다.

<표 6> 생명수양경영의 정의 및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정의	장일순 사상과의 연계	SDGs/ESG 연계 및 함의
생명(生命)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총체적 생명성 및 상호연결성 인식	전일적 세계관, 좁쌀사상, 경물, 공생	SDGs/ESG의 대상 범위를 '생명계 전체'로 확장(E, S)
수양(修養)	내면의 영적 각성, 자기비움, 겸손, 태도 변화를 통한 삶의 정화	영성적 인간, 무위, 자기비움, 개문류하, 생활철학	SDGs/ESG의 실천 동력 내면화, 의식 전환 통한 근본 해결(S, G)
경영(經營)	생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활동 및 관리	살림, 한살림 운동, 협동조합, 불감위천하선	SDGs/ESG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윤리적 실천 모델(E, S, G)

(2) 생명수양경영과 ESG 경영 개념과의 비교

'생명수양경영'은 기존의 경영 개념, 특히 ESG 경영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표 7> 생명수양경영과 ESG 경영 비교

구분	ESG 경영 (기존)	생명수양경영 (제안)
주요 동기	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기업 이미지 개선, 투자 유치, 장기적 이윤 추구	생명 존중 윤리, 존재론적 각성, 내면적 성찰, 공동체적 행복 추구
핵심 가치	지표 달성, 성과 측정, 투명성, 보고	관계성, 조화, 자기비움, 영성, 모심, 살림
세계관 기반	인간 중심적, 이윤 추구적, 성과 지향적, 부분 분석적	생명 중심적, 전일적(全一的), 관계 지향적, 순환적
실천 범위 및 주체	기업 및 조직 중심, 하향식 접근 용이	개인의 삶, 지역 공동체, 풀뿌리 운동, 상향식 변화 추구
결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지속가능성 보고	삶의 방식 변화, 문화적 혁신, 영성적 성장, 공생적 사회 구현

'생명수양경영'은 ESG 경영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비해, '왜 우리는 지속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답을 제공한다. 이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황종원, 2022)과 'AI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SDGs의 목표가 계량화된 지표 달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의식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삶의 혁명'(이창언, 2015: 35)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조성환(2019: 83)은 동학 사상이 하늘과 인간의 상호협력인 '천인상여(天人相與)'를 통해 인간에게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이 단절된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근대적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임을 제시하는데, '생명수양경영'은 이러한 철학을 현대적 실천으로 구현하는 개념으로 기능한다.

### (3) 간극 분석: 장일순 사상과 SDGs/ESG의 현실적 괴리

장일순 사상과 SDGs, ESG 담론은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철학적 기반에서는 현실적인 간극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는 SDGs/ESG 실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며, 장일순 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먼저, 본질적 인식과 외연적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 장일순 사상은 만물 간의 전일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 전환, 그리고 내면의 '영성' 회복을 강조하며 생명 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는 '가이아 이론'의 수용과 같이 생명계를 유기적인 통합체로 본 반면(안지영, 2024: 29), SDGs는 빈곤 감소율, 탄소 배출량 감축과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 달성에, ESG는 기업의 외부적 성과 및 규제 준수에 치우친다. 이러한 계량화된 지표 중심의 접근은 비록 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할지라도, 인간 의식의 심층적인 변화나 생명에 대한 내면적 존중과 같은 본질적 차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 지닌다.

다음으로, 삶의 철학과 경영/정책 프레임워크 간의 차이가 명확하다. 장일순의 사상은 '살림'의 원리에서 드러나듯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철학이자 실천 체계이다. 그의 '좁쌀 사상'과 같은 생활적 지혜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총체적 변혁을 제안한다. 반면, ESG는 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며, SDGs는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 및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틀로 작용한다. 두 담론 모두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장일순의 사상처럼 삶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내재적 동력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수행과 제도적 강제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장일순 사상은 '자기비움'과 '모심'과 같은 개인의 자발적 수행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근본적인 실천 동력으로 본다(서광열, 2022b: 164). 그의 사상은 외부에 의한 강제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윤리적 행동을 강조한다. 그러나 SDGs는 유엔 회원국의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나 각국의 정책적 이행 계획 등 제도적 압력에 크게 의존하며, ESG 역시 소비자, 투자자, 정부 규제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부적 강제는 '삶의 혁명'(이창언, 2015: 35)이 아닌 '단순한 의무 이행'에 머무를 위험을 내포한다.

### 4) 간극 극복을 위한 '생명수양경영'의 역할과 상호 보완 과제

'생명수양경영'은 장일순 사상과 SDGs/ESG 담론 간의 현실적 간극을 줄이고, 장일순 사상의 가치를 SDGs/ESG 실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실천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고 그 확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철학적 심층성을 확보한다. '생명수양경영'은 SDGs/ESG 실천에 내면적 동기와 영성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지표 달성을 넘어선 진정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장일순은 "인간의 영성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김지하, 1993: 8-9)으로 보았다. 이러한 통찰과 '생명수양경영'은 SDGs/ESG 실천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 인간 의식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철학적 심화에 기여한다.

둘째, 실천적 구체화를 제시한다. 장일순 사상의 다양한 실천 개념, 즉 만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경물', 만물을 양육하는 '양천', 바닥으로 흘러들어가는 '개문류하', 겸손하게 뒤에서

들은 '불감위천하선' 등을 '생명수양경영'이라는 틀 속에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정부의 SDGs 정책, 시민사회의 참여 방식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모델과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생명수양경영'은 '삶-사상 일치형' 리더십(김소남, 2017: 20)을 강조하고, '평범한 사람들'(하승우, 2008: 40)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문화적 보편성을 확대한다. '생명수양경영'은 장일순 사상의 한국적 지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글로벌 담론에 통용되는 보편적 언어로 번역하고, 동서양 사상의 '회통적' 관점(황종원, 2022)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SDGs Goal 4, 11)을 존중하는 지속가능성 실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특히 아인슈타인과 같은 서구 사상가들과의 '하나의 세계 운동' 비전과도 연결되며(허찬란, 2019: 472), 한국적 사유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길을 연다.

## V. 결론

본 연구는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공생 사상을 연구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론과 심층적으로 연계하여 그 현대적 의의와 실천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일순 사상에 대한 엄선된 18편의 핵심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장일순 연구의 지형도를 명확히 하고 그의 사상이 제시하는 한국적 지혜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장일순 사상은 그의 생명사상 및 전일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모심', '살림', '공생', '무위', '영성' 등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적 근대 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공생 문명'으로의 전환을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 SDGs가 지향하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며 ESG가 추구하는 윤리적 책임과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모델이 된다. 장일순 사상이 제시하는 한국적 지혜는 SDGs와 ESG 실천에 필요한 내면적 동력을 강화하고 단순한 지표 달성을 넘어선 질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윤리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장일순 사상 연구의 지형을 정리하고 그의 사상을 현대 지속가능성 담론과 연계함으로써 한국적 인문학적 자산의 학문적 기여 가능성을 확장한다. 장일순 사상의 '영성', '수양', '개문류하'와 같은 개념들은 SDGs/ESG가 추구하는 의식의 전환과 풀뿌리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탈성장', '반개발' 담론은 현재의 무분별한 경제 성장을 비판하고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장일순 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어인 '생명수양경영(生命修養經營)'을 제안함으로써 SDGs/ESG 담론의 실천적 깊이를 더하고 독창성을 강화한다.

장일순 사상과 SDGs/ESG 담론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심층성에서 현실적인 간극을 지닌다. SDGs/ESG가 주로 외연적인 지표 달성, 리스크 관리,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장일순 사상은 근원적인 세계관의 전환, 내면의 영성 회복,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간극은 SDGs/ESG 실천이 '영혼 없는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판을 야기한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장일순 사상의 가치를 현대 지속가능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및 실천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생명수양경영'의 실증적 모델화 및 확산이다. '생명수양경영'은 장일순 사상의 내면적 동력을 바탕으로 ESG 실천을 구체화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E)과 사회적 책임(S), 윤리적 거버넌스(G) 전반에 걸쳐 '생명 존중'의 철학을 내재화하는 실천 모델로 발전될 수 있다. 향후 한살림 운동과 같은 장일순 사상 기반의 실제 사례를 심층 질적 분석하여 '생명수양경영'의 실천 요소와 성공 요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다양한 규모의 기업 및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장일순 사상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담론 간의 심층 대화 및 교차문화 연구이다. 장일순의 '어울림관'이나 '전일적 세계관' 등은 서구 심층생태학이나 가이아 이론, 동양철학 등 다양한 글로벌 사상과 접점을 가진다. 그의 사상을 글로벌 무대에서 보편적 지혜로 제시하기 위한 번역 및 비교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 이는 SDGs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가치와도 부합하며, 한국적 지혜를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일순의 비폭력 평화사상과 현대 국제 관계 및 갈등 해결 모델 간의 비교 연구는 SDGs Goal 16(평화 정의)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 형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다. 장일순이 강조한 '영성적 인간'으로의 전환은 SDGs Goal 4(양질의 교육)가 지향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의 교육사상(신민선, 2023)과 '개문류하' 정신(하승우, 2008)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변화를 이끄는 '참여형 ES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에 적용하는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SDGs를 '삶의 문화'로 내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장일순 사상은 비록 '신비주의적'이라는 평가나 '개인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일부 한계를 지니지만, 본 연구는 이를 '일상적 실천'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도출했다. 그의 사상은 SDGs/ESG가 직면한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한 이행'을 넘어선 '삶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적 지혜'를 제공하며 지속가능성 논의를 양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질적이고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길잡이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장일순. 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장일순. 1998.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다산글방.  
장일순. 2009.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장일순. 2017.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삼인.  
장일순·김종철. 1998. 「한살림운동과 공생의 논리」.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다산글방.  
무위당서화연구회. 2015. 『무위당 서화자료집 V』. (사)무위당사람들.  
장일순. 1997. 「풀 한포기도 공경으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이현주. 2003. 「선생님 9주기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무위당 9주기 추모 모임 자료집』.  
김지하. 1993. 『생명과 자치』. 한길사.

### 2차 자료 (본문에 인용된 엄선된 18편 논문)

- 김기섭. 2021.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 1(1): 103-125.  
김재익. 2020. 「장일순의 생태철학 - 전일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 『종교연구』 80(2): 37-62.  
김재익. 2021. 「장일순의 생태적 인간관에 관하여-생태 위기 속에서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제안-」. 『한국종교』 50: 39-64.  
김재익. 2024. 「생태보살의 관점에서 본 장일순의 생명사상」. 『韓國宗教』 57: 275-304.  
김소남. 2017. 「해방이후 함석헌의 생명사상-장일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5: 9-30.  
구태환. 2022. 「장일순 사상에 나타난 타자와의 관계 맺기」. 『통일인문학』 89: 551-576.  
신민선. 2023. 「무위당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사상 - 평생교육에의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29(2): 131-157.  
서광열. 2022a. 「장일순 생명사상의 전개와 특성 - 생명문제와 전일성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84: 111-130.  
서광열. 2022b.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생명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101: 139-166.  
안지영. 2024. 「김종철 비평에 나타난 생태적 영성의 문제성 -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6: 25-58.  
이창언. 2015.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진보평론』 64: 18-35. (비등재지 논문)  
이정애. 2024. 「장일순 사상에 나타난 공동체의식과 우리철학-‘한살림’의 어울림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68: 7-30.

- 이나미. 2019. 「1980년대 비판과 대안의 한국정치사상: 리영희, 박헌재, 문익환, 장일순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5(1): 38-66.
- 전호근. 2016. 「장일순의 평화사상 - 한국 전통불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8(2): 79-106.
- 정주아. 2024. 「197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론과 '민중-생태'의 형식 - 한국적 생태주의의 출발에 관한 소고-」. 『한국현대문학연구』 72: 49-85.
- 조성환. 2019. 「생명과 근대 - 원주의 생명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45: 71-86.
- 하승우. 2008.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시론적 연구」. 『기억과 전망』 18: 40-72.
- 허찬란. 2019. 「장일순의 한살림 운동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주는 함의」. 『한국지리학회지』 8(3): 463-475.

## 2차 자료 (본문에 인용된 기타 문헌)

- 김용휘. 2017. 「동학 해월 최시형의 자연관과 생명사상 연구」. 『동학학보』 38: 165-188.
- 김익록. 2010.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도솔.
- 박순금. 2003. 「장일순 생명사상의 생태유아교육적 함의」. 『생태유아교육연구』 7(1): 139-160.
- 박준건. 2003. 「김지하 생명사상과 율려사상에 대한 하나의 고찰」. 『대동철학』 20: 2-50.
- 이은주·이상수. 2005.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6(3): 183-207.
- 한자경. 2008. 『한국철학의 맥』.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황종원. 2022. 「장일순 생태사상의 종교 회통적 성격과 생태기술론적 의의」. 『유학연구』 58: 47-75.
- 황종원. 2023. 「노자의 생태노동론적, 종교생태학적 독해 - 1990년대 이준모와 장일순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8: 275-300.
- 장일순. 2016. 『허허바다』. 도솔.
- 장일순·이현주. 2003. 『온몸으로』. 한길사.
- 최성현. 2004. 『좁쌀 한 알 일화와 함께 보는 장일순의 글씨와 그림』. 도솔.

토론문: 목자의 사상과 지속가능발전 - 보편윤리와 실천 중심의 가치

이원영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2025년 11월 6일

## 논문 “정도전의 정치·사회철학과 지속가능발전-공공성·제도·거버넌스” 에 대한 토론 원고

최은수(숭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 1. 논문의 학술적 기여와 의의

본 논문은 한국 전통 정치철학의 핵심 고전인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내재한 정치·사회철학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통치 원리와 규범을 현대의 SDGs 및 ESG 가치체계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글로벌 표준으로 작동하는 SDGs와 ESG 담론이 서구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한국적 사상 전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통 고전에서 '지속가능성 지향적 원형(prototype)'을 탐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는 『조선경국전』의 핵심인 육전(六典)(治典, 脩典, 禮典, 政典, 憲典, 工典)을 분석 틀로 삼아, 유교적 덕치 이념이 실제 법과 제도로 구현된 지점을 SDGs의 17개 목표와 ESG의 세 영역에 구조적으로 대응시키는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통 정치사상을 현대적 정책 의제로 재맥락화하는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조선경국전』이 공공성, 형평성, 책임성, 제도적 투명성 등 현대 지속가능성 담론의 핵심 가치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이 한국 전통 사상과 SDGs/ESG의 연계라는 중요한 물꼬를 텃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을 위한 몇 가지 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토론을 위한 논제

#### 논제 1: 규범적 경계 설정의 방법론상의 문제

본 연구의 핵심 전제는 전통 가치가 현대 가치와 '같지 않으면서도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시대적 맥락을 초월하는 규범적 원형으로서의 연결(예: 공정한 인재 등용)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기능적 유사성을 통한 대응(예: 재정 절제 = 환경 E)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조선경국전』이 당시 조선의 이상적 통치 체제를 목표로 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론적 성격을 가짐에 비해, SDGs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범지구적 시민 중심이 목표이다. 두 개념 사이의

시대적·구조적 틈을 메우고, 단순한 의미의 유사성 파악을 넘어서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론적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논제 2: 전통 가치의 한계와 현대적 적용의 제약성

『조선경국전』은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유교 덕치주의를 지향하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전통적 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계급적 질서, 여성의 역할 제한, 중앙 집중적 통치 방식 등은 현대의 평등(SDG 5, 10) 분권형 거버넌스와는 상충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통적 고전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가진 시대적 한계와 비 지속가능한 요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도전이 주도한 토지 제도 개혁(경리 항목)이 결국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강화라는 목적을 내포했듯이, '지속가능성 지향적 원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 내부의 비 포용적, 비 민주적 요소는 어떻게 분리하고 걸러낼 수 있을지, 그 비판적 준거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논제 3: 육전 간의 상호 연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의 필요성

본 논문은 육전이 정치-경제-사회-환경-제도 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문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육전 간의 유기적 통합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예전」은 사회 질서와 교육을 규정하는데, 현대 SDGs의 문화교육(SDG 4) 목표와 어떻게 심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치전과 부전에서 추출된 '절제' 및 '공공성'의 가치가 다른 전(典)들을 통해 어떻게 '제도화'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논제 4.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현대 지속가능성(SDGs와 ESG) 논의의 학문적 비교 분석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을 현대의 SDGs와 ESG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는 한국적 지속가능성 담론의 현지화(localization)와 전통 사상의 현대적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문적 가능성을 갖는다. 한편, 14세기 유교 국가의 통치 철학을 21세기 글로벌 목표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확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 1) 논의의 비판적 접근

『조선경국전』에 현대적 가치를 투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A. 시대적 배경과 목적의 차이 (Anachronism의 위험)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조선 왕조 500년의 영속적인 유지(제도적 지속성)가 궁극적 목표

였다면 오늘날의 SDGs/ESG에서는 21세기 기후 위기, 글로벌 불평등, 산업화의 폐해 등 범지구적 위기 해결이 목표이다. 또한 정도전의 'E(환경)'는 주로 농업 사회의 식량 및 생활 자원 유지를 위한 지역적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오늘날의 기후 변화, 대기 오염,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환경 위기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

#### B.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value chaos)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민본을 강조하지만, 이는 백성을 통치의 대상이자 군주의 보호 대상으로 보는 온정적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조선은 유교적 신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이는 만인의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현대의 SDG 10(불평등 감소) ESG의 사회적(S)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대 거버넌스(G)의 핵심인 참여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있다. 아울러 정도전의 사상은 유교적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이상주의적-경직된 제도를 지향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SDGs/ESG 이행의 유연성과 적응성이라는 가치와는 다르다.

#### C. 용어의 치환과 개념의 희석 (학문적 엄밀성 훼손)

과거의 텍스트에서 현대적 개념(E, S, G)과 일치하는 구절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그 의미를 과장할 경우, 학문적 엄밀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자원 관리를 'E'로, 관료제를 'G'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원래의 정도전 사상의 맥락이 희석될 수 있다.

### 2) 정책 및 거버넌스 함의: 한국적 지속가능성 모델 모색

정도전의 정치철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조망하는 학문적 작업은 단순한 고전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가 마주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할 '한국적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A. 공공성(publicness)의 제도화: ESG의 'G' 강화

정도전의 통치 철학은 '인군에게는 사유재산이 없다'라는 원칙을 통해 통치자의 도덕적 책무와 재정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 자원의 사유화 및 특권층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오늘날의 ESG 거버넌스(G)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정도전의 사상은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이 단순히 서구적 지배구조(예: 이사회 독립성)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적 의무와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적 공공성(publicness) 철학을 내재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B. 통합적 정책 설계: '육전(六典)' 거버넌스 모델

『조선경국전』의 육전(治·賦·禮·政·憲·工)은 통치 윤리부터 경제, 사회 질서, 산업 기반까지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규율한다. 이는 특정 영역(예: 환경)만을 분리하여 다루지 않고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런데 현대의 SDGs 이행의 최대 난점은 환경, 경제, 사회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목표 간 상충성(Trade-off)'이다. 정도전의 통합적 거버넌스는 현대 정책 설계자들이 분절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SDGs의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정도전의 실패(한계)가 현대에 주는 역설적 교훈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기틀을 잡은 최고의 설계자였으나, 결국 왕권과 충돌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의 실패 지점이 역설적으로 현대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 A. 제도적 강건함(robustness)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충돌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왕조의 영속을 위해 변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강력한 제도적 강건함(robustness)을 추구했다. 이는 통치 체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전의 철학은 왕(시스템 핵심 요소)의 변화와 충돌에 적절히 유연하게 대처(fliability)하지 못하여 결국 본인과 그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ESG/SDGs 지속가능성 거버넌스(G)는 경직된 준수(compliance)를 넘어, 기후 변화나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며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요구한다. 정도전의 실패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강건함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 B. 이상주의와 권력 균형의 실패

정도전의 오류로서 그는 재상 중심의 이상적인 관료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결국 군주(정치 권력)가 가지는 인간적 욕망과 권력 의지를 간과했다. 이상적인 설계가 현실의 권력 역학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현대의 ESG가 기업에 요구하는 투명한 거버넌스(G)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권자(CEO, 이사회 의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 분산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정도전의 비극은 아무리 훌륭한 지속가능성 정책도 권력 독점을 견제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 3. 맺음말

연구자의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과제를 전통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는 역사적,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시론이라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SDGs와 ESG가 단순히 서구의 수입 개념을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경세제민(經世濟民) 철학에 기반한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내재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심화 연구를 기대한다.

## 토론문: 무위당 장일순 사상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장일순 선생님은 “무위당”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위당에 의미처럼 그는 생명과 자연,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물질문명 중심의 사회가 잃어버린 ‘살림의 지혜’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농업운동이나 협동조합의 실천을 넘어, 인간이 ‘생명’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찰한 철학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즉, 환경 보전,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평화로운 공동체 - 의 근본 가치가 이미 장일순의 사상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1. 장일순의 생명사상: “모든 생명은 하나다”

장일순 선생님은 “생명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속에 있다”는 생각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림(生)’의 순환 속에 함께 사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글과 강연에는 “먹는 일은 곧 생명을 나누는 일”, “사는 일은 함께 사는 일”이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현대 생태학의 핵심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SDGs의 기초 가치인 ‘지속가능한 삶의 공동체’ 개념과 일치합니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은 단순한 환경과 생태계보호를 넘어 (Goal 14-15), 인간의 내면적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바꾸려는 ‘생활철학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보다 ‘존재의 조화’를 중시했고, 인간이 다시 생명의 윤리 속으로 돌아가야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 시대에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 2. 한살림과 협동조합 운동: “살림의 경제학”

장일순 선생님은 1980년대 초, 생명사상을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한살림’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결된다”는 철학 아래 시작된 생활협동조합이자 생명운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거래나 지역경제 모델이 아니라, 생명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경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SDGs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등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한살림은 유기농산물 생산, 공정한 가격, 지역사회 순환경제를 통해 ‘소비가 곧 생명을 살리는 행위’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과 효율 논리 속에서 인간적 가치가 훼손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었습니다.

### 3. 공동체적 삶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장일순 선생님의 협동조합 사상은 단지 경제적 협력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 연대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SDGs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빈곤 종식(Goal 1), 기아 종식(Goal 2), 불평등 해소(Goal 10)'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Goal 16)'로 이어집니다.

그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 순환적 생산, 공동체 중심의 분권적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Goal 11), 기후 대응 농업, 로컬푸드 네트워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4. 현대적 의의와 교훈: 생명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쟁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기후위기, 초고령화와 돌봄의 위기 등은 "성장"이 아니라 "지속"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의 사상은 이 전환의 시대에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생명 중심의 가치 전환입니다. 인간 중심의 산업문명에서 벗어나, 자연과 타 생명을 존중하는 '관계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둘째, 살림의 경제입니다. 효율과 이윤이 아닌 생명의 보존과 순환을 기준으로 경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운동 등은 이 방향의 실천입니다.

셋째, 공동체 회복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서로의 안녕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통합돌봄 지원법이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는 제도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핵심입니다. 협동과 나눔은 단지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맺음말: 지속가능한 시대를 향하여

장일순 선생님은 "생명은 서로를 살림으로써 산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과 자연, 경제와 윤리,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통합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지 국제사회의 합의가 아니라, 인간이 다시 생명과 더불어 살기 위한 '새로운 문명계약'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매일의 작은 살림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비워둔 면)

## 제2세션

# 한국 ESD(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과 확산 전략

(비워둔 면)

---

# 해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정책 사례 : 일본 오카야마(Okayama) ESD

이흥연 교수(평택대학교)

## I. 서론

### 1. 연구배경

지구상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불평등 심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 환경이 해마다 훼손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등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친숙한 곳에서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와 행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간의 갈등,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의 갈등, 전통과 현대성 간의 갈등, 장기적 고려와 단기적 고려 간의 갈등, 경쟁과 협력 간의 갈등,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간의 갈등, 기존 교과과정과 새로운 주요 지식 영역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HP).

2002년 유엔 총회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교육(2005~2014)」을 선언하였다. 또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글로벌 실천 프로그램은 2019년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로드맵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2030)이 수립되었다.

국제사회는 2005년부터 2014년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가치, 시행 방침을 모든 학습 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이 제창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ESD를 강화하고 17개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보

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의 역량 강화, 청년의 권한 부여와 참여, 지역 차원의 실천에 ESD와 17개 SDGs를 완전히 통합시킨다(유네스코 2021; 이창언, 2022a; 이창언·양재준, 2022b).

## 2. 연구 목적 및 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ESDGs)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도시가 있다. '유엔 ESD 10년' 마지막 해인 2014년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가 열린 오카야마 시(岡山市)이다.

일본 오카야마는 2015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ESD 우수 사례로서 귀감이 될 만한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선정해 ESD 오카야마 상(ESD Okayama Award)을 시상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P). 오카야마의 ESD 프로젝트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교, 정부기관, 기업, 비정부단체, 그리고 260여 개의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2016 유네스코-재팬 지속가능발전교육부문 상을 받았다(조미경, 2017).

오카야마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ESD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에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岡山ESD推進協議会)는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ESD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보편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의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D 선진도시인 오카야마 지역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ESD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향한 학습과 행동 변화, 이에 수반하는 인재육성 등 ESD로써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오카야마는 ESD 활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쉽고 명확한 활동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도시가 이를 참고하고 있다. 오카야마 ESD는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최신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ESD 실현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카야마 프로젝트는 ESD 관련 활동 자료 및 정보의 발신 및 소개, 강사 파견, 활동 보조,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의 지정 기관에 각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ESD의 관점에서 적절한 환경 교육 및 ESD 실행에 관한 프로세스, 지역의 특성에 맞는 ESD, ESGs를 추진하는 방법(SDGs의 현지화)을 수립하는 데 영감을 준다. 한편, 오카야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ESD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개발이 가진 의미와 필요성과 실행의지를 높여준다.

본 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ESD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오카야마의 ESD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한국 지자체 ESD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열고자 한다. 하지만 오카야마 ESD 사례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오카야마와 오카야마 ESD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오카야마와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각종 공

문, 법령 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오카야마 ESD의 탐색적 연구이자 정보 제공에 무게를 둔 연구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오카야마 현지 방문과 오카야마 ESD, SDGs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제창하여 세계 각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지구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NGO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추진을 제안했고,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5년부터 UN의 ESD 10년이 시작되었다(이창언, 2022; 이창언, 2022a; 이창언·양재준, 2022b).

유네스코는 ESD를 인류가 미래 세대에 걸쳐 풍요로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자원의 고갈, 빈곤 확대 등 인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즉,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 등의 내용 포함한다(이창언, 2022a).

## III. 일본 오카야마 ESD사례 분석

### 1. 오카야마 ESD 발전과정

오카야마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공민관(公民館) 활동이나 환경보전, 국제이해 등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발했다. 2005년 4월, 유엔 대학(UNU)이 제안한 ESD 지역 센터(RCE)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학교, 대학, NPO, 시민단체, 행정 등이 참여하는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가 설립되어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岡山ESDプロジェクト)」가 시작됐다. 2005년 6월에는 유엔대학(国連大学)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ESD의 지역거점(RCE)'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후 대학,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커뮤니티센터와 유네스코 스쿨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ESD 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에 ESD를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는 오카야마시가 사무국을 맡아 환경보전, 다문화공생, 역사·문화의 전승, 도시조성 등 다양한 ESD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엔 ESD 10년' 마지막 해인 2014년 10월, 11월에는 오카야마에서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ESDに関するユネスコ世界会議)' 이해관계자 모임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되어 총 97개국에서 약 3,000명이 참가했다. 오카야마는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를 포함한 오카야마·카가와(岡山·香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NPO,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ESD의 10년 마지막 해 회합 오카야마 개최를 실현하는 모임(ESD의10年最終 年會合岡山開催を實現する会)'을 발족하고 지역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실시했다. 7개 지방자치단체로 유치를 희망했으나 오카야마로 결정되었다. 오카야마 지역의 ESD의 충실한 대처와 실행체제 확립이 높게 좋게 평가되었던 것이다.

본회의는 2014년 11월 세계회의에 앞서 오카야마시, 공민관(公民館)·CLC(Community Learning Centre)회의 실행위원회 및 문부과학성 주최, 유네스코 방콕 사사무소 등의 공동개최로 실시되었으며, 29개국에서 약 700명이 참가했다. 회의의 성과로서 '오카야마 약속 2014(Okayama Commitment 2014)'가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때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둔 배움과 마을회관, CLC를 비롯한 배움의 거점이 가진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安田充年, 2015).

국제 RCE 회의(Global RCE Conference(Okayama ESD Project)) 회의는 유엔 대학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제9회는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 및 오카야마시도 공동 주최자로서 기획·운영에 참여했다. 전 세계 129RCE(2014년 11월 현재) 중 68RCE에서 약 270명이 참가하여 채택한 'RCE 오카야마 선언'에는 2015년 이후에도 ESD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ESD에 관한 글로벌·액션 프로그램(GAP)'의 5개 우선 행동 분야 모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추가적인 RCE(Regional Centres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sup>1)</sup> 활동의 충실화, 질 향상에 힘쓸 것 등이 포함되었다.

2014년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 ESD 회의는 시내 전역에서 ESD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ESD는 지역 전역에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오카야마 지역에서 수행되어 온 ESD 실천은 세계 회의에서 "ESD 오카야마 모델"로 발신되어 관련 단체 및 참가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는 오카야마다움을 도입했다.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현지 초등학생을 비롯한 ESD 활동 단체의 발표나 전시 등을 통해 회의 참가자와 지역사회가 교류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ESD의 인지도나 이해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회의 운영 시에는 카본 오프셋 등 환경 배려를 실시한 것 외에 종교나 문화에도 배려했다. 또한 참가자의 유도나 접수 등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오카야마 지역을 끄은 마음을 담은 환대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또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오카야마 지역에서의 ESD 노력을 정리한 'ESD 오카야마 모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ESD 추진 도시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1)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한 지역거점 또는 지역 전문 지식센터이다. 유엔 대학은 "ESD의 10년"의 목표를 달성하고 ESD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촌 RCE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RCEs를 제안하고 승인한다. 오카야마는 세계 최초의 7대 RCE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 2. 오카야마 ESD 실행의 특징과 활성화 요인

2005년에 시작된 오카야마의 ESD 실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운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15-2019’에 이어 2020년에는 <표 1>과 같이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ES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구상에는 ESD 프로젝트의 목표, 비전과 미션, 주체, 대상, 영역이 명시되고 있다.

<표 1>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 기본구상

요인오카야마 ESD 프로젝트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 함께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오카야마 지역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li> <li>· 지역의 ESD 대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한다.</li> <li>·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조화롭게 SDGs의 달성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li> </ul>
오카야마의 이상적인 모습 (실현될 비전과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ESD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이해하고 행동한다.</li> <li>·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li> <li>· 오카야마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조직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운다.</li> </ul>
기본 사항	주체	·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각 조직·기관·조직이 이 사업에 앞장서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	· 프로젝트의 실시 지역은 오카야마이지만,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오카야마의 하천 유역이나 수도권 등 넓은 지역에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ESD를 추진한다.
	영역	·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와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포괄하는 프로젝트이다.
	기간	· 사업의 목표 기간은 2020~2030년까지 10년이다. 다만, 다양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 내에서도 적절히 재검토한다.

출처 : 오카야마ESD 추진 협의회(2020)

2015년 이후에는 오카야마 지역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8대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해 전략적으로 ESD의 실천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8대 중점 과제는 1.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2. SDGs 달성을 위한 실천, 3. 청소년과 인재 육성, 4. 지역 사회, 공민관, 학교 등에서 ESD 추진, 5. 우수 사례 표창, 6. ESD 활동을 확대, 7. 기업과 경제단체의 대응 강화, 8. 해외 및 국내의 ESD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8대 중점 과제는 2019년까지의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岡山市 HP).

<표 2> 8대 중점과제와 실천 내용

8대 중점 과제	구체적인 실천 내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 지역 센터,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과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한 과제 해결로 이어지는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li> <li>·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한다.</li> </ul>
SDGs 달성을 위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를 활용하여 주변 시정촌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환경 및 기타 사회 문제 해법을 찾는다.</li> <li>· SDGs의 모든 목표 달성에 있어 ESD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변 시정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에 연결하는 기회를 창출한다.</li> <li>· 시민의 SDGs에 대한 이해를 발신·추진하는 이벤트를 개최해서 일상생활과 SDGs의 관계를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진한다.</li> </ul>
청소년 및 인적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각, 지혜, 기술,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를 포함한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를 창출한다.</li> <li>· 다양한 학습센터와 시민단체에서 ESD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확보한다.</li> <li>· 대학, NPO, 커뮤니티 센터 등과 제휴하여 대학생 등 젊은 ESD 실무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li> </ul>
지역 사회, 커뮤니티 센터 및 학교에서의 ESD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민관에서의 ESD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 학교, 공민관과 연계를 추진한다.</li> <li>·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ESD 활동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사회 교육과 평생 학습에 관한 시설을 활용하여 ESD를 추진한다.</li> <li>· 유네스코 스쿨 연합(연맹)의 ESD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연계, 시책의 발표, 국내외 유네스코 학교와의 교류 등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간다.</li> <li>· 오카야마 시내의 모든 학교에서 ESD를 추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ESD 연수를 실시하고 ESD를 커리큘럼에 배치하여 ESD의 관점에서 더 나은 커리큘럼을 편성한다.</li> </ul>
우수 사례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ESD 오카야마 상을 개최한다.</li> <li>· 국내외에서 우수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ESD 활동에 영감을 얻어 활동의 활성화와 질 향상을 모색한다.</li> </ul>
ESD 활동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단체에 의한 새로운 ESD 대처 및 활동의 계속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의 일부를 보조한다.</li> <li>· 환경 학습 센터, 도서관, 박물관, 정부 이외의 커뮤니티 허브 등 환경 교육 시설 및 기타 교육 거점에서의 ESD 활동의 확산을 넓은 의미로 장려한다.</li> <li>· ESD에 임하는 중간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활용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활동 기반을 확충한다.</li> </ul>
기업 및 경제 단체의 대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나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기업의 SDGs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포함한다.</li> <li>· 경제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ESD와 SDGs에 임하는 기업의 정보를 폭넓게 발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li> </ul>
국내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주변 하천 유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노력을 추진한다.</li> <li>· 국내외 커뮤니티 센터와 커뮤니티 러닝 센터(CLC)와의 교류를 추진한다.</li> <li>· 국내외 RCE 지역과 연계하여 ESD 활동의 공유와 교류를 추진한다.</li> <li>· 유네스코 및 기타 해외 ESD 추진 단체와 협력하여 2030을 향한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의 대처를 발신하여 전 세계 ESD 보급에 기여한다.</li> </ul>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 기본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SDGs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S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SDGs 목표 달성을 ESD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은 유엔 대학이 인정하는 RCE의 추진 모체인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ESD 추진에 찬동하는 각 조직·단체·기관과 제휴,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는, 오카야마 지역의 행정, 연구 기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지역 커뮤니티, 민간 비영리 활동 단체, 기업, 보도 기관 등에서, 이 프로젝트에 찬동하는 각 조직·단체·기관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역할은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기본 구상 책정,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및 이에 대처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지정이나 지원, 연계·협동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ESD에 임하는 각 조직 간 제휴나 교류의 추진, 연락 조정, 지역 전체의 ESD나 SDGs에 관한 지식·이해의 향상, SD와 관련된 다른 지역이나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 추진 등이다. 협의회에는 운영조직으로서 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횡단적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는, 오카야마시 및 오카야마시 교육위원회의 관계 부서와 함께, 전문적인 인재육성이나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대학·연구기관, 사회 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조직, 기업이나 경제 단체 등과, 분야 횡단적인 제휴를 도모한다. 또, 각 단체의 허브 기능을 가지는 중간 지원 조직과 제휴해, 지역 전체에서 네트워크를 살린 ESD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제휴해,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사업의 설정을 도모한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 기본구상의 두 번째 특징은 공민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ESD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는 공민관 및 유네스코 스쿨과 같은 지역 ESD 허브를 중심으로 학생, 공민관 이용자, 교사 및 교직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고 있다. 공민관은 지역주민들이 ESD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공민관 직원들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네스코 학교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고등학교에서 ESD 및 SDGs 이니셔티브를 가속했다. 지역 및 도시 지역의 지역 사회와 사회 과제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워크숍을 개최하고 ESD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오카야마 ESD 활동은 지역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노인과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 활동, 야생 생물 보호 활동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 기본구상의 세 번째 특징은 체계적인 진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카야마 ESD추진 협의회는, 매년, 운영 위원회

에 의한 진행 관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간 해의 2025년에 중간적인 평가, 2030년에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종료하는 해(年)의 평가는, 2030년 이후의 ESD의 한층 더 효과적인 추진으로 연결되도록 기획되어 있다. 또,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의 실시 기간 중에도, 경제, 사회, 환경의 정세 변화와 국제적 조류의 동향 등을 주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본 기본구상과 기본구상에 근거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점검과 재검토를 실시한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ESD 활동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활동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관리 지표

항목		2019	2025	202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ESD에 참여하는 단체 수	307개	370개	430개
	ESD 워크숍 수	20건	150건	300건
SDGs 달성을 위한 실천	오카야마 SDGs 어워드의 응모 건 수	75건	누계 420건	누계 800건
	SDGs 축제 일일 참가자 수	2,250명	3,000명	3,500명
청소년 및 인재 육성	ESD를 실천하기 위한 인재 육성 연수 참가 인원	19명	120명	누계 220명
	대학·고등학생, 청년을 위한 ESD 활동 참가자 수	누계 3,446명	누계 6,500명	누계 9,000명
지역 사회, 커뮤니티 센터 및 학교에서의 ESD 홍보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비율	7.9%	10%	12.5%
	공민관 기본방침 사업 참여인원	53,000명	62,000명	62,000명
	공민관과 연계한 학습 및 실천활동 실적이 있는 중학교 수	37개	37개	37개
우수 사례 표창	ESD 오카야마 상 응모 건 수	385건	누계 800건	누계 1,200건
	ESD 오카야마 상 신청국 수	172개국	40개국	600개국
ESD 활동의 확대	오카야마 ESD추진협의회에 등록하여 ESD에 관한 강좌나 정보제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점시설 수	135개	140개	145개
	오카야마 시민의 ESD·SDGs 인지도	20.9%	30%	40%
기업 및 경제 단체의 대처 추진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에 기업 등록 수	36개	50개	70개
	기업 대상 ESD·SDGs 연수 개최 수	2건	누계 15건	누계 25건
국내외 협력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와 국내외 ESD에 대응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건 수	28건	누계 180건	누계 180건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 2020-2030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오카야마 ESD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조직이 꾸준히 증가하여 오카야마 지역 전체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각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많은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ESD와 SDGs 대처에 많은 참가자가 참가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역인 청년층의 저변이 넓어졌다. 이해관계자 활동의 분야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비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ESD 오카야마 어워드 프로젝트는 오카야마 지역상, 글로벌 어워드 등을 개최해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오카야마 지역은 국내외에서 ESD의 리더가 되었다. 오카야마 지역에서의 대처를 발전시키기 위해 RCE 등의 국제회의에 참여하거나 대학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하여 ESD에 관한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의 ESD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의 ESD 이해 관계자와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 활동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높이고 활동 내용을 심화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제도적 기반과 추진 체계

오카야마시는 2016년 9월 시의원 제안으로 'ESD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교육기관,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지역형 ESD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같은 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오카야마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역 대학, 학교, NPO 등 다양한 조직의 SDGs 실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했다.

### 2. 대학과 시민사회 주도의 확산

2017년 오카야마대학은 세계 최초로 'SDGs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정부가 주최한 '일본 SDGs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오카야마대학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해 대학 경영과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SDGs 실행을 제도화했다.

같은 해 NPO들이 결성한 'SDGs 네트워크 오카야마'는 교육·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중·고교 28개교에서 총 1,500명 이상에게 SDGs 현장수업을 실시했다. 또한 청년 조직인 Maison de SNOW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지역 SDGs 의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3. 지역기업 참여와 제도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오카야마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카야마 SDGs 추진 파트너 제도’(2023)를 도입했다.

시내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SDGs 실천 계획을 등록하면 “파트너 기업”으로 인증 받고, 금융·경제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인 ‘서포트 팀’의 지원을 받는다. 참여 기관에는 중국은행, 토마토뱅크,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 오카야마 NPO센터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기업의 SDGs 활동을 가시화하고, 기업 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

### 4. 시민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

오카야마시는 유네스코 스쿨 네트워크 및 ESD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형 상업시설에서의 SDGs 체험행사, ‘ESD 카페×SDGs 시리즈’(매월 개최), ‘SDGs 포럼 in 오카야마’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학습과 실천을 확대했다.

또한 ‘오카야마 SDGs·ESD 내비게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단체의 활동과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5. 국내외 연계와 지속가능한 발전

오카야마는 RCE(지역 ESD 거점), 이클레이(ICLEI),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ESD 정보와 SDGs 선진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시와 주변 13개 지방정부가 연계한 ‘오카야마 연계 중추도시권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ESD 오카야마 어워드’는 세계 각국의 우수 ESD 사례를 발굴·시상하며, 지역이 글로벌 ESD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 6. 과제와 제언

오카야마 ESD 추진협의회는 지난 15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SD 활동이 아직 전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ESD for 2030’ 체제에 맞춰 지역 수준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지방창생과 ESD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ESD 네트워크와 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자발적 지역 보고(VLR) 체계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7. 한국에 주는 교훈

오카야마 사례는 한국의 ESD 활성화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① 국제적 합의의 지역화: ESD·SDGs를 지방 차원에서 제도화
- ② 혁신적 지방정부 리더십: 조례·본부 설립으로 지속가능 정책 기반 마련
- ③ 다층적 거버넌스: 대학·NPO·기업·시민이 참여하는 협력구조
- ④ 지속가능 네트워크: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 ⑤ 평가와 환류 시스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ESD 품질 제고

##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조정선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 외래교수)

### I. 서론

1968년 유네스코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초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관련 세계회의를 개최한 이후, ESD는 국제적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며, 환경교육의 범위를 사회·경제·문화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어 1992년 리우 회의의 Agenda 21 채택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선포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은 ESD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었다(Hopkins, 2012). 2015년 국제연합(UN)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DESD 기간 동안 각국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ESD를 공식 교육 체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이창언·오유석, 2017). 이후 2019년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GAP)이 종료되고, 2020-2030년 ESD for 2030 이행 체계가 수립되면서 각국의 이니셔티브 강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이창언, 2022).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8년 12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하였다. K-SDGs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SDGs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SDG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으로 의제 21과 이클레이(ICLEI)가 있다. 의제

21은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행위자 그룹을 강조하였고, 지방정부의 발전 촉진을 강조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된다.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시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약 1,750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만든 국제 네트워크이며, 그 외에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가 SDGs 세부목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SD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며,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지속가능발전대학(SDU)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빈곤,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한 의식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대학은 지식 생산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실천적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체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SDU 발전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평택 지역을 포함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ESD 교육과정과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05년 'ESD 10년(DESD)' 선포 이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국가에서 추진된 ESD 정책 설정을 기반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ESD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거버넌스 설계 전략,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계, SDGs 연계 평가 기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ESD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보편화시켜야 한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SDGs·ESD 현지화 전략과 대학-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도출함으로써, 한국형 ESD 실행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실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육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ESD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효과적 교육모델과 운영체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의 ESD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체계, 참여자들의 인식과 만족도, 학습 성과, 교육과정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사회 연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24~2025년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질적 심층인터뷰를 활용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대상은 평택 SDU 운영자이며, 교육과정과 문헌분석도 병행한다. 교육과정의 실태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ESD의 핵심 개념과 지역사회 연계성

ESD는 학습자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행동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접근이다. ESD의 핵심 개념은 통합성(Integration), 참여와 행동(Participation & Action), 비판적 사고와 가치 성찰(Critical thinking & values), 평생학습과 지역적 적합성(Lifelong learning & local relevance)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핵심 축인 환경, 사회, 경제를 교육 전반에 통합한다. 즉, 환경 보호, 사회적 형평, 경제적 번영이 서로 의존적임을 인식하게 한다. 학습자 스스로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참여 중심 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인지적 이해를 넘어 행동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 복잡한 사회·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성찰하게 하는 비판적, 통합적 사고를 중시한다. 학교교육, 비형식교육, 시민교육 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형태로 전개되며, 각 지역의 문화·역사·환경맥락에 맞게 설계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구축하여야 한다. ESD는 지역사회 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고, 지역자원·주민·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첫째, 지역사회 참여 강화를 위해 ESD는 지역사회를 학습의 “교실”로 확장시켜 마을, 대학,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지역학습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세계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을 기반 ESD 프로그램(예: ‘우리마을 공정여행 프로젝트’)은 세계시민의식, 다양성 존중, 공동체 참여의식을 증진시킨 사례로 제시된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 기반 ESD는 세대 간 대화, 전통지식의 계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마을로의 전환에 기여한다. 즉, ESD는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학습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를 변화의 장으로 삼는 교육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SDGs 달성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

### 2. 지속가능발전대학(SDU)의 개념 및 동향

지속가능발전대학(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y, 이하 SDU)는 고등교육 기관이 SDGs를 교육, 연구, 운영, 지역사회공헌 전반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 모델을 뜻한다. 이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ESD의 고등교육 단계 확장체로 이해된다.

교육의 지속가능화를 위해 교양·전공 교육과정에 SDGs와 ESG 관련 학문을 통합한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 사회적 형평, 지속가능 경영 등이다. 지역사회 및 글로벌

연계한다. 지역정부, NGO,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천하고 국제적 네트워크(UNESCO ESD, SDSN 등)와 연동한다. 즉, SDU는 ESD의 고등교육 플랫폼이자, 대학이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서 지속가능전환(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는 개념이다.

###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ESD 관련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ESD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ESD 모델을 공유·확산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이하 ESD 인증제)를 운영해왔다. ESD 인증제는 ESD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추진되고 있는 ESD 관련 사업 및 활동을 발굴하고, 이들 중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개발 연구중이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수도권(32곳), 강원권(11곳), 충청권(17곳), 전라권(15곳), 경상권(19곳), 제주(3곳) 등 6개 권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2025년 1월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 중인 지역은 18곳이다(조정선, 2025).

<표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대학 전수조사

권역	지역거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대학
서울·수도권 (32)	가평,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부평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군, 여주, 연천군,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인천, 파주, 평택, 화성, 도봉구	평택(25년 10기), 용인(25년 8기) 이천(25년 9기), 도봉구(25년 8기) 광주(25년 4기), 청주(25년 4기) 수원(25년 4기), 인천(25년 2기) 고양(25년 2기), 부천(25년 2기)
강원권(11)	강릉,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속초, 영월군, 원주, 정선, 춘천, 태백, 평창, 홍천군	원주
충청권(17)	공주, 논산, 당진, 대전, 보령, 서산, 서천군, 세종, 아산, 예산군, 제천군, 천안, 청주, 충주,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군	보령(25년 6기)
전라권(15)	광주, 군산, 김제, 나주, 목포, 순천, 신안군, 여수, 익산,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 정읍	광주시 서구(25년 3기)
경상권(19)	거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주, 김천, 김해, 대구, 밀양,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영주아젠다21추진협의회, 울산, 진주, 창원, 통영, 포항, 해운대	대구(25년 8기), 포항(25년 7기) 김해(25년 6기), 부산(25년 2기) 창원(25년 5기)
제주(3)	서귀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4. 관련 이론: 지역사회학습이론, 거버넌스 이론, 학습도시 개념

지역사회학습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며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지역사회의 환경, 자원,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지역사회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문제해결 학습에 적용된다.

거버넌스 이론은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및 통치 방식을 강조한다. 전통적 수직적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다주체 협력과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학습도시는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모든 시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정, 주민행복,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대표적 학자 노만 롱워스(Norman Longworth)는 학습도시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공동체 학습이 핵심인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로 보았다. 학습도시는 평생학습 지도자 육성, 학습시설 운영, 주민 학습 욕구 충족 등 다각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 세 이론과 개념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력 기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 III.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발전대학 ESD

ESD는 지역 내 일상생활을 포함하도록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UNESCO(2014a: 89) 지침에 따라 거버넌스 정책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관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시설 및 학교 운영 등 주요 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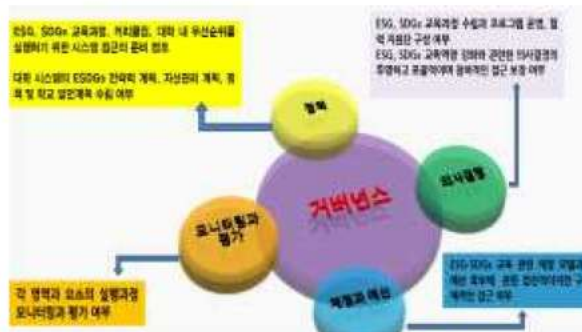
또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 ESD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ESD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접근(whole-system approach)이 필수적이다(이창연, 2020). 이 접근법은 거버넌스(정책, 의사결정, 재정 및 예산, 모니터링과 평가), 교육과정(과정 설계, 교수 및 학습), 인적 역량 형성(리더십, 전문성 신장, 인적 자원 개발), 시설 및 운영, 파트너십 등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세밀한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환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Connelly, 2013: 88-90; 조정선, 2025).



<그림 1> 전 기관적 접근법(UNESCO 2014a: 89)

### 1. 거버넌스 구축

ESD와 SDGs 교육과정 설계 및 대학의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교육과정, 인적 역량 형성, 시설 운영,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주요 영역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ESD와 SDGs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의 미션과 목표를 명확히 선언하고, 고위직 교육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 부서가 지속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립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에 ESD를 정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ESD와 SDGs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대학의 SDGs 이행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창연, 2022a: 조정선, 2025).



<그림 2> 거버넌스

출처: SDGs 교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 재구성

정책영역은 ESG, SDGs 교육과정, 커리큘럼, 대학 내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하고 있는것과 대학 시스템의 ESG 전략적 계획과 자산관리 계획, 정책 및 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재정과 예산 영역 ESG-SDGs 교육 관련 재정 모델과 예산 확보에 관한 점진적이지만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영역은 각 영역과 요소의 실행과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의사결정영역은 SDGs 교육과정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기획-홍보-운영-평가-모니터링 운영한다. 대학 내 학제적 교과과정에서의 ESG, SDGs 반영 하는지, 교수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수업 샘플 단위, 코스 내용, 교수지침, 온라인 및 교과서 중심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핀다. 학습영역은 양질의 학습환경 제공, 투명한 평가 구조, 행동학습 접근, 학생 성취도 모니터링을 하는지 평가한다. 교수영역은 교수 접근 방식에서 ESG 교육원칙을 반영하고 하는지 평가한다.



<그림 3> 교육과정

출처: SDGs 교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 재구성

## 3. 인적자원과 역량형성

리더십 영역은 학교 리더와 구성원들의 ESG, SDGs 실행의 헌신성, 리더십 계고,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인재양성과 관리 영역은 ESG 역량을 성과 평가와 임용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는지, 모든 시스템 구성원을 위한 인적 자원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역량 구축 및 멘토링과 협력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는지, 교수, 교직원들의 ESG 리더십을 통해 인정받고, 보상 받는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한다.



<그림 4> 인적 자원 역량 형성

출처: SDGs 교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 재구성

다. 전문성 영역은 교-강사들에게 ESG, SDGs 지식, 기술, 관점, 교수법과 학습 맥락화의 주체로서 ESD 활용을 포함한 역량이 제공되고 있는지, 직원에게 학교와 시스템의 ESD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을 위한 ESD를 지지하는 행동, 학습모델, 자원을 공유하는지 평가한다.

#### 4. 시설과 운영



<그림 5> 시설과 운영

출처: SDGs 교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 재구성

운영 영역은 학교관리, 조달, 자원 사용의 모든 측면에 지속가능성 원칙 적용을 하고 있는지, 통학 교통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는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수단(audit tool)을 활용하는지 평가한다. 시설 영역은 교육환경에 적합한 강의실 내부조건(빔 프로젝트, 책상, 음향시스템 등)과 접근성(교통편 등)이 용이하며, 지속가능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지속가능성 실천 사례들을 가르치는 시설로서 학교구조와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지 평가한다.

이 영역 프레임워크는 ESD, SDGs와 관련한 대학 내부의 기획과 실행 상황을 측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학 시스

템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실천을 공유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흥연, 2020).

#### IV.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ESDGs)

지역사회 맞춤형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과 정책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ESGDs)는 ESD를 통해 SDGs 학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DGs의 17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행동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이는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 결과를 도출하고, 모든 SDGs 달성에 필요한 범분야적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목표는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이창언, 2022) ESGDs는 SDGs의 17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이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에서 SDGs를 적용한다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과 과제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주민·행정·기업·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창언,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단위의 SDGs 이행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SDGs 정책, 사업, 캠페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ESGDs는 SDGs의 가치와 목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특히 SDG 4(양질의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평생학습” 등 다양한 주제를 지역사회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강조된다.

#### V. 우수사례: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2016년에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평택시와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시민 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엔 SDGs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민·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단위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자체-대학-시민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되

어 있다. 매년 약 12~15주간 운영되며, 강의·토론·질의응답·좌담 등을 통해 참여형 학습 방식을 강조한다. 평택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강사진과 강의실을 제공받으며, 공무원 은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된다. 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ESG, 지역사회 혁신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의 SDGs 실천 참여를 유도한다. 2025년 현재 제10회까지 운영되며, 2016년 이후 다수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그림 9 > 포스터

<표 2>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특징

항목	내용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202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전문성, 실질적 실천 가능성, 대외 신뢰도 등이 엄격히 평가 -인증을 통해 커리큘럼과 강사진의 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지역 대학교와의 협력 및 전문가 참여	-평택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강의실, 강의, 교수진 등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받으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직접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에 참여 -이 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성과 전문성이 검증
이해관계자 및 수강생 피드백	-강의 후에는 이해관계자, 교수, 수강생과의 좌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커리큘럼의 효과성, 적합성, 개선점을 논의 -수강생의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이 지속적으로 개선
학술 논문 등재 및 외부 평가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육 사례와 커리큘럼은 국내 학술지 (KCI 등재)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 검증을 받음 -논문 등재와 외부 평가를 통해 커리큘럼의 우수성과 실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거버넌스, 교육과정, 인적 역량, 시설·운영, 파트너십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 구축 -커리큘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및 실	-공무원 수강생의 경우, 교육 이수가 상시학습으로 인정되며, 실무

무 적용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커리큘럼이 검증
교육 프로그램	-SDGs 교육: 환경,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SDGs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 -강의 및 토론: 평택대학교와 협력하여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후에는 교수와 이해관계자, 수강생 간의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 유도
지역 확산	-평택에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대학 모델이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성공 사례로 평가
시민 참여 유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

출처: 조정선(2025) 재구성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설계 원칙을 통해 지역 차원의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학술 연구와 정책 제도화를 연계한 점이 다른 지자체 사례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표 3>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의 설계 원칙

원칙	내용
지속가능성의 조화와 균형	-경제 성장,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성의 기본 개념에 기반
시민 참여와 협력	-시민이 정책 결정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와 현안 공유를 유도 -수강생 강사진,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좌담회와 토론회에 참여해 지역사회 공감대와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시키는 구조
국제적 기준 및 지역 특화 목표 반영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평택시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를 개발해 지역 현안에 맞는 실질적 전략을 수립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	-강의는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며, 오리엔테이션, 12~17강의 강의, 그리고 토론 및 좌담회로 구성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행정과 시민 모두의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
지속적 평가와 개선	-교육과정과 성과는 지속적으로 평가 모니터링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과 전략을 개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위원회 등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이루어짐

출처: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평가서, 재구성

거시적인 설계원칙을 바탕으로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의 역량 강화, 지역 현안 해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사회 내 실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미시적인 설계원칙은 SDGs 연계 교육과정, ESD와 연계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SDGs 연계 교육과정은 SDGs 가치와 목표의 지역화, 양질의 교육(Goal 4) 실

현, 민·관·학·기업 거버넌스 구축, 시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육, 지속적 평가와 제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향한다. ESD와 연계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 프로그램, 학습자 주도,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 역량, 청년 참여, 지역 실천 등 다각적 접근,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인증제 도입을 한다.

<표 4> SDGs 연계 교육과정 설계 원칙

원칙	내용
SDGs 가치와 목표의 지역화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SDGs의 보편적 가치를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안에 맞게 해석하여,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둠 -국제적 기준과 지역 맞춤형 전략을 동시에 추구
양질의 교육(Goal 4) 실현	-SDGs 4번 목표(양질의 교육)를 중심으로, 시민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그룹 토론, 좌담회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여 SDGs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강화
민관학기업 거버넌스 구축	-SDGs의 '파트너십'(Goal 17) 정신에 따라, 평택시, 평택대학교,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참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실천
시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육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SDGs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좌담회와 토론회를 운영 -시민 주도의 행동 변화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유도
지속적 평가와 제도적 지원	-교육과정 및 실천 활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SDGs 이행의 지속성을 확보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제도적·기술적 지원도 병행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향	-SDGs의 통합적 접근을 반영하여 환경,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 실천을 지향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목표

출처: 이창언(2020)

<표 5> ESD와 연계 교육과정 설계 원칙

원칙	내용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 프로그램	-지역 내 학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ESD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실행 - 지역사회가 ESD의 주체로 참여하고, 학교와 지역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실현
학습자 주도,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학습자가 스스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탐색하고,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5단계(탐색하기-공감하기-해결하기-실천하기-공유하기) 교수-학습 모형이 적용 -학생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
정책, 학습 환경.	-유네스코의 ESD 2030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정책 개선, 학습 환경의 변화, 교육자

교육자 역량, 청년 참여, 지역 실천 등 다각적 접근	역량 개발, 청년 권한 강화, 지역 차원의 실천 가속화 등 5대 우선 영역을 제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자원 재순환 활동, 지역 환경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교사와 학생, 시민 모두가 실천 주체가 되는 구조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인증제 도입	-지역의 환경사회 현안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환경부 인증 등을 통해 확산을 촉진 -이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

출처: 조정선(2025)

실천 방안들은 지역 맞춤형 SDGs 이행, 시민 주도 실천, 다자간 협력, 그리고 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이끌고 있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SDGs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지역사회에 맞게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양질의 교육, 실천 중심의 활동, 제도적 지원 등을 설계 원칙에 반영하여 지역 차원의 SDGs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오민정, 2022). 또한, 지역 맞춤형 SDGs 이행과 시민 주도 실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데 기반이 된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평택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강의실 및 교육 인프라 공동 운영한다. 환경·사회·경제·교육·문화 분야 통합 교육과정 구성, 연 12~17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획-실행-평가단계로 진행된다. 운영시에는 혼합형 교육방식과 참여형 학습 구조로 진행한다. 이는 지역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함이다.

<표 6>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교과과정 운영단계

단계	항목	내용
기획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평택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강의실 및 교육 인프라 공동 운영
	수요자 맞춤형 설계	-환경·사회·경제·교육·문화 분야 통합 교육과정 구성, 연 12~17 강의 프로그램 개발.
실행	혼합형 교육 방식	-대면(70%) + 비대면(30%) 병행. 사전 교육을 통한 비대면 환경 적응 지원
	참여형 학습 구조	-2시간 강의 + 1시간 토론 / 좌담회 -이해관계자(공무원, 학계,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회 개최
평가	성과 측정	-매년 500명 이상의 졸업생 배출,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제도화 연계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2023년) -미래전략관 산하 협의회 조직 개편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교육기획, 홍보 및 모집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평택시 SDGs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과 평가를 거쳐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환류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이창언, 2022).

**<표 7>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시스템**

순서(단계)	내용	협의 및 논의 내용
1.지속대학 기획	교육연수 계획 교육과정 계획 기관 간 협업 계획 예산확보 계획 자문단 회의	지속적인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워크숍, 간담회 등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자체 지원, 수강생 자부담을 통한 책임성과 재정 자립화, 기관 지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 자문위원 계획서 의견 반영 및 수정
2.홍보 및 모집	홍보 계획 모집 계획 교육수강 계획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협력 방안 회원 및 수강 참여자의 포용성 및 형평성 확보 수강 요일 및 시간 토론 시간 및 장소 등
3.지속대학 운영	교육운영 계획 교육생 관리 계획 입학식, 졸업식 계획 탐방 및 투어 계획 워크숍 계획 교사(전문가)양성과정 교수-학습법 계획	분임조 팀장 선정 관리, 동문회 창립과 동문 모임 조직 지도 교수제 최초 신설, 지도교수와 워크숍 사전 준비 수강생 카드, 수강생 분임 편성 식순, 초대손님, 역할분담 목적 부합 및 전문성 연계 강의시간 후 SDG 발굴 토론 수업 SDG 토론회 개최
4.평가	참가자 평가 전문가 평가	설문참여자 만족도 조사(양적 평가) 질적 평가
5.모니터링	강사 모니터링 전문가	참가자 반응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

출처: 이창언(2019), 이흥연(2019)

#### IV. 논의

##### 1. 조사 결과의 해석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 지역맞춤형 ESD 실행 모델을 확립하여 도시별 확산 전략에 거시적 행정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설계 전략,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계, SDGs 연계 평가 기준을 실천 가능한 ESD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보편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 기반 ESD 확산을 위한 함의

지역사회 기반 ESD 확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지역적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 전략이다. 지역 맞춤형 교육과 실천 강화, 네트워크와 협력 구축, 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 증진,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 3.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의 실천적 과제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은 단순 교육 제공을 넘어 대학 정체성 혁신, 지역사회 협력,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는 통합적 실천 과제를 갖고 있다. ESD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문과정 및 심화과정 특히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스템화 운영해야 한다. 기존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내용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연구와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대학-지자체-시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ESD 활성화지원센터(예)'를 구축하여 지역문제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지원을 지지해야만 시너지가 활성화된다. SDGs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실천적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사례 분석, 토론, 모의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SDGs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SG 경영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여 SDGs 달성도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4. 지속가능발전대학 모델의 정책적·교육적 함의

지속가능발전대학 모델은 정책적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적으로는 변혁적이고 통합적인 ESD를 통해 지역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한다. 평생 학습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로 확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높인다. 대학 내 지속가능성 문화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리더십 강화, 평가 체계 마련 및 지속적 피드백 기반 개선이 필수적이다

## V. 결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맞춤형 ESD 실행모델의 확립은 도시별 확산을 위한 거시적 행정력과 체계적 거버넌스 설계,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SDGs와 연계된 평가 기준 구축이 핵심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천 가

능한 ESD 교육과정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ESD 확산은 주민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교육과 실천 강화,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은 대학 정체성의 혁신,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통합하는 실천 과제를 가진다. 특히 입문부터 심화, 전문가 양성과정까지 체계화된 운영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지역 문제 해결형 학습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연구와 혁신이 요구된다. 지역별 대학-지자체-시민의 네트워크 강화와 'ESD 활성지원센터'와 같은 지원 조직 구축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책적으로 지속가능발전대학 모델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촉진하며,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과 대학 운영 변혁을 견인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변혁적이고 통합적인 ESD를 통해 학생 중심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참여 확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내 지속가능성 문화 확산과 전담기구 설치, 리더십 강화, 평가 및 피드백 기반 개선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지역맞춤형 ESD 실행모델과 지속가능발전대학 모델은 정책·교육적 측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추적 거버넌스와 교육 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과 대학,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연구의 향후 과제로 연구 대상 및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ESG 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생학습자 양성 등 실천적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법, 기본계획, 지원 체계 등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재 양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역량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한다. 학습자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선 및 정책 환류에 활용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2024)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김미경(2023).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 PBL 수업의 효과성 연구」. 『교양교육연구』, 6(17). 217-228.

- 김훈·전훈(20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ESD)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시사점」, KOFAC FOCUS 56, 한국과학창의재단
- 문지영·양채원(2022)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아시아 교육연구 23(3). 557-58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4).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학습목표」. 1-69.
- 윤종혁·김소아·김현진·서예원·안해정·김신애·박환보·유성상(2022)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I):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분야 실천 전략」
- 이두곤(2017).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개념의 비교 고찰과 ESD 개념의 제시 방식」
- 이상원·김윤태·손연아·연광흠·이성희·이수중·조영철(2019). 「2019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연계 선도 프로그램 개발 최종 보고서」,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이선경·이재영·이순철·이유진·민경숙·심숙경(2006)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대학생과 교사들의 인식.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19(1) 1-13.
- 이정석·안소은·김현노·홍한움·정행운·강선우(2019)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연구보고서」
- 이창언(2020). 「한국 지방 SDGs 교육의 현황과 과제: 평택지속가능발전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401-416.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창언(2025). 「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25. ④UN SDSN, 데이터의 숲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통찰하다」
- 이창언·이나현(2025). 「일본 지자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추진력 연구: 오카야마시(岡山市) ESD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8(1), 1-24.
- 이창언·오유석(2017). 「Post-2015 체제와 지속가능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차원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 10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67-196
- 이흥연(2020).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SDGs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다빈치미래교양학연구 12. 257-284.
- 조영철·이상원·김영순(2018).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콘텐츠 맵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185-205.

- 조정선(2025) 「지역사회 ESD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지속가능발전대학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석사논문  
지속가능발전포털
-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9). 「평택시 SDGs와 이행체계 구축 방안 연구」, 평택: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환경부(2019).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환경부(2019).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 세상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지표」
- Charles Hopkins. (2024). UNESCO Chair in Reorienting Education towards Sustainability: The story of ESD since 1992. YORK U.
- Connelly, Gerry. (2013). "Sustainability and Education Academy(SEdA)". In Rosalyn McKeown & Victor Nolet(eds.), *School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pp. 81~94. New York and London: Springer.
- Hopkins, Charles (2012). Reflections on 20+ Years of ESD. *Journal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21), 21-35.

## 영화감독의 다학제적 시선으로 본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유발형 ESD콘텐츠 전략과 사례

-국제영화제 수상작 SDGs이념에 기반 작품 Liberation We Cannot Hear (version 1 -For the Deaf community) 중심으로-

### 한국지속가능발전대회 신진주 발제문

신진주 영화감독<sup>2)</sup>

뉴욕-이스탄불 단편 국제영화제 공식선정 및 WINNER,

방콕국제영화제 쇼츠 필름 부문 공식선정 및 WINNER

아시아독립영화제 우수상 (Honorable Mention)

Athens International Monthly Art Film Festival 우수상 (Honorable Mention)

인도두바이국제영화제 무성영화 부문 공식선정

먼저 오늘 한국지속가능발전대회 학술대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로부터 듣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텐데 그 중 영화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일 것이라 사료된다. 미래 교육의 전환점과 ESD for 2030의 시대적 요구에 과연 그 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물론이고, 이제 좀 더 행동유발적인 콘텐츠로 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식 제고 및 국제사회에 어떻게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제시해보겠다.<sup>3)</sup>

2) 서울국제AI영화제 Screenwriter 부문 Gold Awards 수상한 ESG와 SDGs 분야 융합 전문가로 영화 감독,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기술, 인문학, 예술, ESG,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소외 없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포용성'으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3) 이번 발제문 내용은 필자가 현재 작성 중인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발현형 ESD 콘텐츠 혁신 전략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지식-행동 간극 극복과 미래 기술 로드맵 중 특히 ESD교육 부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발표를 하겠다.

[인사이트와 질문, 평소 필자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의 전환점과 ESD for 2030의 시대적 요구

1. ESD 이대로 괜찮을까? 2030년 이제 5년 우린 무엇을 해야할까?

1) 보고서 배경 및 ESD의 중요성 재조명 (SDG Target 4.7 중심)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이행 목표를 의미한다. 이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동인(driver)은 교육, 즉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15년간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 프로그램 등을 통해 ESD를 선도해 왔으며, 2019년에 선포된 국제 실천 프로그램인 'ESD for 2030'은 개별 SDG 목표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SD는 유엔 SDGs 중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 보장(SDG 4)'의 세부 목표 4.7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의 질 향상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지식, 태도, 행동 역량을 측정하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 ESD for 2030 프레임워크는 ESD의 목표를 개인의 변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활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정의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SD는 정책 발전,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교육자 역량 개발, 청소년 동원,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솔루션 가속화라는 5대 우선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오늘은 발제시간 관계상 일부만 언급, 추후 보고서를 통한 상세 소개자리 있을시 추가 발제 예정)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당장 지금부터 명시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은 ESD를 모든 교과에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 성공사례 : 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최종 우승 사례

## 2)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ESD- 지식 교육에서 행동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현재 교육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기술은 ESD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과거의 ESD가 지식 습득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ESD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을 실제적인 행동(Action)으로 전환하는 능력, 즉 행동 역량(Action Competence)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ESD 교육이 직면한 고질적인 한계, 특히 '지식-행동 간극(Value-Action Gap)'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나아가, 미래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동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 발현형 콘텐츠(Action-Based Content)'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ESD for 203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2030 SDGs 달성을 위한 ESD의 현주소 및 근본적 한계 진단

### 1) 현재 ESD 교육의 지식 편향성과 참여도 저하 문제

현재 많은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는 ESD는 여전히 지식 전달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SDG의 정의와 세부 목표를 이해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보는 '체험'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한다.

이러한 지나친 교육적 접근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교육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이론에 치우쳐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는 미래 교육이 AI와 디지털 기반의 개인화되고 몰입적인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수동적인 지식 습득 환경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의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행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한다.

## 2) 지식-행동 간극 (The Value-Action Gap) - ESD 실패의 핵심 원인 진단

필자가 발견한 현재 ESD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행동 간극(Value-Action Gap)’이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가치(Values)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Behaviours)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가치-행동 간극’이라 정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더 나아가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는 콘텐츠의 형태와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콘텐츠의 이질감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ESD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이는 SDGs 목표 달성에 구조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간극은 교육자들이 지식 전달자 역할에 머무르고, 학습자가 위험하거나 복잡한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3) ‘활동(Activity)’과 ‘행동(Action)’을 넘어선 과연 이 콘텐츠가 행동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지표의 변환 촉구

행동 실행(Action-Taking)을 목표로 하는 ESD의 교육적 성과를 분석할 때, 단순한 ‘활동(Activity)’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Action)’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

활동은 일시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지만, 행동은 지속적이며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과정이 행동(Action)을 배제하고 단순 활동(Activity)에 머무르게 되면 행동 역량은 개발될 수 없다. ESD for 2030이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는 단순 활동을 넘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비판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행동은 종종 학교나 지역사회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행 난이도를 가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측정 가능한 성과를 가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비판적 가치 평가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의식적인 행동(conscious acting)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

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소개할 콘텐츠인 SDGs이념에 기반 작품 Liberation We Cannot Hear (version 1 -For the Deaf community) 통해 국제사회에 행동유발형 콘텐츠로 기존 인식체계와 영화계에 돌을 던졌으며, 이번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능하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변화시킨 뿐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 3. 행동 주도형 학습 (Action-Oriented Learning) 이론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 1) 행동 역량(Action Competence) 모델의 이해와 ESD 적용

ESD가 지식-행동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 주도형 학습 (Action-Oriented Learning) 방법론을 핵심으로 채택해야 한다. 행동 역량은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적, 개인적, 또는 집단적 수준에서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SD)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동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실 중심의 학습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즉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 (learning by doing)'은 학습자를 실제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단순 암기를 넘어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팀워크 등 견고한 기술 세트를 육성한다. 경험 학습은 ESD 실행을 위한 중요한 교수·학습 이론으로 적합하며, 환경 인식 촉진 및 교육과정 적용에서의 참여 교사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행동 역량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ESD의 지루함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수동적인 지식 습득 대신,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의사결정과 실제적인 몰입을 요구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갖게 한다.

#### 2). 행동 발현형 ESD 콘텐츠의 필수 구성 요소 (Sinakou et al. 프레임워크 기반)

Sinakou, Donche, Boeve-de Pauw, and van Petegem 연구진이 개념화한 행동 주도형 ESD 프레임워크는 행동 기반의 지속가능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핵심 요소를 정의하며, 이는 미래 행동 발현형 콘텐츠 설계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현장에 맞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와 그리고 실제 최근 AI기술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는 더욱 더 실제적인 모델로 제안하려고 한다.

#### (1) 행동 실행 (Action-Taking)

행동 실행은 ESD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다.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 습득이나 기술 교육에 머물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역량 자체를 강조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에 대해 깊이 교육하여 적절한 행동의 필요성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동 실행을 촉진하는 콘텐츠는 학생들에게 측정 가능한 결과(measurable outcomes)를 설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의식적인 행동(conscious acting)을 채택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 (2) 학생 리더십 (Student Leadership)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SD 콘텐츠는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문제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콘텐츠는 학습자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책임감 있는 역할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장려받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shift)에 도달하도록 유도된다.

## (3) 동료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 참여 (Peer Interaction & Community Involvement)

지식은 사회적 환경에서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성되는 사회적 형성물이라는 사회문화 이론에 따라,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참여는 행동 역량 개발에 필수적이다. 콘텐츠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기꺼이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장 기반 교육(Place-based Education)'을 강조하는 경험 학습은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학문적 지식을 동원하는 강력한 모델을 제공한다.

## (4) 학제 간 접근 (Interdisciplinarity)

지속가능성 문제는 환경, 사회,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이므로, 단일 교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학제 간 접근은 행동 실행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역량(SC: knowingness, attitude, behavior)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행동 발현형 콘텐츠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예: 4차 산업혁명, 인터넷, 태양광 발전)를 연결하여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5) 다른 영역과의 융합 속 발견하는 살아있는 콘텐츠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오랜 연구와 현장속의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우회적인 메시지가 되, 그것을 좀 더 고급적으로 승화시켜서 감동을 주는 콘텐츠화 하되 국제적으로 인식될만한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구체적 사례는 발표당일에 언급 예정임.)

#### 4. 행동 발현형 ESD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 전략 및 로드맵 사례4)

필자는 그간의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통한 SDGs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ESD 교육의 실행 난이도(복잡성, 위험성)를 낮추고 행동의 지속성(지루함 극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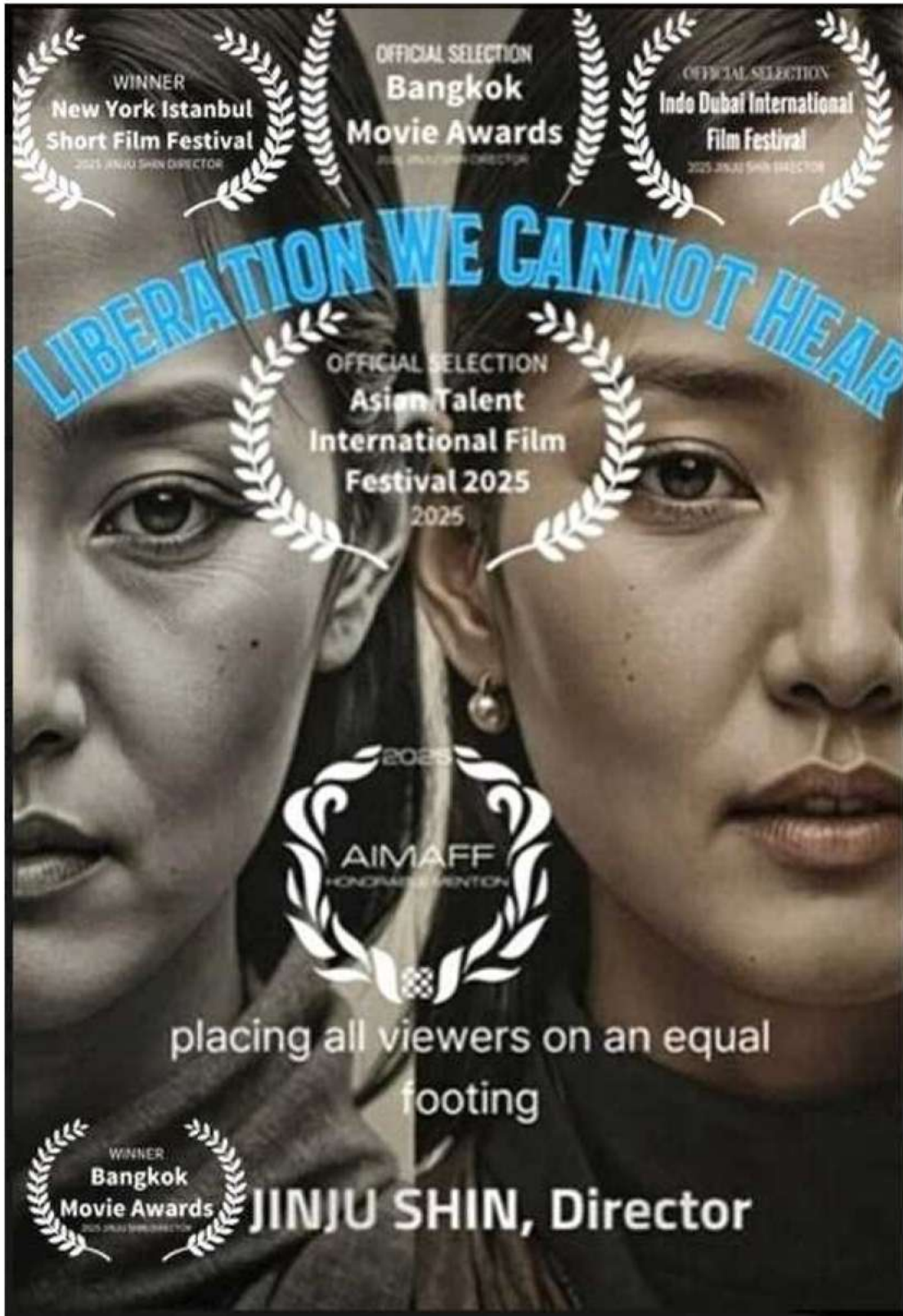
- 1) SDGs에서 착안한 인류 보편적 메시지
- 2) 때론 외면받는 SDGs 현실과 그래도 전달하여야 할 사각지대의 현실
- 3) 그간의 오랜 기간 현실에서의 캠페인, 연구, 각종 노력
- 4) 국제사회에 다가온 아주 특별한 시도
- 5) 계속 해서 만들어가는 ESD의 연장선

'SDGs-ESD-혁신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가 특정 환경적 또는 사회적 정책 결정(Action)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이 빈곤, 불평등, 생태계라는 복잡한 SDGs 상호작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Ripple effects)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 활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ESD for 2030의 목표인 '구조적 변화'를 가상 환경에서 체감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훈련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이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될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된다.

5. 국제영화제 수상작 SDGs이념에 기반 작품 Liberation We Cannot Hear (version 1 -For the Deaf community) 제작 동기 및 진행 스토리, 우수사례 도출까지

---

4) 현재 해당 작품은 파리, 미국, 런던 평가 중으로 상세내용은 당일 발표 일에 이야기할 예정임.



미래학자, 지속가능성 컬럼니스트, AI&SDGs 영화/다큐멘터리/CF 감독  
다학제 다전공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작품 감독: 신진주

[pinkpearl100@naver.com](mailto:pinkpearl100@naver.com), [oliviashin100@gmail.com](mailto:oliviashin100@gmail.com)

뉴욕-이스탄불 단편영화제 공식선정 및 WINNER  
방콕영화제 쇼츠 필름 부분 공식 선정 및 WINNER  
아시아독립영화제 우수상 (Honorable Mention)  
Athens International Monthly Art Film Festival 우수상 (Honorable Mention)  
인도두바이국제영화제 무성영화 부문 공식선정  
제 3회 Seoul International AI Film Festival Screenwriter Gold Award 수상  
경희대 스마트기술경영 석사, UIBE 공공정책 석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ESG위원회 운영이사  
한국공공ESG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한국ESG학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출판이사  
2025.03 특허청장상 수상 (개인부문 발명상)  
2025.03 카이스트 우수연구상 수상  
2025.09 산업인력공단이사장상 수상  
(인공지능 저작권분야 2024년 발표)  
공학/과학 컬럼니스트, 교육/정책 컬럼니스트  
서울대아시아태평양연구소 생태환경법 토론회  
ESD 활성화 방안의 해결점 섹션  
영화감독의 다학제적 시선으로 본 '행동 유발형' ESD 콘텐츠 전략 발제자

**FRONTIER AI LEADERSHIP INSTITUTE**

## AI와 지속가능성, ESG 다학제연구자 신진주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인공지능 SDGs 지속가능성 ESG경영

ESG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ILITY

알뜰달복 CHANGE GREEN YOU & I

AI리터러시





<https://asianiff.com/8th-season-honorable-mentions/>



# 어제가 **신진주 감독의 가치관** **사회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내다**



미래학자, 지속가능성 컬럼니스트  
AI&SDGs 다큐멘터리 감독  
경희대 스마트기술경영 석사, UIBE 공공정책 석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ESG위원회 운영이사  
한국공공ESG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한국ESG학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출판이사  
2025.03 특허청장상 수상 (개인부문 발명상)  
2025.03 카이스트 우수연구상 수상  
(인공지능 저작권분야 2024년 발표)  
공학/과학 컬럼니스트  
교육/정책 컬럼니스트  
서울대아시아태평양연구소 생태환경법 토론회  
알록달록 홈페이지 <https://lnddtqvx.manus.space/>  
신진주 소개 <https://yphvntgt.manus.space/>



## 제가 추구하는 작품은

이 Shorts 동영상 홍보

@JINJUSHINDirector

신진주 감독의 가치관 N가지 사회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내다 #신진주감독 #ai 영상제작 #다큐감독신진주 #AI리터러시 #저자특강

발제 관련 문의사항

[oliviashin100@gmail.com](mailto:oliviashin100@gmail.com), [pinkpearl100@naver.com](mailto:pinkpearl100@naver.com)

##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혁신적 확산 전략과 새로운 실천 모델

글로벌 대안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균(공간사회학자 / 전력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박선영(남도자연생태연구소 대표)

### 1. 서론 : 전환의 시대와 ESD의 요청

21세기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한 시대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19세기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C를 초과했으며, IPCC 제6차 보고서는 향후 10~20년 이내에 1.5°C 임계선에 도달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상 이상을 넘어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재해, 생물다양성 붕괴, 식량·수자원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를 동반하면서 인간 사회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지 환경적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문화·정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문명적 전환이 요구된다.

에드워드 O. 윌슨이 제안한 'Half Earth<sup>1)</sup>' 비전과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30×30(지구 육지와 해양의 30% 보호) 목표는 인간 활동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지구 생태계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경고를 제도화한 사례이다. 이는 더 이상 성장과 개발을 전제로 한 '녹색성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청이기도 하다.

생태문명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문명의 핵심 원리로 삼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친환경화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에너지 시스템, 도시·농촌 구조, 교육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적 혁신을 지향한다. 탈성장(degrowth),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지역재생(local regeneration)과 같은 담론은 생태문명이 요구하는 구체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생태문명 전환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1) 에드워드 O. 윌슨의 'Half Earth' 비전은 2016년 저서 《Half-Earth: Our Planet's Fight for Life》에서 제안된 것으로, 지구의 절반을 자연에 돌려주어야 생물다양성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과학적·윤리적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문명 전환은 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직결된다. 장소기반(place-based) 학습은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결국,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의 도전은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방향을 단순한 환경교육에서 문명적 전환을 이끄는 사회·문화적 학습운동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에코버시티얼라이언스(Ecoversities), 슈마허칼리지, 가이아에듀케이션(Gaia Education)과 같은 국제 대안대학 모델이 보여주는 생태적·세계관적 교육 혁신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한국 ESD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교육'을 넘어, 새로운 생태문명의 형성과 확산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시점이다.

한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적 흐름과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립해 오면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ESD 네트워크 참여나 국제회의 개최 등 한국은 ESD 국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ESD는 여전히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초점이 환경 문제에 치우쳐 있어, 사회·경제·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문명적 전환의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한 점이 뚜렷하다. 탈성장, 순환경제, 생태문명과 같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순한 환경 보호 교육으로 협소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위계적 체계와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지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학습자 주도성과 실험적 커리큘럼이 제한되고 현장에서의 창의적 시도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 문화를 교육의 중심에 두는 장소기반(place-based) 학습은 일부 시범 사례에 머무르며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참여·협력형 학습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대안대학, 예컨대 슈마허칼리거나 에코버시티얼라이언스처럼 지역공동체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사례는 아직 한국에서 드물다.

종합하면 한국의 ESD는 제도적 기반과 국제 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지만, 문명 전환을 견인하는 교육 혁신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관·경제·사회·생태를 통합하는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대학·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학습자의 주도성과 장기적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ESD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넘어서는 교육적·사회적 변화를 촉발하기보다, 성장 중심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반복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줄고는 한국의 ESD가 국제적 흐름과 지역적 맥락을 결합하여 혁신적 확산 전략과 새로운 실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내용의 확대나 교수법의 개선을 넘어, 지식 체계와 가치관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교육철학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의 시대정신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 핵심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줄고는 해외 대안대학의 실천 경험을 통해 축적된 혁신적 학습 모델과, 비판적 교육철학이 제시하는 사유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ESD가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문명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전환적 교육 패러다임의 이론적 토대

### 1) 생태문명과 탈성장 교육철학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교육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지속되어온 성장 중심·산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은 경제 성장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동시에 자연을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세계관을 강화해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제는 단순히 친환경 기술을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이다.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은 저서 《Half-Earth: Our Planet's Fight for Life》에서 인류가 지구의 절반을 자연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Half Earth' 비전을 제시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사회와 문명의 근본 원리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가 강조한 생태문명은 단순히 환경친화적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과 소비, 에너지 체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 그리고 문화와 교육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명적 전환을 뜻한다. 생태문명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와 모든 생명과의 상호의존을 인정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와 긴밀히 연결되는 담론이 탈성장(degrowth) 교육철학이다. 세르주 라투슈는 《Farewell to Growth》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 대신 충분성, 관계성, 지역적 자립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끊임없는 소비와 생산의 확대가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적 만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탈성장 교육철학은 학교가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에서 벗어나 생태적·공동체적 삶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철학은 성장주의적 경제 모델을 넘어 관계와 협력,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하는 새로운 학습의 길을 제시하며, 이는 곧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을 넘어 사회와 문명을 전환하는 해방적·비판적 교육의 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ESD가 생태문명과 탈성장 교육철학을 수용할 때, 교육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자립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루는 지적·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2) 유네스코 ESD 2030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네스코가 2020년에 채택한 ESD 2030 로드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 로드맵은 ① 정책과 제도의 통합, ② 학습 환경의 전환, ③ 교사의 역량 강화, ④ 청년 및 지역사회 주도 참여, ⑤ 측정과 평가 체계 구축을 다섯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제안하며, 단순한 환경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향은 ESD가 특정 교과외의 부가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과 지역 학습 공동체 전반을 관통하는 체계적·변혁적 교육 전략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퇴치, 기후 대응, 생태 보전, 인권과 평등, 평화와 협력 등 17개의 상호 연결된 목표를 제시하며, 교육이 과학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인권, 생태윤리를 함께 다루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SDGs가 성장과 개발을 여전히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제이슨 히켈은 지속가능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한국의 ESD는 SDGs가 제시하는 지구적 의제와 정책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는 비판적·창의적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 ESD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교육적 실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3) 학습자 주도·현장 기반(place-based)·다학제 교육의 가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의 지식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자 주도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탐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기르게 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같이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하다.

현장 기반(place-based) 교육은 학습의 중심을 지역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진다.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장소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식을 체득하며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살아 있는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생태적 삶의 조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토대가 된다.

또한 다학제적 학습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 문화 다양성과 같은 복합적 의제를 단일 학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학습을 통해 학생은 복잡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 해법을 찾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슈마허칼리지와 가이아에듀케이션(Gaia Education)은 생태학과 철학,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제를 전체적·통합적 시각으로 다루는 역량을 길러온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학습자 주도·현장 기반·다학제적 교육은 한국 ESD가 지향해야 할 미래형 교육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성과 생태문명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학습의 길로 평가된다.

#### 4) 지식권위 해체와 참여적 학습: 페다고지 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참여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피억압자의 교육학(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 기존의 은행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변혁의 주체가 되는 대화와 비판적 성찰의 페다고지를 제안하였다. 프레이리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억압을 깨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해방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반 일리치는 《학교 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에서 제도화된 학교를 넘어서는 교육 모델을 제안하면서 자율적 학습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교가 지식의 독점과 위계 구조를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개방적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적 교육학의 시각은 지식 권위의 위계적 구조를 해체하고 교사와 학생, 지역과 세계가 수평적으로 지식을 교류하는 생태적 학습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ESD가 이 철학을 수용할 때, 학습은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공동체적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문화적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즉, 교육은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실천이 된다.

<전환적 교육 패러다임의 이론적 토대의 주요내용>

구분	핵심 개념	주요 내용 및 핵심 주장	한국 ESD 적용 의미
1. 생태문명과 탈성장 교육철학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 탈성장(De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산업 중심 교육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불가</li> <li>• 생태문명: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문명의 핵심 원리로 삼아 생산·소비·에너지·도시·문화 재구성</li> <li>• 탈성장: 충분성·관계성·지역적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 소비·경쟁 중심 교육을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보호를 넘어 문명 전환을 이끄는 해방적·비판적 교육으로 ESD 재정의</li> <li>• 성장주의를 넘어 공동체적 삶과 생태적 가치 중심의 커리큘럼 설계</li> </ul>
2. 유네스코 ESD 2030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D 2030,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 2030 로드맵: 정책 통합·학습 환경 전환·교사 역량 강화·청년·지역 참여·평가 체계 등 5대 전략 제시</li> <li>• SDGs: 빈곤·기후·평등·평화 등 17개 목표 통합- 비판: 경제 성장 중심의 전체를 유지하여 생태문명 전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의 성과를 수용하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비판적·창의적 재구성 필요</li> <li>• 교육을 단순 환경교육에서 사회·경제·문화 전환의 매개로 확장</li> </ul>
3. 학습자 주도·현장 기반(place-based)·다학제 교육	Leamer-centered, Place-based, Transdisciplinary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주도: 문제 정의와 해결 과정에서 성찰·책임 강화</li> <li>• 현장 기반: 지역 생태·문화·역사에서 지식을 경험</li> <li>• 다학제 학습: 기후·경제·문화 등 복합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지역을 연결한 통합형 학습 생태계 구축</li> <li>• 다양한 지식과 삶의 영역을 잇는 커리큘럼 혁신 추진</li> </ul>
4. 지식권위 해체와 참여적 학습: 페다고지 전환	Critical Pedag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은행식 교육을 비판하고 대화와 비판적 성찰을 통한 해방적 학습 제안</li> <li>• 제도화된 학교를 넘어 자율적 학습 공동체와 네트워크 강조</li> <li>• 지식 권위 해체, 교사와 학생·지역과 세계 간 수평적 관계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생태적 학습 공동체로 ESD 재편</li> <li>•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적 변화를 이끄는 사회·문화적 힘으로 교육 재정립</li> </ul>

3. 사례탐색 : 세계 대안대학의 ESD를 중심으로

1) Global Ecovillage Network(GEN)와 Gaia Education (GEDS) - 글로벌 SDGs 학습네트워크의 구축

(1) GEN의 교육 철학과 학습 생태계

Global Ecovillage Network(GEN)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생태공동체(ecovillage), 전환마을(Transition Town)등을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GEN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아보며 배우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상호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환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따라서 GEN의 교육은 이론 중심의 전달식 모델이 아니라, 삶과 학습이 통합된 생태적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지향한다. GEN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경제·문화·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 문명적 전환

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GEN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비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실천적 차원에서 그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 (2) Ecovillage Design Education(EDE) 프로그램

GEN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Ecovillage Design Education(EDE)이다. 이 프로그램은 GEN과 가이아 에듀케이션(Gaia Education)이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표준 교육 모델로 현재 5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4,000명 이상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 EDE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4차원 통합 구조(4-Dimensional Curriculum)”를 특징으로 한다. 이 네 가지 차원은 서로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순환적 학습 시스템을 이룬다.

### <Ecovillage Design Education(EDE)의 4차원 교육구조>

구분	교육 차원	주요 내용 및 학습 목표
1	세계관(World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과 자연, 우주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통합적 세계관을 형성함</li> <li>•영성, 문화, 예술, 전통의 지혜를 통합</li> <li>•생태문명적 가치, 윤리, 의식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둠</li> </ul>
2	사회(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 공감, 공동체 내 의사소통 능력 향상</li> <li>•갈등 전환과 집단적 리더십 훈련</li> <li>•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신뢰 구축.</li> </ul>
3	생태(Ec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농업, 퍼머컬처, 생태건축, 재생에너지 설계 등 실천적 기술 습득</li> <li>•지역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자원 순환 체계 이해</li> <li>•“살아 있는 장소”를 통해 배우는 place-based learning.</li> </ul>
4	경제(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협동조합 모델 학습</li> <li>•경제적 회복력(resilience)과 공동체 자립 전략 탐구</li> <li>•돈보다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대안경제 이해.</li> </ul>

이 커리큘럼은 ‘나-공동체-지구’라는 다층적 관계망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디자인(Design for Sustainability)을 배우는 통합적 학습 경로로 설계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 4차원 교육구조를 통해 세계관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협력·생태적 실천·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3) 학습 방식: 체험 중심·공동체 기반의 전환학습

EDE의 학습 방식은 체험(Experiential Learning), 공동체 참여(Community-based Learning), 현장 기반 학습(Place-based Learning)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된다. GEN은 학습자가 실제 생태공동체나 전환 마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농업, 생태건축,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공동의사결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이론은 실천 속에서 검증되고 실천은 다시 성찰을 통해 이론으로 확장된다. 또한 GEN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 대신, 상호학습(peer learning) 구조를 강조

한다. 모든 참여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자 배우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집단 지혜를 축적한다. 이 방식은 프레이리(Paulo Freire)가 제시한 “대화과 해방의 교육”을 실천하는 모델로 학습의 목적을 지식 축적이 아닌 인식의 변혁(conscientization)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책 확산 구조

GEN은 교육을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를 정책적·제도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UNESCO, UNEP, 유럽연합(EU)과 협력하여 ESD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GEN은 아프리카·유럽·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공동체 리더십 과정, 지역재생형 경제 교육, 청년 리빙랩(Living Lab)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접근은 ESD를 국가 단위의 제도적 정책에서 지역 단위의 실천적 학습으로 재구조화하며, “교육을 통한 생태전환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5) GEN의 ESD 구조와 운영 체계

GEN의 ESD 구조와 운영 체계는 전 세계 생태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층적 학습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은 4차원 통합 교육 구조(세계관·사회·생태·경제)에 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각각 인간의 의식(세계관), 공동체 관계(사회), 자연 생태계(생태), 그리고 지역 순환경제(경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학습자가 삶 전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도록 설계된 체계이다.

운영 면에서 GEN은 글로벌-지역-공동체 단위의 네트워크형 구조를 갖는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UNESCO, UNE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교육 기준과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각국의 GEN 지부가 현지화된 ESD 프로그램(EDE, Gaia Education 등)을 운영하며, 공동체 차원에서는 실제 생태마을, 전환마을, 교육센터가 현장 기반 학습과 체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즉, GEN의 ESD 구조는 “정책-교육-실천”이 하나로 연결된 순환형 시스템으로 지식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보는 학습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GEN이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GEN의 ESD 교육구조>

구분	핵심 내용	설명
교육 철학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 생태적 전환, 공동체 중심의 학습	생태문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습자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을 동시에 추구
학습 대상	공동체 구성원, 청년, 교사, 활동가 등 다양한 연령과 배경	학교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학습의 장으로 확장
교육 구조	4차원 통합 구조(세계관·사회·생태·경제)	학습의 네 차원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순환적 생태시스템을 형성
학습 방식	현장 기반(place-based), 체험 중심, 공동체 참여형	실천과 성찰을 통합한 “삶의 교육” 모델 구현
운영 체계	글로벌-지역 연계 네트워크	GEN 본부 - 지역지부 - 공동체 단위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
핵심 목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지역 자립, 생태적 회복력, 문화 다양성 존중	개인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재생, 나아가 지구적 전환을 촉진

## 2) Schumacher College와 Schumacher College Wild - 제도 밖의 온전한 배움

### (1) 슈마허 칼리지의 전통과 철학적 뿌리

영국 데번(Dartington, Devon)에 위치한 슈마허 칼리지(Schumacher College)는 경제학자 E. F. 슈마허(E. F. Schumacher)의 사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를 현대 교육에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대안대학이다. 슈마허는 기술과 경제가 인간의 규모를 넘어설 때 문명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하며, “교육은 다시 인간의 손이 닿는 크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을 이어받은 설립자 사티시 쿠마르(Satish Kumar)는 슈마허 칼리지를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닌, 삶의 예술을 배우는 공동체로 설계했다. 그는 “교육은 머리에만 머물면 무겁고, 가슴으로 내려올 때 자유로우며, 손으로 옮겨질 때 실현된다”고 말하며, 슈마허 교육의 핵심 구조를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의 통합적 배움으로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슈마허 칼리지가 제시한 전체론적(holistic) 교육 철학의 축이다. 머리(Head)는 지적 탐구와 사유를 의미하며 학문적 이해를 통한 세계관의 확장을 상징한다. 마음(Heart)은 감성, 공감, 영성, 예술적 직관을 포함하는 내면의 학습 차원이다. 손(Hands)은 실제 행동과 실천을 통해 배움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 통합 구조는 학문과 실천, 사유와 감각, 이론과 경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교육의 형태를 만든다.

## (2) Schumacher College Wild: 노마드형·장소기반 통합교육

2024년, 슈마허 칼리지는 다트링턴 트러스트(Dartington Trust)와의 제도적 결별을 계기로 'Schumacher College Wild'라는 이름으로 독립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방향 전환, 즉 제도 밖으로 나와 '야생의 배움'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Wild'는 노마드형(Nomadic) 학습 구조를 통해 고정된 교실과 캠퍼스를 벗어난다. 학생들은 숲, 해안, 농장, 예술가의 작업실 등 다양한 장소를 순환하며 배우며, 각 장소가 곧 스승이 된다. 즉, '장소(place)'가 학습의 대상이자 교재인 동시에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가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장소기반(place-based) 통합교육은 생태적 삶의 지혜를 책이 아닌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면서 학습자에게는 지식을 넘어 관계성과 책임감을 길러준다. 슈마허 칼리지가 말하는 '와일드(Wild)'는 바로 이처럼 자연과 더불어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학습의 자유로운 흐름을 상징한다.

## (3) 생태학·시·경제학의 학제 융합과 '머리-마음-손'의 확장

'Schumacher Wild'의 또 다른 특징은 학제 간 통합(Transdisciplinary Learning)이다. 기존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생태학, 경제학, 철학, 시(詩), 사회학, 예술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배울 때 동시에 시를 쓰고 예술작업을 병행하면서 경제학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명상과 토론을 결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슈마허 칼리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머리-마음-손(Head-Heart-Hands)'의 통합 구조를 더욱 확장한 형태이다.

이전의 슈마허 교육이 개인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했다면, 'Schumacher Wild'는 여기에 장소(place)와 관계(relationship)의 차원을 추가하여 학습이 개인적 체험을 넘어 생태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제의 통합 교육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머리(Head)는 생태학·경제학·철학·문명론 등 지적 사유의 확장시키는 학문적 탐구를 의미하며, 마음(Heart)은 시·음악·명상·감정의 언어를 통해 세계를 느끼는 감수성의 회복을 위한 예술과 명상을 의미한다. 손(Hands)은 농사·건축·지역(Local) 프로젝트 등 몸으로 배우는 행동적 학습을 위한 실천과 행위를 말하며, 장소(Place)는 배움이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식이 삶과 맞닿는 장으로 확장을 위한 학습의 배경이자 교사를 의미한다.

### <Schumacher Wild 통합교육 작동 과정>

구분	핵심 의미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방식 및 특징
머리 (Head)	지적 탐구와 사유의 확장	생태학, 경제학, 철학, 문명론, 시스템 사고 등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의, 세미나, 토론 중심 학습
마음 (Heart)	감성·영성의 회복과 내면의 성찰	시, 음악, 명상, 예술적 표현, 감정의 언어, 공동체 대화	예술·명상·대화 등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는 감수성 훈련
손 (Hands)	실천과 행동을 통한 배움	농사, 생태건축, 지역 프로젝트, 공동체 활동, 퍼머컬처 실습	‘몸으로 배우는 학습’, 행동 중심의 체험과 공동 실천
장소 (Place)	배움의 배경이자 교사로서의 공간	숲, 농장, 마을, 예술공간, 해안 등 지역 생태환경	자연과 공동체가 교육의 주체가 되며, 학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짐

이 확장된 구조는 단순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인식(Head) - 감정(Heart) - 행동(Hands) - 맥락(Place)>을 통합하는 살아 있는 전체학습(living whole learning)의 체계로 발전하였다.

#### (4) Schumacher Wild와 Totnes: 지역 속의 학습 생태계

‘Schumacher Wild’는 인근의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sup>2)</sup>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은 토트네스의 농장, 지역 상점, 공동체 거버넌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토트네스는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동체 구조를 몸소 경험하는 살아 있는 교재의 역할을 한다. 토트네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흙(Soil), 영혼(Soul), 사회(Society)’라는 슈마허의 세 가지 교육 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 
- Soil(흙): 지역의 토양과 생태적 회복을 배우는 생명 교육
  - Soul(영혼): 내면의 성찰과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존재의 전환
  - Society(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민주적 실천을 학습하는 시민적 교육
- 

이러한 구조 속에서 ‘Schumacher Wild’의 학생들은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교육적 주체로 성장한다.

#### (5) 교육의 4차원 통합 구조

‘Schumacher Wild’의 커리큘럼은 생태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4차원 통합 구조(세계관·사회·생태·경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네 영역은 서로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룬다.

2) 토트네스에 대한 정보는 “김성균(2025), <핀드혼을 만난 토트네스>, 이담북스”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 <Schumacher Wild의 4차원 통합구조>

차원	핵심 목표	주요 내용	학습 방식
세계관 (Worldview)	인식의 전환과 존재의 성찰	명상, 시, 철학, 예술, 영성 교육	내면 중심 학습, 토론, 저널링
사회 (Social)	공동체성과 민주적 참여	비폭력 대화, 공동체 리더십, 참여 거버넌스	참여형 워크숍, 집단 실천
생태 (Ecological)	자연과의 관계 회복	퍼머컬처, 생태건축, 재생농업	현장 체험, 실습 중심 교육
경제 (Economic)	지역 순환과 탈성장	지역화폐, 협동조합, 공유경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역연계 실천

### 3) Ecovercities Alliance – 대학을 다시 묻는 세계적 학습운동

#### (1) “대학을 다시 묻다(Re-imagining Higher Education)” 운동의 등장

Ecovercities Alliance는 전 세계의 대안적 학습 공동체와 생태적 교육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로 기존 고등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활동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대학을 다시 묻다(Re-imagining the University)”라는 구호 아래 전통적인 대학이 지식의 위계, 경쟁, 분과 중심주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Ecovercities가 지향하는 교육은 인간과 자연, 공동체와 지식이 공존하는 삶의 배움터로서의 대학이다. 그들은 “만약 대학이 우리의 생태계, 문화, 경제, 영성의 다양성을 섬기는 공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위 중심의 제도교육을 넘어 관계와 실천 중심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운동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배우고 전환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적 전문성보다 지역적 맥락, 공동체의 필요, 생태적 회복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 규모의 학습 구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2) 기존 대학과의 차별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위계에서 공동창조로

Ecovercities Alliance가 제시하는 교육 방식은 기존 대학 시스템과 명확히 다르다. 전통적인 대학이 교수 중심의 위계 구조, 학문 간 분리, 학위·학점 중심의 경쟁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하여 Ecovercities는 협력, 공존, 공동창조(co-creation)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 생산을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로 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공동체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식을 함께 만드는 학습자-창조자(learner as creator)로서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은 더 이상 교실 안의 강의가 아니라, 학습자와 공동체,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대화의 장이 된다.

또한 Ecoversties는 학문 분과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생태학·경제학·영성·지역학 등이 통합되는 다학제적 학습을 지향한다. 학습 장소 역시 캠퍼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마을, 생태농장, 공동체 센터, 문화예술 공간 등 삶이 있는 장소(place-based learning)로 확장시킨다. 이는 교육을 사회와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다시 배우는 과정으로 되돌리는 시도이다.

### <Ecoversties Alliance의 특징>

구분	기존 대학	Ecoversties Alliance
교육 철학	경쟁, 분과 중심, 성장 지향	협력, 통합, 생태적 공존
지식 생산 방식	교수 중심, 위계적 구조	학습자-공동체 중심의 공동창조
학습 공간	캠퍼스 중심	지역, 생태공동체, 마을 등 장소기반 학습
평가 체계	학점, 학위, 성과 중심	과정, 성찰, 관계 중심 평가
학문 구조	분과 학문 구분	다학제적·통합적 접근
교육 목표	개인 경쟁력 강화	공동체 회복과 문명 전환

#### (3) 400여 개 대안 학습 공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Ecoversties Alliance는 현재 40여 개국에서 약 400개 이상의 대안 학습 공간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이들 기관은 대학, NGO, 생태공동체, 예술학교, 영성센터, 토착 지식 기반 학습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생태적 맥락 속에서 지속가능한 학습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합체를 넘어 상호학습(peer learning)과 공동 실천(co-living, co-learning)의 장이다. 참여 기관들은 학습자 교류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지역기반 학습여행(learning journeys) 등을 운영하며 학습자가 지역의 토착 지식과 생태적 지혜를 직접 경험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을 “정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관계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 (4) 공동 실천과 교육 혁신의 현장

Ecoversties Alliance의 교육은 기존 대학처럼 지식을 전달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체계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삶의 방향을 탐구하고 지역과 공동체, 생태계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전환적 학습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핵심은 학습자의 자율 설계(Self-Designed Learning)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목표와 방법, 평가를 스스로 정하며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한다. 배움은 개인의 관심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결합한 실천적 여정으로 삶과 배움이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전인적 배움(Whole-Learning)을 통해 지식, 감성, 몸, 공동체, 생태가 통합된 배움을 지향한다. 이론과 실천, 사고와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며, 학습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가는 행위'로 확장된다. 장소 기반 학습(Place-based Learning) 역시 Ecoversties의 핵심이다. 교실을 벗어나 마을, 농장, 예술공간 등에서 배우며, 장소를 배움의 교사로 삼는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생태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생태적 시민성을 기른다.

다학제적 통합(Inter/Trans-disciplinary Learning)은 생태학·사회학·예술·철학·토착 지식 등을 연결하여 서구 중심 지식체계를 넘어서는 접근을 시도한다. 학문이 아닌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재구성하며, 다양한 지식과 세계관이 공존하는 배움의 장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평가(Process-oriented Assessment)는 결과보다 성찰과 관계, 실천의 변화를 중시한다. 포트폴리오, 공동체 피드백, 자기 평가 등을 통해 '얼마나 배웠는가'가 아닌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학습을 평가한다.

Ecoversties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식·실천·성찰이 하나로 순환하는 생태적 학습 구조를 형성한다. 그들의 교육은 경쟁이 아닌 협력, 결과가 아닌 여정, 지식이 아닌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며, '배우는 교육'을 넘어 '살아내는 교육'으로 완성된다.

### <Ecoversties의 커리큘럼>

항목	내용 요약
자율 설계 학습 (Self-Designed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표·방법·평가를 직접 설계</li> <li>•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주도형 학습 구조</li> <li>• 학습자는 설계자이자 참여자이자 평가자의 역할 수행</li> <li>• 개인의 관심과 공동체의 필요를 결합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여정</li> </ul>
전인적·전체론적 배움 (Whole-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뿐 아니라 감성·몸·공동체·생태의 통합적 성장 추구</li> <li>• 학문적 이해와 삶의 실천을 결합한 '배움의 통합'</li> <li>• 이론·체험·성찰·행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li> <li>• 학습이 곧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교육 철학</li> </ul>
장소 기반 학습 (Place-based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생태계·문화·공동체를 학습의 중심으로 설정</li> <li>• 마을, 농장, 예술공간 등 현장 기반 교육 실천</li> <li>• 장소와 관계 속에서 배움을 체득("place as teacher")</li> <li>•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생태적 시민성 함양</li> </ul>
다지식체계 통합 (Inter/Trans-disciplinary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 간 경계를 해체하고 지식을 융합</li> <li>• 생태학·사회학·예술·철학·토착지식 등을 통합 학습</li> <li>• 서구 중심 지식체계를 넘어 다문화·다세계관적 접근</li> <li>• 학문이 아닌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설계</li> </ul>
과정 중심 평가 (Process-oriented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결과보다 학습 과정·성찰·협력·실천을 중시</li> <li>• 학점·시험 대신 포트폴리오, 공동체 피드백, 자기 평가 활용</li> <li>• 학습자의 내적 성장과 관계적 변화를 주요 성과로 평가</li> <li>• 배운 것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철학</li> </ul>

#### 4) 기타 대안 모델: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향한 실험들

Ecoversities Alliance는 전 세계 다양한 대안적 교육 실험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의 DNS(The Necessary Teacher Training College), EU의 Ecoprise 프로그램, 세르비아의 Forest University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과 배움의 통합’, ‘생태적 전환’, ‘공동체 기반 학습’을 실천하는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1) 덴마크 DNS - 교사를 다시 정의하는 공동체형 학습

덴마크의 DNS(The Necessary Teacher Training College)는 1972년 덴마크 Tvind 공동체에서 시작된 대안 교사양성 기관으로 “필요한 교사(The Necessary Teacher)”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NS의 교육 철학은 ‘배움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원리에 기초하며 전통적인 교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4년제 프로그램은 이론 학습, 현장 실습, 공동체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며 학습의 주체가 된다. 이들은 교실 안에서만 배우지 않고 국제 봉사활동, 지역 프로젝트, 사회문제 탐구 등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 주도형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공동체 속에서의 협력과 자율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삶의 교사’를 양성한다.

DNS의 교육은 한국의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이론·실천 통합형 커리큘럼, 공동체 기반 학습, 비경쟁적 학습 문화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 (2) EU Ecoprise - 생태적 기업가정신과 재생적 설계

Ecoprise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생태공동체(Ecovillage)의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은 ‘Ecoprise Designer’라는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재생적 설계를 실무 중심으로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커리큘럼은 온라인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주로 순환경제, 재생 농업, 사회적기업, 지역 자립경제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학습자는 단순히 생태적 원리를 배우는 데 그

치지 않고, 실제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Ecoprise는 생태적 사고와 경제적 실천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생태적 기업가(eco-entrepreneur)’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ESD 맥락에서 볼 때, 이 모델은 사회적 경제와 생태 전환 교육의 융합, 지역 순환경제 기반의 실습형 학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형 교육 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3) 세르비아 Forest University – 숲 속의 비판적·생태적 학습

세르비아의 Forest University는 ‘학교’라기보다 숲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실험장(living laboratory)에 가깝다. 이곳의 교육 철학은 비판교육학(Critical Pedagogy), 생태교육학(Eco-pedagogy), 탈식민교육(Decolonial Pedagogy)을 결합한 형태로 “숲과 더불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Forest University의 교육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감각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숲, 강, 들뜬 등 다양한 생태 공간에서 배움을 체험하며 자연이 곧 교사가 되는 ‘장소기반 학습(place-based learning)’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론보다 경험, 경쟁보다 협력, 정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모델은 지역 생태계를 단순한 교육의 배경이 아니라, 지식 생산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국의 ESD에 강한 함의를 던진다. 즉, 생태공간을 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참여형 생태교육 모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4) 세 모델의 공통성과 시사점

이 세 가지 모델은 형태와 지역은 다르지만, 모두 삶과 배움의 통합, 학습자 주도성, 공동체 및 생태기반 학습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한다. 덴마크의 DNS는 교사교육의 혁신을, Ecoprise는 생태경제적 전환을, Forest University는 생태철학적 학습 실험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지역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 전인적 커리큘럼 통합, 생태적 실천 중심의 전환교육 –에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세 대안교육 모델의 주요특성>

구분	덴마크 DNS (The Necessary Teacher Training College)	EU Ecoprise	세르비아 Forest University	주요 특징
교육 철학	교사를 삶의 실천가로 재정의 / 배움은 삶 속에서 이루어짐	생태공동체 원리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융합 / 재생적 설계 지향	숲과 자연을 교사로 삼는 생태·비판 교육학 / 탈식민적 사고 확장	삶과 배움의 통합, 생태적 전환, 실천 중심 학습
학습 방식	공동체 생활, 현장 실습, 팀 프로젝트 중심 / 자율적 학습	온라인·현장 병행형 실습 /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장소기반 학습, 자연과의 직접적 경험, 감각적 학습	참여형·현장형·체험형 학습 구조 / 공동체 참여 강조
학습자 역할	학습자=설계자 / 자기주도·협력적 팀 기반 학습	학습자=혁신가 / 생태적 기업가로서 프로젝트 수행	학습자=탐구자 / 자연 속에서 배우는 실험적 존재	학습자 주도성과 자율성 강조 / 교사는 촉진자 역할
핵심 내용 영역	교육철학, 사회변화, 공동체운명, 국제이슈	순환경제, 사회적 기업, 생태디자인, 지역재생	생태철학, 비판교육, 영성, 지역문화	이론+실천의 통합 /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주제화
학습 공간	학교와 지역, 국제 현장 병행	온라인 학습 + 지역 공동체 실습장	숲, 들뜰, 마을, 예술공간 등 자연환경	장소기반(place-based) 학습 / 현장 중심
평가 방식	팀 리포트, 자기 성찰, 협력 평가	실습 포트폴리오, 사례 분석, 동료 피드백	경험 저널, 참여 기록, 구술 평가	과정 중심·성찰 중심 평가
핵심 목표	실천적 교사 양성 / 사회 변화 주도	생태적 기업가 양성 / 지역 회복력 강화	생태적 사고 확장 / 존재와 관계의 재발견	지속가능한 삶의 역량 개발 / 지역 기반 전환

### 5. 한국 ESD에 주는 시사점

세계 각지의 대안교육 모델들은 교육이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자 사회적 전환의 기반임을 보여준다. Global Ecovillage Network(GEN)와 Gaia Education(GEDS), Schumacher College와 Schumacher College Wild, Ecoversties Alliance, 그리고 덴마크 DNS·EU Ecoprise·세르비아 Forest University 등의 사례는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도 **공동적으로 삶과 배움의 통합, 학습자의 주도성, 생태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학습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오늘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나아가야 할 전환적 비전을 제시한다.

우선,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였다면 대안교육 모델들은 교육을 삶의 과정이자 실천의 장으로 인식한다. GEN과 Gaia Education의 교육과정은 **공동체 생활, 생태 실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몸으로 배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학습은 교실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과 자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한국의 ESD는 교과 중심의 환경교육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활 기반 학습 생태계(living learning ecosystem)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주도성과 공동창조적 학습문화는 이들 사례의 핵심이다. Schumacher College의 “머리 - 가슴 - 손 - 장소(Head - Heart - Hands - Place)” 통합 구조는 지식, 감정, 실천, 장소 경험을 하나로 잇는다. 학습자는 자신이 배우는 이유를 직접 설정하고, 실천과 성찰을 반복하며 배움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Ecoversities Alliance 역시 ‘자율 설계 학습(Self-designed learning)’을 통해 학습자가 교육과정의 공동 설계자이자 지식의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ESD에도 깊은 함의를 가진다. 이제 학습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배움의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형, 현장참여형, 공동체 기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 학습문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교육 모델들은 또한 통합적(holistic)·다학제적(trans-disciplinary)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coprise와 Gaia Education은 생태학, 사회학, 예술, 경제학, 철학, 영성 등을 결합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지역붕괴와 같은 복합문제를 다층적으로 접근한다. Schumacher College 역시 경제학과 생태학, 문명론과 시학이 한 교과 안에서 교차하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지식의 단절과 분절을 극복하고 있다.

한국의 ESD도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형 커리큘럼(Transition Curriculum)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소(place)를 배움의 핵심 매개로 삼는 접근은 한국 ESD의 미래에 중요한 영감을 준다.

Forest University의 교육은 숲과 강, 마을이 곧 교사이며, 배움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Schumacher College Wild는 학문적 사유를 자연 속 경험과 결합시켜 장소를 통해 사유하고 몸으로 배우는 과정을 강조한다. GEN 역시 지역의 생태공동체를 학습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한국에서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생태자원, 문화공간, 마을공동체를 학습의 장으로 삼는 장소기반 학습(place-based learning)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지역이 곧 학교이고, 공동체가 교실이 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평가 방식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DNS와 Ecovercities, Ecoprise 등은 **결과보다 과정, 성취보다 성찰을 중시하는 질적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습자는 포트폴리오, 일지, 공동체 피드백 등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사회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되돌아본다. 한국의 ESD 평가체계 역시 단순한 지식습득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변화, 협력,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는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관계와 성장 중심의 평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 DNS는 교사의 역할 전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동반자이자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배우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교사 양성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ESD 교사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생태적 감수성과 성찰적 리더십을 지닌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자로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현실적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GEN, Ecovercities, Ecoprise는 모두 국가·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통해 운영된다. GEN은 UN SDGs와 로컬 중심의 생태마을과 연결되어 있으며, Ecovercities는 400여 개 학습공동체를 연결되어 있다. Ecoprise는 유럽 각국의 대학과 NGO가 협력하는 연합체로 관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이 정책, 시민사회, 공동체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모델은 한국 ESD의 제도 설계에도 참고가 된다.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교,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성 교육을 설계·실행하는 ESD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들 세계적 사례가 한국의 ESD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지속가능성을 배우는 교육(learning about sustainability)**”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내는 교육(learning to live sustaina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교과가 아니라 문화이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이며,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제도적 과목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한국은 교육을 통해 문명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GEN, Schumacher College, Ecovercities, DNS, Ecoprise, Forest University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공통된 메시지며, 교육이 지

구적 위기 시대에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공공적 역할에 대한 실질적 답변이라 할 수 있다.

#### 4. 한국형 ESD 혁신적 확산 전략과 새로운 실천모델

##### 1) 혁신적 확산 전략

한국 ESD의 혁신은 교육을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학습운동’으로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교육의 목표뿐 아니라 철학, 구조, 실행 방식 전반의 전환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ESD는 더 이상 환경문제를 학습하는 과목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학습 생태계(living learning ecosystem)가 되어야 한다. 학교,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생태공간이 함께 연결된 “살아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주도성과 자율적 학습 생태계의 구축**이 핵심이다. Global Ecovillage Network(GEN)와 Ecoversities Alliance가 보여주듯, 교육의 중심은 학습자에게 있다. 한국 ESD도 교사 주도형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주제를 정하고 탐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자기설계형(Self-designed) 학습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에 학습자가 직접 주제를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는 ESD Design Studio나 Living Lab을 도입하고, 학생·교사·지역활동가가 함께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는 참여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셋째, **다학제적·통합형 커리큘럼의 혁신**이 요구된다. Gaia Education(GEDS)의 4차원 통합 구조(세계관 - 사회 - 생태 - 경제)는 지속가능성을 인문학적 사유, 사회적 관계, 생태적 실천, 경제적 전환의 통합적 틀로 다루는 모델이다. 한국 ESD도 분절된 교과 체계에서 벗어나, 기후·경제·문화·철학이 융합된 전일적 교육 구조(whole-systems education)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실 수업과 지역 현장이 연결되고, 학문과 실천이 통합되는 전환적 교육이 가능해진다.

넷째, **장소기반(place-based) 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 Schumacher College Wild와 Forest University는 “장소가 교사”라는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ESD 역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 숲, 강, 농장, 도시재생지, 문화유산 등을 학습의 장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은 지역의 생태·문화·경제적 맥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경험하고, 지역 자체가 교육의 주체로서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다섯째, **평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덴마크 DNS와 Ecovercities의 사례처럼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 관계, 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공동체 피드백, 자기평가 등 질적 평가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얼마나 배웠는가”보다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을 살아내는 학습자의 성장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평가이다.

여섯째, **교사와 교육자의 역할 전환**이 필수적이다. DNS가 보여주듯,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이며 공동 탐구자이다. 교사는 생의 학습을 안내하는 조력자이자, 스스로 현장에서 배우는 실천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의 현장 기반 ESD 연수, 생태감수성 교육,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 현장 - 공동체를 잇는 다층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GEN과 Ecovercities는 국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국 ESD도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실천, 시민사회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ESD 협의체 또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환경·문화·경제정책이 하나의 전환 생태계로 작동할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비로소 실질적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

### <한국형 ESD 혁신적 확산 전략>

세부 영역	주요 내용	한국형 적용 방향
1. 교육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중심에서 생태문명 전환 교육으로 변화</li> <li>• 지식 전달에서 삶의 실천으로 전환</li> <li>• 학교·시민사회·공동체가 연결된 사회적 학습운동으로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를 지역·시민 주도형 학습생태계로 재정립</li> <li>•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 구조” 구축</li> </ul>
2. 학습자 주도성과 자율 학습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교육 설계자이자 실행자</li> <li>• Self-designed / Project-based Learning 확산</li> <li>• 참여형 커리큘럼 기획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교사·시민이 공동 기획하는 ESD 플랫폼 운영</li> <li>• 학습자가 주제를 스스로 설계·실험하는 Design Studio 구축</li> </ul>
3. 다학제적·통합형 커리큘럼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ia Education의 4차원 구조(세계관·사회·생태·경제) 기반</li> <li>• 학문 간 경계 해체 및 실제 문제 해결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과학·경제 연계형 커리큘럼 개발</li> <li>• 지역 문제 기반의 통합형 프로젝트 운영</li> </ul>
4. 장소기반·지역연계 학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st University·Schumacher College Wild 사례 반영</li> <li>• ‘장소가 교사인 학습 구조</li> <li>• 지역 생태·문화 자원을 교육 자원으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ESD Field Campus 구축</li> <li>• 마을 중심의 학습거점(Local Learning Hub) 운영</li> </ul>
5. 과정 중심 평가와 성찰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중심에서 과정·관계 중심으로 전환</li> <li>• 포트폴리오·피드백 중심의 질적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의 변화·참여 중심 평가체계 도입</li> <li>• 공동체 피드백을 포함한 다층 평가모델 구축</li> </ul>
6. 교사·교육자 역할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촉진자(facilitator)·공동 탐구자</li> <li>• 학습자와 함께 배우는 실천자형 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기반 교사 연수 및 ESD 리더십 강화</li> <li>• Teacher as Practitioner 프로그램 제도화</li> </ul>
7. 다층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 현장 - 공동체 연계형 학습 구조</li> <li>• 중앙·지방·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지자체 - 시민이 함께하는 ESD 협의체 구성</li> <li>• 교육·환경·문화·경제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li> </ul>

## 2) 새로운 실천 모델

위의 확산 전략이 제도적 구조의 재설계를 의미한다면, 새로운 실천 모델은 그러한 철학을 구체적 학습과정과 현장 활동으로 구현하는 한국형 ESD 실천 구조이다.

첫째, **한국형 ESD 커리큘럼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이 모델은 Gaia Education의 4차원 학습 구조를 기반으로 ① 세계관(철학·윤리·가치교육), ② 사회(시민력·협력·거버넌스), ③ 생태(재생농업·에코건축·기후적응 실습), ④ 경제(순환경제·사회적경제·ESG 교육)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단순한 ‘환경 지식’이 아니라, 생태·사회·경제를 아우르는 삶의 총체적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지역기반 학습모델**이 중요하다. “마을이 학교이고, 지역이 교실이다”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태공간, 문화유산,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ESD Field Campus나 Community Learning Route를 운영하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형 지역혁신 모델이 가능하다.

셋째, **학습자 주도형 실험실(Learner-driven ESD Lab)**을 제안한다. 이 실험실은 학교,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며, 기후, 에너지, 먹거리, 자원순환 등의 지역문제를 주제로 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과 시민이 협력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된다. 예를 들어, “로컬 순환경제 랩”이나 “청년 기후일자리 랩” 등은 실제 사회 변화와 학습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넷째, **과정 중심의 학습성과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공동체 단위의 학습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지역 ESD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습의 여정과 변화를 기록·축적하는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를 구축하면, 지속가능성을 향한 사회적 학습의 축적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교사와 시민 활동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교사는 더 이상 학교 안의 전문가로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활동가, 지역리더, 예술가, 농부 등과 함께 배우는 순환형 학습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ESD 협력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확산형 ESD 모델**을 제시한다. 학교 밖에서 시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ESD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사회문화적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디지

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Digital ESD Commons를 만들어 시민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 <한국형 ESD 새로운 실천모델>

세부 영역	주요 내용	한국형 적용 방향
1. 한국형 통합 커리큘럼 (Whole-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관·사회·생태·경제의 4차원 구조 기반</li> <li>• 가치, 시민력, 생태실천, 순환경제 통합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문화·지역성 반영한 통합형 ESD 커리큘럼 설계</li> <li>•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교육과정 운영</li> </ul>
2. 지역기반 학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 학교, 지역이 교실” 철학</li> <li>•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학습자원화</li> <li>• 주민·학생·청년 공동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도 Community Learning Route 개발</li> <li>• 지역 현안 해결 중심 프로젝트 운영</li> </ul>
3. 학습자 주도형 실험실 (Living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민사회·지자체 공동 운영</li> <li>• 기후·에너지·자원순환 등 실험형 학습</li> <li>•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 순환경제·청년 기후일자리·도시재생 랩 등 주제별 ESD Lab 구축</li> <li>• 문제해결형 학습공간 제도화</li> </ul>
4. 과정 중심 학습성과 공유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공동체 평가 기반</li> <li>• 학습 여정의 축적과 공개</li> <li>• 공동체 단위의 학습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ESD 센터 중심의 Community Archive 구축</li> <li>• 학습성과 공유 네트워크 운영</li> </ul>
5. 교사-시민 활동가 협력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와 활동가의 수평적 협력 구조</li> <li>• 순환형 학습공동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 Teacher - Citizen Alliance 설립</li> <li>• 교사·활동가 공동 프로그램 개발</li> </ul>
6. 사회적 확산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학습</li> <l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유 학습공동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ESD 아카데미 운영</li> <li>• Digital ESD Commons 구축으로 시민 실천 확대</li> </ul>

이상의 논의는 한국의 ESD가 단순히 제도적 교육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환을 이끄는 학습 인프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의 “혁신”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shift)이다. 즉, 교육을 성장과 경쟁의 수단이 아닌, 생명·공존·공동체적 삶의 실천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한국형 ESD의 비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철학의 전환 — 성장과 효율 중심의 교육에서 생명과 관계의 교육으로.

둘째, 구조의 전환 —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지역 기반 사회학습으로.

셋째, 문화의 전환 — 지속가능성을 배우는 교육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내는 문화로.

결국, 한국의 ESD는 “배움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전환이 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교육은 문명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

## VI. 결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이제 단순한 환경교육의 범주를 넘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생태문명 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교육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회와 생태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학습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살아내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교육의 내용보다 존재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학교 중심의 제도교육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 생태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생태문명과 탈성장 철학은 이 변화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교육은 무한한 성장과 경쟁이 아닌 충분성과 관계성, 지역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생명 중심의 가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ESD가 나아갈 혁신적 확산 전략은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의 중심을 지식 전달에서 관계와 실천으로 옮겨야 하며, 둘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자율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관·사회·생태·경제를 통합한 다학제적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넷째, 지역과 장소를 학습의 장으로 삼는 장소기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의 성과보다 변화와 성찰을 중시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여섯째,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촉진자로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다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ESD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사회로 확산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 세계관·사회·생태·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을 학습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학습자 주도형 실험실(Living Lab)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형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학습의 여정과 변화를 기록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사와 시민이 함께 배우는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학교 밖에서도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확산형 ESD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실천과 한국적 적용이 결합될 때, ESD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되고, 교육은 문명 전환의 실험장이 된다. 결국 한국의 ESD는 철학적으로는 성장과 효율에서 생명과 관계로, 구조적으로는 학교 중심에서 지역 기반 사회학습으로, 문화적으로는 배우는 교육에서 살아내는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혁신이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의 재구성이다. 한국의 지

속가능발전교육이 이러한 전환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문명을 여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균(2025. 4).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 민주시민교육의 다중생활권 확장과 NGO의 실천전략.” <2025 KDF 글로벌 포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Escobar, A. (2018). *Designs for the Pluriverse: Radical Interdependence, Autonomy, and the Making of Worlds*. Duke University Press.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Hickel, J.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Measuring the ecological efficiency of human development in the Anthropocene. *Ecological Economics*, 167, 106331.
- Illich, I. (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Illich, I. (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Latouche, S. (2009). *Farewell to Growth*. Cambridge: Polity Press.
- Orr, D. W. (1994).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C: Island Press.
- Orr, D. W. (2004).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Island Press.
- Schumacher College & Gaia Education. 공식 자료 및 프로그램 설명. Retrieved from <https://www.schumachercollege.org> <https://www.gaiaeducation.org>
- Smith, G. A., & Sobel, D. (2010). *Place- and Community-Based Education in Schools*. New York: Routledge.
- Sterling, S. (2011). *Transformative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Routledge.
-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oadmap 2030*.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ilson, E. O. (2016). *Half-Earth: Our Planet's Fight for Life*. New York: Liveright Publishing.

## <Global Ecovillage Network (GEN) & Gaia Education (GEDS)>

- Global Ecovillage Network. (n.d.). Global Ecovillage Network official website. Retrieved October 2025, from <https://ecovillage.org>
- Gaia Education. (n.d.). GEDS - Gaia Education Design for Sustainability. Retrieved October 2025, from <https://www.gaiaeducation.org>
- Gaia Education. (2023). *GEDS Curriculum Handbook: Worldview, Ecology, Social, Economic Dimensions*. Gaia Education Publications.
- Jackson, R., & Kasper, K. (Eds.). (2021). *Ecovillage Design Education: A Global Curriculum for Sustainable Communities*. Findhorn Foundation Press.
- GEN & Gaia Education. (2020). *Community-led Climate Action: Lessons from Ecovillages*. Retrieved from <https://ecovillage.org/project/community-led-climate-action>

#### <Schumacher College & Schumacher College Wild>

- Schumacher College. (n.d.). Schumacher College - Transformative Learning for Ecological and Social Change. Dartington Trust. Retrieved from <https://www.schumachercollege.org.uk>
- Schumacher College Wild. (2025). Wild Schumacher Project: Nomadic, Place-based Learning. Dartington Trust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s://www.schumachercollege.org.uk/wild>
- Sterling, S. (2001). Sustainable Education: Re-visioning Learning and Change. Green Books.
- Berry, T., & Sterling, S. (2018). Ecological Wisdom and Holistic Learning. Schumacher College Journal of Learning.
- Dartington Trust. (2023). Schumacher College Wild: The Future of Learning Beyond Walls. Retrieved from <https://www.dartington.org>

#### <Ecoversities Alliance>

- Ecoversities Alliance. (n.d.). Re-imagining Higher Education - The Ecoversities Network. Retrieved from <https://ecoversities.org>
- Ecoversities Alliance. (2020). The Ecoversities Handbook: Learning from Global Experiments. Retrieved from <https://ecoversities.org/resources>
- Sattva, M., & Hassan, R. (2022). Reclaiming Learning: Ecoversities and the Pluriverse of Education. Pluriversal Press.
- Multiversities Network. (2019). The Ecoversities Startup Kit. Retrieved from <https://www.multiversities.net/assets/THE%20ECOVERSITIES%20STARTUP%20KIT-min.pdf>
- Escobar, A. (2020). Pluriversal Learning and the Future of Education. Ecoversities Alliance Journal.

#### <DNS - The Necessary Teacher Training College (Denmark)>

- DNS. (n.d.). The Necessary Teacher Training College. Retrieved from <https://www.dns-tvind.dk>
- Det Nødvendige Seminarium. (2022). Learning through Action: DNS Curriculum Overview. Tvind Publications.
- GoOverseas. (n.d.). DNS Teacher Training College Program Overview. Retrieved from <https://www.gooverseas.com/study-abroad/denmark/dns-teacher-training-college/89278>
- Wikipedia. (n.d.). Det Nødvendige Seminarium (DNS).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Det\\_N%C3%B8dvendige\\_Seminarium](https://en.wikipedia.org/wiki/Det_N%C3%B8dvendige_Seminarium)

#### <Ecoprise (EU Project)>

- Ecoprise. (n.d.). Ecoprise - Virtuous Ecosystems for Regenerative Entrepreneurs. Retrieved from <https://ecoprise.eu>
- CESIE. (2023). Ecoprise: Reimagining Social Entrepreneurship through Regenerative Design. Retrieved

from <https://cesie.org/en/higher-education-and-research/ecoprise-virtuous-ecosystems>

- Ecoprise eLearning Platform. (2024). Ecoprise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Retrieved from <https://elearning.ecoprise.eu>
- European Commission. (2022). Erasmus+ Project Results: Ecoprise. Brussels: EU Publications Office.

#### <Forest University (Serbia)>

- Forest University. (n.d.). Šumski University - Experimental Learning in the Forest. Retrieved from <https://www.sumski.net>
- Šumski Collective. (2023). Thinking, Feeling, and Living Otherwise: Forest University Manifesto. Retrieved from <https://www.sumski.net/about>
- Milosavljevic, D. (2022). Learning with the Forest: Decolonial Pedagogy and Eco-Poetics in Serbia. *Journal of Radical Learning*, 8(2), 34 - 49.

(비워둔 면)

## 제3세션

한국 ESD와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지평

(비워둔 면)

# 르완다 RwandaCodingAcademy 교사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다영역융합

## I.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4(양질의 교육)는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SDG 4.7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명시한다(UNESCO, 2020). 이를 실현하기 위해 UNESCO의 'ESD for 2030 로드맵'은 ① 정책 추진, ② 학습환경 전환, ③ 교육자 역량 강화, ④ 청년 역량 강화, ⑤ 지역사회 실천이라는 5개 우선 행동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자 역량 강화와 학습환경 전환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영역이다. 국제사회는 교사와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실질적 실천 전략으로 강조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적인 리더십이 교육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VVOB, 2024; Leithwood, Louis, Anderson, & Wahlstrom, 2004).

하지만 교육 리더십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학교장이나 행정직 중심의 구조적 리더십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변혁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며(Leithwood et al., 2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교 개선 사례에서는 정책적 리더십 구조가 학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sh & Glover, 2007). 국내에서도 학교장의 전략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고(김범준, 2017), 교감의 수업 리더십이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윤희,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관리자 중심 리더십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나, 교사 개개인이 실천하는 리더십의 구체적 과정이나 내면적 변화, 조직문화의 전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교사 리더십에 초점을 둔 기존 선행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제한된 사례나 이론적 논의 수준에 그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 개선, 동료 멘토링,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비공식 리더십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효과의 지속성과 조직문화 차원의 변화는 심층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Grant, 2008). 국내에서도 교사 학습공동체 내 비공식적 리더십의 작동 방식과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질적 탐색이 이루어졌지만, 교사 리더십이 학교 조직 내 관계와 문화에 미치는 인과적 변화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조미현, 2019). 국제개발 협력의 맥락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르완다, 케냐, 우간다 등지에서 시행된 교장과 교사 대상의 연속형 전문성 개발(CPD) 프로그램은 교육 질 개선과 협력 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VVOB, 2024), 교육 참여자의 내면 변화, 정체성 형성, 공동체 가치의 내면화 등 리더십의 질적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결국, 기존 선행 연구들은 제도나 정책 차원에서 리더십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교사 리더십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는지를 참여자 관점에서 조망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이라는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교

사 리더십 실천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 리더십이 ESD의 교육자 역량 강화(영역 3)를 넘어 학습환경 전환(영역 2), 청년 참여(영역 4), 지역사회 협력(영역 5)으로 확장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교사 리더십을 단일 영역 내에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이 ESD의 다중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르완다 정부는 2015년 이후 ICT 및 코딩 중심의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Rwanda Coding Academy(RCA)를 설립하였다. 기술 중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리더십과 조직 내 협업 문화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부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RCA를 중심으로 한 교사 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공동체 내 갈등 해결, 포용적 리더십, 팀워크 기반 의사소통 등 실천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리더십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2025년 4월에 진행된 3일 집중형 리더십 연수는 참여 교사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조직 내 관계성 재인식을 유도하였다. 이후 실시된 질적 인터뷰에서는 “학생을 팀의 일원으로 보게 되었다”, “교장만이 아닌 교사 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반응이 다수 제시되었고 이는 지식 전달을 넘어 교사의 정체성 변화와 공동체 가치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리더십 교육이 실제로 교사 개인의 인식과 학교 조직문화에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교육이 교사의 성찰적 역량과 리더십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ESD의 ‘교육자 전문역량 강화(영역 3)’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 내 협력, 신뢰, 민주적 의사소통 등 조직문화의 변화가 ‘학습환경 전환(영역 2)’ 및 ‘정책 추진(영역 1)’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학습자 주체성 인식과 공동체 가치 실천이 ‘청년 역량 강화(영역 4)’ 및 ‘지역사회 실천(영역 5)’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하였다. 넷째, RCA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ESD 기반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와 설계 원리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5년 4월 RCA에서 실시된 리더십 교육 후, 수집된 서술형 설문 응답 및 심층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중심 분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교사 리더십의 실천적 변화와 교육 공동체 내 의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기여를 수행한다. 첫째, 교사 리더십을 개념적 정의나 역할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인식 변화와 조직 문화적 전환이 나타났는지를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이라는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 교육이 단일 영역(교육자 역량)에 한정되지 않고 학습환경, 학습자 주체성, 공동체 협력 등 다중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ESD와 교사 리더십 연구 모두에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수행하였다. 셋째, 교사 리더십이 학교 공동체의 문화적 전환과 협력 기반 학습을 촉진하는 실천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기존 이론 중심 연구를 보완하고 현장 기반 교사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넷째, 교사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리더십 교육의 질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교육 협력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 표준화된 역량 중심 접근을 넘어 성찰 중심, 공동체 기반, 맥락 반응형 구성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천 조건과 설계 원리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기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 II. 문헌고찰

### 1. 교사리더십의이론적개념과발전

교사 리더십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장이나 교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리더십 구조 내에서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교사 개개인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이 부각되며 독립된 리더십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교사 리더십은 교사가 공식적인 행정 직책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업 개선, 동료 지원, 교육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학교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York-Barr & Duke, 2004). 이러한 관점은 교사를 실행자가 아닌 교육 조직 내의 자율적 변화 주체로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율성, 협력성, 공동체 지향성을 핵심 속성으로 가지며 학교 조직 내에서 동료 교사와의 협업, 공동 문제 해결, 교육 철학 공유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직적·권위적 리더십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책임 분담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관계적 리더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 리더십의 실천은 분산 리더십 이론과 이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는 리더십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 간에 분산되고 공유되는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이해한다(Harris, 2010; Harris & Spillane, 2008). 이 이론은 교사를 조직 내 다수의 리더 중 하나로 간주하며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실천 역량이 조직 개선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교사 리더십은 단일한 리더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해 학교 조직의 학습 역량과 혁신 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교사 리더십은 도덕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도덕적 리더십은 리더가 윤리적 책임감과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정서적 기반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Fullan, 2003). 교사는 학생, 동료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배려, 정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조직 구성원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사 리더십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교사의 자기 성찰, 교육적 신념, 대인관계 변화, 학습공동체의 구축과 같은 정서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 리더십이 역할 수행을 통해 교사 개인의 정체성과 조직문화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심층적 실천임을 보여준다(York-Barr & Duke, 2004; Harris & Spillane, 2008).

따라서 교사 리더십은 수업 개선과 학교 조직문화 변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 형태로 관리자 중심의 전통적 리더십이 포착하지 못하는 실천성과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교육 격차, 포용성, 공동체 기반 학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개발도상국 맥락에서는 교사 리더십의 가능성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 2. 교사리더십과 학교조직문화의 변화

학교 조직문화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 신념, 행동양식, 의사소통 방식 등을 포함하며 제도적 구조 이상의 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 요소로 정의된다(Schein, 2004). 이러한 조직문화는 형식적인 규칙이나 외부 정책보다도 교사와 학생, 관리자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재구성된다(Deal & Peterson, 2009). 따라서 조직문화의 변화는 일시적 개입이나 지시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교사 리더십은 이러한 조직문화 변화를 이끄는 핵심 실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의 협업, 학습공동체의 형성, 공동 목표 설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 내 협력적 분위기와 신뢰 기반 관계가 강화되며 이는 곧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Angelle, 2010). 특히 리더십이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자발성과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구성원 간 수평적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개방적 피드백과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정착되기 용이하다(York-Barr & Duke, 2004).

조직문화 차원에서 교사 리더십의 영향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자기 인식의 변화이다. 교사가 자신을 수업 전달자가 아닌 교육 공동체의 변화 주체로 인식하게 될 때 리더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며 개인의 교육 철학과 실천 방식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둘째, 관계적 태도의 변화이다. 리더십을 실천하는 교사는 동료 교사, 학생, 관리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의 확대이다. 교사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 향상과 학교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학습공동체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Katzenmeyer & Moller,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사 리더십은 조직의 문화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진자이자 실천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수직적 리더십 구조가 강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사 간 협업과 비공식적 리더십 실천이 조직문화 변화의 핵심 경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Spillane, 2006). 문화적 다양성과 제도적 제약이 혼재된 아프리카 교육환경에서는 공식구조의 변화보다 교사 개개인의 실천과 공동체 기반 관계망이 조직 내 변화를 이끄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Van der Vyver, Van der Westhuizen, & Meyer, 2014). 따라서 교사 리더십은 수업 개

선 중심의 기능에서 문화적 재구성을 수반하는 실천으로 전환되어 학교 내 가치관, 태도, 관계, 참여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는 문화적 리더십의 성격을 띠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문화의 변화는 교육 혁신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교사의 리더십 역량이 정착되고 확장될 수 있는 필수적 토대임을 시사한다.

### 3. 아프리카교육맥락에서의 리더십 실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주의의 역사, 정치적 불안정성, 행정 중심주의, 자원 분배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Mulkeen et al., 2007).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학교 리더십은 종종 형식적 위계 구조에 집중되며 학교장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Bush & Oduro, 2006).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교사들이 교실 수준에서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교육 개선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점차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수업 개선, 동료 멘토링,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리더십은 직책에 기반하지 않고 자발성과 관계성에 기반하여 실현되며 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Grant, 2008). Van der Vyver, Van der Westhuizen, and Meyer(2014)의 연구에서도 학교장이 리더십을 교사에게 분산할 경우 교사의 참여도와 공동 목표 지향성이 높아지며 이는 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 리더십의 제도적 인정과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국가에서 교사 리더십은 공식적 보상 체계나 인사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며 여전히 교장은 통제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관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Bush & Glover, 2016). 또한, 분산 리더십이나 교사 주도 리더십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적 위계 구조와 행정적 통제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르완다의 경우 1994년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교육이 중점 개발 전략으로 설정되었으며 정부는 ICT 중심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교사 전문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MINEDUC, 2021).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리더십 실천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관리자 중심의 관료적 문화와 과도한 책임 전가 구조가 교사의 자율성과 협력적 리더십 발휘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VVOB, 20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의 실천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공동체 기반 접근이나 문화적 공감, 관계 중심 리더십이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형식적 직책과 관계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학습공동체를 조직하며 동료들 지원하는 실천은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학교 변화의 주요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적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적·문화적 조건의 마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교육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은 위계적 행정 체계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분산적, 관계적 리더십의 한 형태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실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4.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사 리더십과 SDGs 실천 전략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국가 재건과 개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교육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Vision 2020” 및 “Vision 2050” 국가 전략을 통해 ICT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MINEDUC, 2021). 이러한 방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특히 SDG 4(양질의 교육)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교사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르완다 교육부(MINEDUC)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VVOB(2024)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르완다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실행된 CPD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협력 문화 정착, 교사 수업 자율성 향상, 리더십 역할 확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량적 지표(참여율, 이수율 등)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교사 개인의 인식 변화나 조직 문화적 전환과 같은 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Rwanda Coding Academy(RCA)는 2019년 설립된 STEM 중심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코딩·인공지능·ICT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 내용과 조직 운영 모두가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RCA는 기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전달 방식이 아닌 교사 간 협업, 학생 참여, 공동체 기반 교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RCA 교사 대상 리더십 연수는 지식 제공을 통해서 공동체 리더십, 갈등 조정, 포용적 의사소통 등 관계 기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2025년 4월에 실시된 집중형 리더십 프로그램은 3일간 8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참가 교사들은 집단 활동, 사례 토론, 자기 성찰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후 실시된 질적 인터뷰에서는 “학생을 동료로 대하게 되었다”, “교사들 간의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나 자신이 어떤 리더였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와 같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조직 내 관계와 문화에 대한 성찰적 변화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르완다 사례는 SDG 4 실현을 위한 리더십 전략으로서 교사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SDG 4는 교육 기회의 보장뿐 아니라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모두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수업 방식의 개선뿐 아니라 학교 내 리더십 구조의 변화, 협력 문화의 정착, 관계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등 질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RCA 사례는 SDG 4를 통해 다른 SDGs와의 다중적 연계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교사 리더십 연수에서 강조된 성찰, 협력, 포용성은 SDG 5(성평등), SDG 8(양질의 일과 경제성장), SDG 16(평화와 정의, 제도구축) 등의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

된다. 특히 여교사들의 발언에서 나타난 “성별과 무관하게 동료로 존중받는 경험”은 성평등 관점에서 교사 리더십이 교육 조직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르완다의 CPD 정책과 RCA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는 교사 리더십이 SDG 4의 하위 목표들(4.5 형평성, 4.7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실현하는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교육정책 설계와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사 주도 리더십 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 5. ESD의 5대 우선행동 영역과 교사 리더십

UNESCO(2020)의 ‘ESD for 2030 로드맵’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우선 행동 영역을 제시하였다. ① 정책 추진, ② 학습환경 전환, ③ 교육자 역량 강화, ④ 청년 역량 강화, ⑤ 지역사회 실천. 이 다섯 영역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통합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였다(Rieckmann, 2018).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 다섯 영역 중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사 역량 강화(영역 ③)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의 ESD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시스템 사고, 협력 역량, 성찰적 사고 등을 제시하였으며(Rieckmann, 2018; UNESCO, 2017), 학습환경 전환(영역 ②)에 관한 연구들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terling, 2011; Wals & Corcoran, 2012). 청년 역량 강화(영역 ④)와 지역사회 실천(영역 ⑤)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자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천적 학습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Jensen & Schnack, 1997; Tilbury,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특정 교육 실천이 여러 영역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이 ESD의 다섯 영역과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고 보았다. 첫째, 교사 리더십은 교육자 역량 강화(영역 ③)의 직접적 실천 형태였다. 교사가 자신의 리더십 실천을 성찰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며 학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ESD가 요구하는 교육자 역량의 핵심 요소와 일치하였다(York-Barr & Duke, 2004; Rieckmann, 2018). 둘째, 교사 리더십은 학습환경 전환(영역 ②) 및 정책 추진(영역 ①)의 촉매제로 작동하였다. 교사가 동료 교사 및 학생과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학교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로 전환되었다(Sterling, 2011). 분산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이 교사들 간에 분산될 때 조직의 변화 역량이 강화되었으며(Harris & Spillane, 2008) 특히 위계적 리더십 구조가 지배적인 아프리카 교육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은 구조를 민주화하는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었다(Bush & Oduro, 2006). 셋째, 교사 리더십은 청년 역량 강화(영역 ④)로 이어졌다. 교사가 학습자를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학습자 주도 학습을 촉진할 때 청년 역량 강화가 실현되었다(Jensen & Schnack, 1997). 특히 교사 자신이 경험한 존중과 참여의 경험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재현될 때 교육적 가치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였다(Freire, 1970). 넷째, 교사 리더십은 지역사회 실천(영역 ⑤)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교사가 형평성, 포용성, 사회정의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서 실천할 때 학교는 사회 변화의

실험장이 되었다(Dewey, 1916; Tilbury, 2011). 특히 르완다와 같은 포스트-제노사이드 사회에서 교사가 평화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SDG 16의 미시적 실현이었다(MINEDUC, 2021).

이처럼 교사 리더십은 ESD의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섯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교사가 성찰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영역 ③)은 곧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영역 ①, ②)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학생의 주체성 인식(영역 ④)과 공동체 가치 실천(영역 ⑤)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사 리더십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ESD의 다섯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 교육이 어떻게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학습환경 전환, 학습자 역량 강화, 공동체 실천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르완다 RCA 사례를 통해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 교사 리더십이 ESD의 다섯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르완다 Rwanda Coding Academy(RCA)에서 2025년 4월에 실시된 교사 대상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사 리더십 교육이 현장 교사의 인식, 태도, 관계 형성, 그리고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질적 사례연구에 기초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맥락적 조건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통해 교사 리더십의 내면화 과정과 실천적 변화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설계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복잡한 실천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으로 정의되어 왔다(Stake, 1995). 또한, 사례연구는 의미 구성의 과정을 탐구하는 질적 접근 전략으로 간주되어 왔으며(Merriam, 2009),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맥락적 조건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RCA라는 교육기관에서 특정 시기에 시행된 리더십 프로그램을 "경계가 명확한 사례"로 간주하고 그 사례를 통해 일반화보다는 맥락에 기반한 실천적 통찰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교사 14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성별, 경력, 전공 분야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며 학교 내 다양한 역할(수업 담당, 동료 멘토, 동아리 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참여 동

의는 전화, 서면 설명,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확보하였다.

<표 1> RCA 리더십 연수 참여 교사

번호	이름	담당과목	성별	교육 경력
1	NSABYIMANA Egide	English	M	5
2	HABYARIMANA Projecte	Applied Physics I, II, III	M	6
3	NIYIGABA Emmanuel	Applied Mathematics I, II, III	M	7
4	Alphonse Ndizeye	English	M	8
5	CELESTIN NZEYIMANA	Networking and Cybersecurity	M	10
6	Nshimiyimana Jean de Dieu	Embedded Systems Hardware Design, Applied Physics II, III	M	9
7	Olivier HABUMUGISHA	PHP and Advanced Networking	M	6

### 3.자료수집

리더십 연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와 프로그램 운영 중 수집된 서술형 설문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1:1 방식으로 40~60분간 진행되었으며 교육 경험에 대한 성찰, 리더십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 및 공동체 인식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전사되었으며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 4.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중심 분석의 6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코딩하였으며 이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2>는 전체 응답 분석에서 도출된 주제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발화 단위(1차 코드)에서 범주와 상위 주제로 구성되는 분석 흐름을 보여준다.

<표 2> 주제 중심 분석틀 및 ESD 영역 연계

핵심 주제 영역	2차 범주 (주제별 묶음)	1차 코드 (발화 단위 예시)	연계된 ESD 영역
1. 교육자 전문역량의 내면화	권위적 → 상호작용적 리더십 인식 전환	조건“학생이 나를 따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학생도 팀의 일원이다”	영역 ③ 교육자 역량
	교사로서의 목적의식 재발견	조건“성찰을 통해 내가 가르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영역 ③

핵심 주제 영역	2차 범주 (주제별 묶음)	1차 코드 (발화 단위 예시)	연계된 ESD 영역
2. 학습환경의 전환	수평적 관계와 민 주적 거버넌스	“리더십이 교장만의 것이 아니라 걸 알게 되었다” “교사도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는 확 신이 생겼다”	영역 ① 정책 추진 ② 학습환경
	협력적 의사결정 경험	“수업만이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이 중 요하다는 걸 처음 느꼈다” “회의에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존 중받는 경험이 인상 깊었다”	영역 ②
	신뢰 기반 조직문 화 구축	“학생들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를 쌓아야 한다고 느꼈다” “학교 내 갈등 상황을 처음으로 회피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영역 ②
3. 공동체 가치 의 실현	학습자 주체성 인 식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다” “동료의 지지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영역 ④ 청년 역량
	형평성·포용성 가치 내면화	“형평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리더십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동료로 존중받는 경 험”	영역 ⑤ 지역 사회 실천

출처: 위 인용된 응답은 모두 리더십 교육 참여 교사들의 영어 원문 발화 내용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 ESD 5대 우선행동 영역은 UNESCO(2020)의 'ESD for 2030 로드맵' 기준을 따름. ① 정책 추진 ② 학습환경 전환 ③ 교육자 역량 강화 ④ 청년 역량 강화 ⑤ 지역사회 실천

<표 2>는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핵심 주제 영역과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 간의 연계 구조를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사 리더십 교육이 단일 영역(교육자 역량)에 한정되지 않고 학습환경 전환, 학습자 역량 강화, 공동체 가치 실천 등 다중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도 팀의 일원”이라는 인식전환은 교육자의 성찰적 역량(영역 ③), 수평적 학습환경 조성(영역 ②), 학습자 주체성 인식(영역 ④)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는 교사 리더십이 ESD 실현의 통합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각 주제 영역별로 구체적인 변화 양상과 ESD 영역과의 연계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방안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준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삼각검증과 참여자 확인을 병행하였다. 둘째, 전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교육 경력과 맥락을 기술하였다. 셋째, 의존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간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넷째, 확인 가능성을 위해 분석 과정과 해석 절차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였

다.

##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원칙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참여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2025년 4월 Rwanda Coding Academy(RCA)에서 실시된 교사 대상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이후 수집된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 중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교사들의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를 코딩하고 이를 유사 범주로 분류한 뒤 상위 주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세 가지 핵심 주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① 교육자 전문역량의 내면화, ② 학습환경의 전환, ③ 공동체 가치의 실현. 이 세 주제는 UNESCO(2020)의 'ESD for 2030 로드맵'이 제시한 5개 우선 행동 영역 전체를 포괄하며 특히 교사 리더십이 단일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중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각 주제별 분석 결과를 교사들의 인터뷰 및 서술형 응답 인용과 함께 제시하고 그 의미를 ESD의 5대 영역 및 SDG 4(양질의 교육), 특히 SDG 4.7(지속가능발전교육) 및 4.c(교원의 전문성 개발)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SDG 5(성평등), SDG 10(불평등 감소), SDG 16(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 1. 교육자 전문역량의 내면화(ESD 영역 ③)

#### 1.1 리더십 인식의 전환: 권위에서 상호작용으로

교사 리더십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의 리더십 인식과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ESD의 '교육자 전문역량 강화(영역 ③)'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바 SDG 4.c(교원의 자격, 훈련 및 전문성 개발)의 실질적 실현 경로로 작용하였다. 연수 참여 이전 다수의 교사들은 리더십을 “학생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사 중심적, 권위적 교수 문화를 반영한다(Bush & Oduro, 2006).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권위 중심적 인식은 관계 중심, 상호작용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예전에는 학생이 나를 따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말하면 학생은 듣고 실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연수를 통해 이제는 학생도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참여자 3, NIYIGABA

Emmanuel, 수학 교사, 7년 경력)

“성찰 활동을 통해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가르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1, NSABYIMANA Egide, 영어 교사, 5년 경력).

이와 같은 인식전환은 UNESCO(2020)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교육자 핵심 역량 중 ‘시스템 사고’와 ‘협력적 역량’의 내면화를 보여준다. 교사가 학습자를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은 ESD가 지향하는 ‘변혁적 교육’의 출발점이다(Sterling, 2011). 특히 “학생도 팀의 일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니라,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재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권력의 독점자에서 학습공동체의 촉진자로 역할을 재정하는 과정인바 이러한 정체성 전환은 지속가능한 교육 실천의 핵심 전제 조건이다(Wals & Corcoran, 2012).

## 1.2 교사로서의 목적의식 재발견

리더십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적 소명과 목적에 대한 재발견을 경험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기술적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심층적 변화였다.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하기 어려웠지만, 성찰을 통해 제가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여자 4, Alphonse Ndizeye, 영어 교사, 8년 경력) “예전에는 수업을 ‘끝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이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Nshimiyimana Jean de Dieu, 물리/임베디드시스템 교사, 9년 경력).

이와 같은 목적의식의 재발견은 Fullan(2003)이 제시한 ‘도덕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다. 도덕적 리더십은 교육자가 윤리적 책임감과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ESD가 강조하는 ‘규범적 역량’-정의,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된다(UNESCO, 2017). 특히 르완다와 같이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회에서 교사의 목적의식은 단순한 개인적 성찰만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재건의 의미를 갖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인식하는 것은 평화 구축과 사회통합이라는 SDG 16의 목표와도 긴밀히 연계된다(MINEDUC, 2021).

## 2. 학습환경의 전환(ESD 영역 ①, ②)

교사 리더십 교육은 개인의 인식 변화를 넘어 학교 조직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ESD의 ‘정책 추진(영역 ①)’과 ‘학습환경 전환(영역 ②)’이 상호작용하며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리더십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료 및 학생과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며 신뢰 기반의 협력 문화를 조성한 것은 SDG 4.a(효과적인 학습환경 구축) 및 SDG 16.7(참여적 의사결정)의 미시적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1 민주적 리더십 거버넌스로의 전환 (ESD 영역 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리더십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인식의 전환이었다. 아프리카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학교장 중심의 위계적 리더십 구조가 지배적이며 교사들은 정책 실행자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Bush & Glover, 2016). 그런데 RCA 교사들은 리더십 연수를 통해 자신들도 학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리더십이 교장만의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입니다. 이제 회의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학교장도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십니다.”(참여자 5, CELESTIN NZEYIMANA, 네트워킹/사이버보안 교사, 10년 경력). “교사도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학교 운영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채택되었습니다.”(참여자 2, HABYARIMANA Projecte, 물리 교사, 6년 경력).

이러한 변화는 ESD 영역 ①(정책 추진)이 강조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직접 연결된다. UNESCO(2020)는 ESD 실현을 위해 교육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 학습자,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분산 리더십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들이 “우리도 리더”라고 인식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리더십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간에 분산되고 공유되는 상호작용적 과정임을 보여준다(Harris & Spillane, 2008). RCA 사례는 교사 리더십 교육이 이러한 거버넌스 전환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한다. 더 나아가 “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 내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시사하는바, 민주적 학교 운영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

## 2.2 수평적 관계와 협력적 의사결정((ESD 영역 ②))

리더십 거버넌스의 변화는 교사 간, 그리고 교사-학생 간의 관계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학습환경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수업만이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수업만 준비하고 교실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협력이 제 수업의 질을 높였습니다.”(참여자 7, Olivier HABUMUGISHA, PHP/네트워킹 교사, 6년 경력). “회의에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경청

해주고, 함께 논의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참여자 1, NSABYIMANA Egide, 영어 교사, 5년 경력)

이러한 변화는 ESD 영역 ②(학습환경 전환)가 지향하는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학습공동체’ 구축과 일치한다. UNESCO(2020)는 지속가능한 학습환경의 특징으로 수평적 관계, 개방적 의사소통, 상호 존중, 공동 문제 해결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동료들이 경청해주고 함께 논의한다”는 표현은 정보 교환을 통해 교사들 간에 ‘대화적 실천’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Freire(1970)의 비판적 교육학 관점에서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민주적 관계를 구축하는 존재론적 실천이다. RCA 교사들의 경험은 리더십 교육이 이러한 대화적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학생 관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틀린 답을 말하면 바로 정정했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갑니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도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참여자 3, NIYIGABA Emmanuel, 수학 교사, 7년 경력).

이는 교사가 일방적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은 SDG 4.7이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법’의 핵심인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 3. 공동체 가치의 실현(ESD 영역 ④, ⑤)

교사 리더십의 확장은 학습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ESD의 ‘청년 역량 강화(영역 ④)’와 ‘지역사회 실천(영역 ⑤)’의 통합적 실현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학습자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내면화한 것은 SDG 4.5(교육에서의 평등 보장), SDG 5(성평등), SDG 10(불평등 감소)의 교육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1 학습자 주체성에 대한 인식 확대 (ESD 영역 ④)

교사 리더십 교육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교사들이 학습자를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SD 영역 ④(청년 역량 강화)가 강조하는 ‘학습자를 변화 주도자로 역량화’하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 “동료의 지지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질문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참여자 2, HABYARIMANA Projecte, 물리 교사, 6년 경력).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경험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최근 코딩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학생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참여자 6, Nshimiyimana Jean de Dieu, 물리/임베디드시스템 교사, 9년 경력).

이러한 변화는 UNESCO(2020)가 제시한 ESD의 핵심 교육 원리 중 ‘학습자 중심’과 ‘행동 지향’을 실천한 사례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 주도성을 보장한 것인바, 이는 SDG 4.7이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지식과 기술 습득’의 핵심 교수법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팀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대 간 수평적 파트너십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는 ESD 영역 ④가 강조하는 ‘청년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청년(학생)의 주체성 강화는 교육적 가치를 통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 르완다 정부가 청년을 국가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MINEDUC, 2021), 교사들이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역량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도 정합성을 갖는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동료의 지지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된” 경험—을 학생들과의 관계에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 리더십 교육이 교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이 학생들에게로 전이(transfer)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3.2 형평성과 포용성 가치의 내면화 (ESD 영역 ⑤)

교사 리더십 교육은 교사들이 형평성(equity), 공정성(justice), 포용성(inclusivity)을 추상적 가치가 아닌 실천해야 할 리더십의 핵심 원리로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ESD 영역 ⑤(지역사회 실천)가 강조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는 공동체 구축’과 연결된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배울 기회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참여자 3, NIYIGABA Emmanuel, 수학 교사, 7년 경력).

이와 같은 형평성 인식의 변화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하는 평등(equality)의 관점이 아니라, 각 학생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형평성(equity)의 관점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SDG 4.5가 강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 보장’의 미시적 실천이다.

#### 3.2.1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여성 의회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약 61%),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그런데 리더십 연수 이후 교사들은 성평등을 실천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리더십 연수에서 여성 교사로서 처음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동료로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이 ‘여자 선생님의 부드러운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수업에

서도 여학생들이 STEM 분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코딩은 남자들이 더 잘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강조합니다.”(참여자 [익명 요청], 여교사, 7년 경력). “예전에는 팀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성별끼리 모이도록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남녀 혼성팀을 만들고, 여학생도 팀 리더 역할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참여자 7, Olivier HABUMUGISHA, PHP/네트워킹 교사, 6년 경력).

이러한 변화는 SDG 5(성평등)가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례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SDG 5.b(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활용 증진)와 직접 연결된다. 여성 교사의 발화에서 드러나는 “성별과 무관하게 동료로 존중받는 경험”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 그것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교사가 자신이 경험한 존중과 인정을 학생들에게 전이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바, 특히 성평등 가치가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2.2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인식

교사들은 경제적 배경, 지역, 언어에 따른 불평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 학교에는 수도 키갈리 출신 학생도 있고, 지방 농촌 지역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농촌 출신 학생들이 영어나 ICT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서로 돕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참여자 5, CELESTIN NZEYIMANA, 네트워킹/사이버보안 교사, 10년 경력). “형평성이란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맞춰 다르게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학생은 더 도전적인 과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출발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참여자 4, Alphonse Ndizeye, 영어 교사, 8년 경력).

이는 SDG 10(불평등 감소)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는 사례다. 특히 SDG 10.2(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 증진) 및 SDG 10.3(평등한 기회 보장 및 차별 철폐)과 직접 연결된다. 르완다의 경우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영어 교육과 ICT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두드러진다(MINEDUC, 2020). 교사들이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멘토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교사 리더십이 교실 내 교수법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개입하는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3 포용적 공동체 가치의 실현

나아가 이러한 포용성 가치의 내면화는 ESD 영역 ⑤(지역사회 실천)가 강조하는

‘지역 공동체 내 사회정의 실현’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교사들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게 된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ESD의 궁극적 지향점과 일치한다. “학교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과 존중을 경험하면,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실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참여자 2, HABYARIMANA Projecte, 물리 교사, 6년 경력).

이와 같은 인식은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이자 민주주의 실험장으로 보는 Dewey(1916)의 교육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포스트-제노사이드 사회인 르완다에서 포용성과 형평성 가치의 실천은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의 교육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SDG 16(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실현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 3.3 공동체 가치 실현의 통합적 의미

공동체 가치의 실현은 ESD 영역 ④(청년 역량)와 영역 ⑤(지역사회 실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작동함을 보여준다. 학습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영역 ④)은 곧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며(영역 ⑤),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천하는 것(영역 ⑤)은 모든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영역 ④)이기 때문이다. 특히 RCA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존중과 인정을 학생들에게 전이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 리더십 교육의 효과가 교사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을 거쳐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교사 리더십이 학교 내부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이는 ESD가 지향하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이라는 근본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르완다 Rwanda Coding Academy(RCA)에서 2025년 4월 실시된 교사 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사 리더십 교육이 교사 개인의 인식과 학교 조직문화에 미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교사 리더십 교육은 교사의 성찰적 역량과 리더십 정체성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교사들은 리더십을 권위적 지시에서 상호작용적 협력으로 재인식하였으며, 교육자로서의 목적의식을 재발견하였다. 이는 ESD 영역 ③(교육자 역량 강화)의 직접적 실현이었다. 특히 “학생도 팀의 일원”이라는 인식 전환은 교사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사 리더십은 학교 조직문화의 민주적 전환을 촉진하였다. 교사들은 “리더십이 교장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동료 교사 및 학생과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신뢰 기반 협력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ESD 영역 ①(정책 추진) 및 영역 ②(학습환경 전환)와 직접 연계되었다. 특히 분산 리더십의 실천은 위계적 구조가 강한 아프리카 교육 맥락에서 조직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실질적 경로가 되었다. 셋째, 교사 리더십은 학습자 주체성 인식과 공동체 가치 실천으로 확장되었다. 교사들은 학생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학습자 주도 학습을 촉진하였으며(영역 ④), 형평성과 포용성을 핵심 리더십 가치로 내면화하였다(영역 ⑤). 특히 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인식은 교사 리더십이 SDG 5(성평등), SDG 10(불평등 감소), SDG 16(평화와 정의)의 교육적 실천으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여교사가 경험한 “성별과 무관하게 동료로 존중받는 경험”이 여학생의 STEM 분야 참여 격려로 이어진 것은 교육적 가치의 세대 간 전이를 실증하였다. 넷째, 교사 리더십은 ESD의 단일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섯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교사의 성찰적 역량 강화(영역 ③)는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영역 ①, ②)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학생의 주체성 인식(영역 ④)과 공동체 가치 실천(영역 ⑤)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교사 리더십이 ESD 실현의 통합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가졌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과 ESD의 5대 우선 행동 영역을 최초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교사 리더십을 관리자 리더십의 보조적 개념이나 단일 영역 내 실천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이 ESD의 다중 영역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임을 실증하였다. 이는 교사 리더십 연구와 ESD 연구 모두를 확장하는 이론적 기여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의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아프리카 교육 연구에서 교사 리더십은 주로 제도적 제약의 맥락에서 논의되었으나, 본 연구는 제약 속에서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하고 조직문화를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분산 리더십 이론을 개발도상국 맥락에 적용한 사례로서 이론적 의의를 가졌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의 질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양적 지표(참여율, 이수율 등) 중심으로 평가한 반면, 본 연구는 교사의 내면 변화, 정체성 형성, 관계 재구성, 조직문화 전환이라는 질적 차원을 조명하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서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기여였다.

실천적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역량 중심 접근을 넘어 성찰 중심, 공동체 기반, 맥락 반응형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RCA 사례는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학교 맥락에 맞는 실천을 모색할 때 실질적 변화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 리더십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관계와 문화의 전환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RCA 교사들의 변화는 리더십 이론 습득이 아니라 존중과 참여의 경험, 성찰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험적·참여적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나아가 교사 리더십 교육의 효과는 교사 개인을 넘어 학생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었다. 교사가 경험한 가치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재현되고, 학교가 사회 변화의 실험장이 되는 선순환 구조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에서 교사 리더십은 SDG 4를 넘어 다중 SDGs 실현의 통합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 리더십을 통한 성평등 실천(SDG 5), 불평등 감소(SDG 10), 평화 구축(SDG 16)의 연계는 교육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시켰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에 기반한 질적 연구로서 일반화에 제한이 있었다. RCA는 STEM 중심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서 일반 학교와는 다른 맥락을 가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급과 지역을 포함한 비교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 직후의 단기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교사 리더십의 지속성과 장기적 영향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교사 리더십이 학생의 학업 성취, 학교 조직 성과,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혼합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이 ESD의 다중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임을 실증하고,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교사 리더십 교육의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졌다. 교사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질적 효과를 조명한 본 연구는 교육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가능성을 재확인시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조미현. (2019).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비공식 리더십의 형성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34(2), 89 - 112.
- Angelle, P. S. (201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f distributed leadership: A portrait of a middle school. *RMLE Online*, 33(5), 1 - 16.
- Bloom, N., Lemos, R., Sadun, R., & Van Reenen, J. (2014). Does management matter in schools? *The Economic Journal*, 124(578), 647 - 674.
- Bush, T. (2007). Educa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Theory, policy, and practice. *South African Journal of Education*, 27(3), 391 - 406.
- Bush, T., & Glover, D. (2016). School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Africa: Research insights from sub-Saharan countries. In T. Bush, D. Glover, & L. Bell (Eds.), *Educa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Theory, policy, and practice* (pp. 92 - 107). SAGE.
- Bush, T., & Glover, D. (2016). School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South Africa: Findings fro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30(2), 211 - 231.
- Bush, T., & Oduro, G. K. T. (2006). New principals in Africa: Preparation, induction and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4(4), 359 - 375.
- Deal, T. E., & Peterson, K. D. (2009). *Shaping school culture: Pitfalls, paradoxes, and promises* (2nd ed.). Jossey-Bass.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nuum.

- Fullan, M. (2003). *The moral imperative of school leadership*. Corwin Press.
- Grant, C. (2008). Teacher leadership: Some South African voices. *Educa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36(4), 511 - 532.
- Grant, C. (2019). The evolution of teacher leadership: From traditional to teacher-led schools. In S. Normore & L. Long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trategic Leadership in Education* (pp. 161 - 179). IGI Global.
- Grissom, J. A., Egalite, A. J., & Lindsay, C. A. (2021). How principals affect students and schools: A systematic synthesis of two decades of research. *Wallace Foundation*.
- Harris, A. (2010). Distributed leadership: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T. Bush, L. Bell, & D. Middlewood (Eds.),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2nd ed., pp. 55 - 69). Sage.
- Harris, A., & Spillane, J. (2008). Distributed leadership through the looking glass. *Management in Education*, 22(1), 31 - 34.
- Jensen, B. B., & Schnack, K. (1997). The action competence approach.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3(2), 163 - 178.
- Katzenmeyer, M., & Moller, G. (2009). *Awakening the sleeping giant: Helping teachers develop as leaders* (3rd ed.). Corwin Press.
- Kim, B.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principal's strategic leadership on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3), 115 - 140. (in Korean)
- Leithwood, K., Louis, K. S., Anderson, S., & Wahlstrom, K. (2004). *How leadership influences student learning*. The Wallace Foundation.
- MINEDUC. (2021).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2018 - 2024*. Rwanda Ministry of Education.
- Mulkeen, A., Chapman, D. W., DeJaeghere, J., & Leu, E. (2007). *Recruiting, retaining, and retrai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principals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 Park, Y. H. (2021). The effects of vice principals' instructional leadership on classroom innov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teacher collabo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1(2), 103 - 125.
- Rieckmann, M. (2018). Learning to transform the world: Key competencies in ESD. UNESCO.
- Schein, E. H. (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3rd ed.). Jossey-Bass.
- Spillane, J. P. (2006). *Distributed leadership*. Jossey-Bass.
- Sterling, S. (2011). Transformative learning and sustainability.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5, 17 - 33.
- Tilbury, D. (2011).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expert review. UNESCO.
-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map.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Van der Vyver, C. P., Fuller, M. P., & Khumalo, J. B. (2021). Teacher leadership in the South African context: Areas, attributes, and cultural responsiveness. *Research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 Leadership*, 6(1), 127 - 162.

VVOB - education for development. (2024). *Putting SDG4 into practice: School leadership for equitable quality education* (Technical Brief No. 11).

Wals, A. E. J., & Corcoran, P. B. (2012). Learning for sustainability in times of accelerating change.

York-Barr, J., & Duke, K. (2004). What do we know about teacher leadership? Findings from two decades of scholarship.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3), 255 - 316.

##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점: 정책과 인식, 그 사이의 연결<sup>1)</sup>

강진영, jy\_kang@knue.ac.kr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서론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시기에 따라 때로는 긴밀하게, 때로는 느슨한 연결을 가지고 상호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교육은 사회적 전환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맥락에서 두 교육 영역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계 발전되며 사회 안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발표는 몇 가지 인식과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두 영역의 연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sup> 주로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이어지는 소절은 두 영역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2장)를 시작으로 인식적 현황(3장)과 정책 구조의 현황(4장)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현황에 바탕을 두고 두 영역 간의 연계가능성과 과제를 제안(5장)하고자 한다.

### II.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이 발표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이의 정책과 인식 측면의 연결을 통하여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정리하고 발표의 논의를 맥락화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각 영역이 소통·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상호연계됨과 동시에 때로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리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국제적인 담론·개념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등장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환경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두 개념의 관계는 달리 설정된다. 이를 Wals & Kieft(2010)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교육적 전통에 따라 구분한다. 환경보전, 환경관리 측면의 환경교육이 강조되는 국가에서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른 영역으로 인지하는 반면, 트빌리시 선언<sup>3)</sup>에 기반하여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국가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N 지속

1) 이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1026)

2) 이 발표문에서는 주로 연구자가 직접 검토한 현황에 한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학술대회 당일 발표에서는 연계된 몇 가지 자료를 추가하여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3) 1977년 UNESCO와 UNEP 주관으로 개최된 첫 번째 국제 환경교육 회의로 환경교육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가능발전교육 10년 시기(UN DESD)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영역의 연구자, 실천가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에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김찬국, 2017). 이는 환경교육을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Hesselink et al. (2000)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4가지 관점에 따라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자 혹은 실천가 각자가 가지는 관점에 따라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혼합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두 영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김찬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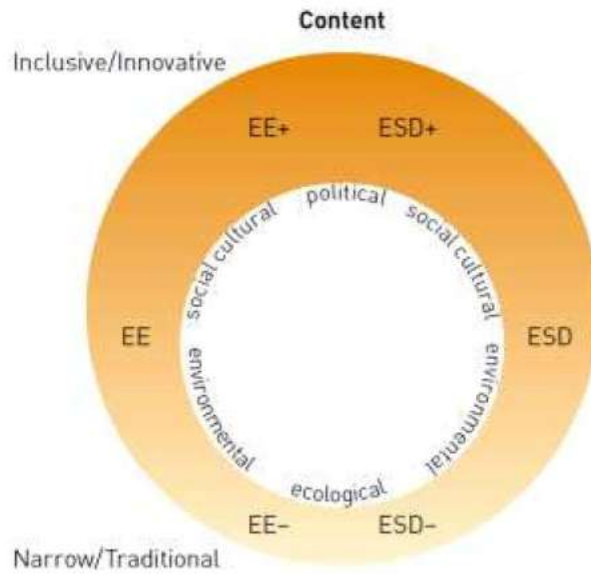


[그림 20]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점(Hesselink et al, 2000: 12)

실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범주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요소에 따라 주제교육을 구분한다면 다양한 주제교육이 포함되거나 연관된다(Wals, 2009). 하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수행되는 주제교육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유보적일 수 있다(권영락 외, 2021). 그렇게 본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존 주제교육의 폭을 넓히고 방식을 풍성하게 하는 나침반,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이선경 외, 2014; 권영락 외, 2021 재인용).<sup>4)</sup> 같은 맥락에서 김찬국(2017)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논의를 메타적으로 살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하여 살피볼 수 있는 환경교육적 성찰을 정리한다. 만약 환경교육의 다양한 전통(Sauve, 2005)에도 불구하고 자연학습, 자원절약 등으로 좁게 해석해 왔다면 그것은 환경교육의 본연이라기보다 극복해야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한 것이다(김찬국, 2017).

Wals & Kieft(2010)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다(그림 2 참조). 좁은 범위의 환경교육을 상징하는 (EE-)와 넓은 범위를 다루는 환경교육(EE+)를 (ESD-), (ESD+)와의 관계 안에서 살피는 것이다. 이때 만약 넓은 범위에서 두 영역을 살핀다고 하면, 점차 중첩되는 영역이 많아질 것을 생각할 수 있다.

4)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로 ESG 평가 기준을 들 수 있다. ESG를 평가함에 있어 SDGs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여러 주제교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림 21] 내용의 관점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Wals & Kieft, 2010: 17)

보다 최근 교육과 관련한 담론에서 ‘변혁(transformation)’을 다룬다(이선경 외, 2023). 세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흐름 안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각자의 역할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하여 우리 사회 안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인식과 정책 현황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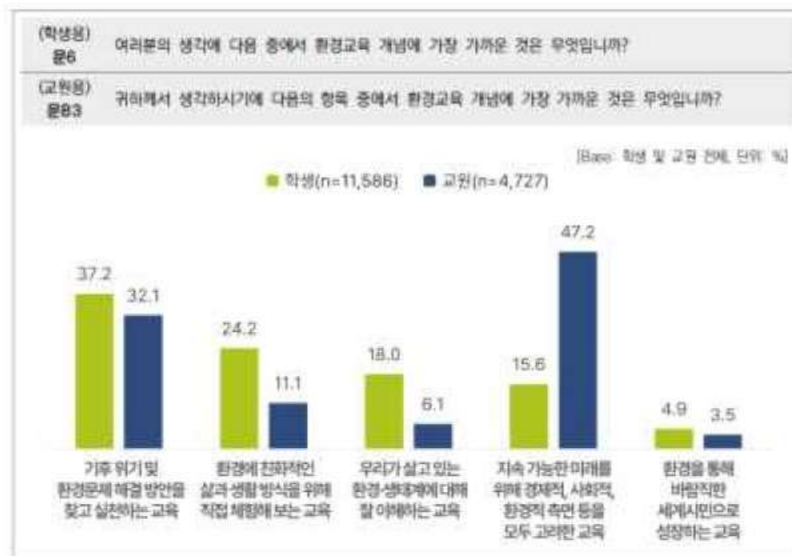
### III. 인식과 관련한 몇 가지 지점(현황)

최근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강조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환경교육을 둘러싼 현황을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sup>5)</sup> 이 현황조사의 몇 가지 문항을 통하여 인식의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를 살펴보는 데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교원과 학생의 인식을 확인·비교한다. 이 결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두 영역 사이의 상호연계 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 설정을 위하여 어떤 지점에 대한 인식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5) 2022년 이후 매년 교육부의 지원으로 학교환경교육 현황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발표에서 활용하는 조사 자료는 발표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던 2024년 학교환경교육 현황조사 연구(오바로 외, 2024)의 결과 중 일부이다.

## 1. 환경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교원과 학생이 인식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개념을 5가지 보기를 통하여 질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응답 패턴에서 교원과 학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교원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후, 환경에 초점을 두고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반에 가까운 선생님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개념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목표점으로 설정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교원의 인식 가운데도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2022 교육과정 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과목으로 환경과를 설정하는데(교육부, 2022),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지향을 일정 수준 교원의 인식에서 반영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교원과 학생의 환경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교원과 학생을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소 전통적인 환경에 초점을 두고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의 지향점이 II장의 [그림 2]에서 제시한 EE+를 향한다고 했을 때 그 지향과 실제 학생의 인식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측면에서 이 현황을 살펴본다면,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실태를 분석한 배주경 외(2022) 연구에서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①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69%), ② 자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5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실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환경교육이거나 전통적인 환경 영역에 다소간 초점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 2.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다음 현황은 교원과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질문이다. 10가지 용어 중 알고 있는 용어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교원과 학생이 각각 상대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용어(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업사이클링 등)도 있는 반면, 두 집단 모두가 낮게 인지(ESG 경영)하거나 집단간 편차가 나타나는 용어도 있었다. 이 발표의 관심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도 편차가 드러나는 한 예시이다. 교원 중 68.4%는 SDGs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 중 26.4%만 SDGs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현황이다.<sup>6)</sup> 이를 볼 때, 최근 주로 다루어지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용어 이외에도 지구적 차원에서 목표로 하는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제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의 전달, 인지되는 측면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 만약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을 다룬다고 했을 때 현재 학생들의 인식에서 시작점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교원과 학생의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인지도

6) 이 발표에서는 학교급별 인식 수준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초-중-고로 올라가면서 SDGs의 인지도는 높아진다(초 - 13.0%, 중 - 27.7%, 고 - 46.2%).

### 3. 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주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이외에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를 선정하고, 교과와 연계·통합하여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범교과학습주제 중,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 중 강화되어야 하는 교육 영역을 질문한다. 먼저 교원은 가장 높은 비율로 인성교육(52.1%)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높은 순위로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20.1%)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 안에서 환경교육 혹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른 순위를 보인다. 인성교육은 동일하게 가장 높은 필요성이 나타났으나(23.7%), 그 이외의 교육 순위를 보면 안전·건강교육(21.2%), 진로교육(18.5%)이 다음 순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는 교원의 인식과의 차이를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림 24] 교원과 학생의 강화되어야 하는 교육 주제에 대한 인식

현재의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맥락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문항을 통하여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두를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으나, 이 발표에서 다루는 논의의 몇 지점에 대한 시작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연

계·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복되어야 하는 몇 가지 지점을 알 수 있다.

#### IV.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지점(현황)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황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이 이미 연계되어 있음을 일부 드러내면서, 동시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소절에서는 정책의 현황 안에서 현재 연계된 지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 현황을 검토하려고 한다.

##### 1. K-SDGs 안에서의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K-SDGs에서는 세부목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부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지표는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표 1>은 몇 가지 지표 예시를 보여준다. 교육에 중점을 두는 목표4,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는 목표12,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목표13은 지표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는 것이다. 일부 지표는 정확한 통계치를 보유하지 못하여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12-8, 13-3과 같은 지표는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지표 설정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2030년, 2040년의 목표를 제시하고 일부 추적하고 있기도 하다.

<표 37> K-SDGs 세부지표 중 환경교육, 교육 관련사항

K-SDGs 세부목표	지표명	비고
4-7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12-8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13-3	(2) 기후변화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2. 환경교육 정책의 추진 체계 구조와 연계 가능성

K-SDGs라는 국가적 수준의 목표설정과 함께 환경교육 영역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6]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정부부처 수준과 광역 수준을 구분할 수 있으며, 상위로는

대통령 위원회 수준에서 제도를 구성한다. 특히, 광역 수준에서는 17개 광역시·도청과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이 모두 환경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고 중장기(5년) 계획 또는 단기(1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 계획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이 발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앞서 계속해서 살펴본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광역 단위에서 결합·연계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Educational Domain	Environmental Domain
<b>Presidential commission</b>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Law	-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Plans	-	National framework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	▼
<b>Governmental Level</b>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Law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	▼
<b>Metropolitan Level</b>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etropolitan Municipality
Ordinance	EE Ordinance of Office of Education	EE Ordinance of Metropolitan Municipality
Plans	EE plans of Office of Education	EE plans of Metropolitan Municipality

\*Note: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chools operate under a defined 'curriculum'. Therefore, the 'curriculum' can be considered an institution established and operated based on the law.

[그림 25] 우리나라 환경교육 제도의 구조(Kang, forthcoming)

## V. 현황을 통하여 살펴본 연계 가능성과 과제

앞서 간단한 몇 가지 현황을 통하여 인식적인 측면과 정책의 현황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두 영역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두 영역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할 수 있다.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변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자리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통하여 성찰할 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것과 변혁에 대한 주목은 연결된다(이선경 외, 2023). 이때 강조되는 개념은 관계성, 상호의존성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물론 문제, 문제를 둘러싼 조건과 우리 인류가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관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중심 가치나 지향은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Wals & Kieft(2010)가 검토한 바와 같이 EE-/ESD-에서 EE+/ESD+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은 더욱 그러하다. 두 영역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두 영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두 영역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몇몇 공간에서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하지만, 어떠한 공간에서는 연계가 어려운 방식으로도 구성원의 인식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유사한 흐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본연의 역할 안에서 두 영역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식의 측면을 통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이 연계되어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영역이 보완해야 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살펴본 인식의 현황은 교원과 학생의 인식이다. 이때 환경교육을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현황은 두 영역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배주경 외(2022)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실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은 환경교육과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학생의 인식을 통하여 보여준 두 영역이 가진 한계를 단편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두 영역이 때로는 연계되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되, 주요한 환경문제 이외의 환경교육 범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역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후·환경 등 주제 이외의 범위 안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계된 정책 속 새로운 정책 구조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부 정책 현황 안에서 이미 두 영역은 연계되어 있다. 한편, 그렇지 못한 지점에서는 연계하는 과정은 새로운 가능성과 시너지의 근거가 된다. 그 시작은 지역단위 환경교육 정책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의 전환을 함께 만들고 있다. 과거 환경교육팀이 가지고 있는 명칭에서 가지는 한계가 일부 팀명의 변경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 나아가 기후, 에너지, 환경이라는 영역의 조합을 명시적으로 다루며 더욱 더 적극적으로 두 영역의 연계가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도 있다.

정리할 때, 두 영역의 관계는 인식과 정책 현황 수준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계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가능

하게 한다. 상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의 재설정  
현재는 물론,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종료 이후 이어질 post-2030 논의를 고려하  
면 더욱 강조된다. 두 영역이 가지게 될 사회적 역할은 현 시점은 물론 앞으로의 방향 안  
에서도 검토·논의되며 발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환경과.
- 권영락, 이미숙, 김혜숙, 유은정, 김찬국. (202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찬국. (2017).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 동향과 연구 방향: 1994~ 2017 년  
[환경교육]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1994~ 2017 년 [환경교육] 게재 논문을 중  
심으로. 환경교육, 30(4), 353-377.
- 배주경, 이미경, 서지영, 이미숙, 성경희, 장근주. (2022). 초·중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바로, 류미희, 조선희, 강진영, 김병연, 남미리. (2025). 2024년 학교환경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환경보전원·교육부.
- 이선경, 김남수, 김찬국, 주형선, 황세영, 김이성, 백승현, 이재영, 장미정, 정수정, 정원  
영, 조우진. (2014).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선경, 김남수, 주형선. (202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전체적 접근 사례 연구:  
구성 영역과 상호작용. 환경교육, 36(4), 313-338.
- Frits Hesselink, Peter Paul van Kempen, and Arjen Wals. (2000). ESDebate:  
International debat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UCN.
- Kang, Jinyoung. (forthcoming). Institutionaliz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An Examination through a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 Sauvé, L. (2005). Currents in environmental education: Mapping a complex  
and evolving.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0(1),  
pp. 11-37.
- Wals, A. (2009).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 Wals, A. E., & Kieft, G. (201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overview.

## 온라인 언론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AI를 활용한 파이썬 기반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제자: 임용석(김해시지속협, 마산대학교 시간강사, 인지과학 박사)  
정호진(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1.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단지 환경 보호나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고, 각국은 이를 국가 정책에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UN, 2015).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실현은 국가 수준의 정책적 의지에 그치지 않는다. 실행의 최전선은 지역이며, 지역은 정책이 현실화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특히 한국처럼 지역 간 인프라와 역량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력 역시 지역의 역량과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좌우된다(환경부, 2021). 지방정부, 지역 시민사회, 지역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 내 의제를 확산시키는 데는 강력한 중개자 혹은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언론(Local Media)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역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인식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장의 핵심 매체다(UN-Habitat, 2016). 지속가능발전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이를 주민들의 일상적 과제로 바꾸는 데는 지역 언론의 해석과 보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기후위기나 자원순환, 지역 식량 체계와 같은 이슈가 지역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어질 때, 시민의 참여는 비로소 가능해진다(OECD, 2020; UNDP, 2016). 더 나아가,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등 지역 거버넌스 주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19). 지역 내의 지속가능성 담론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양과 질은 지역 의제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역 언론이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실천 조직의 활동이 지역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의 활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지속가능 거버넌스의 진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국의 총 76개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보도 자료 38,642개를 수집하여 키워드와 활동 주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이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서 수행해 온 기능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거버넌스의 정책적 함의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지역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며 국제적 담론으로 부상하였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이후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그 실현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고 있다(UN, 2015).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곤 해소, 건강, 교육,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행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 목표들은 국가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지역 차원의 이행(local implementation) 없이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N-Habitat, 2016; OECD, 2020).

‘로컬라이제이션’이란 SDGs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체들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9). 특히 기후위기 대응, 물과 에너지 관리, 자원순환, 도시 회복력 등 다수의 SDGs 과제는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엔 개발계획(UNDP)과 UN-Habitat 등 국제기구는 SDGs의 실행 주체로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를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실행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UNDP, 2016; UN-Habitat, 2016).

한국 역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지역 중심의 SDGs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환경부, 2021).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SDG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무대이자, 창의적 해법이 도출되는 사회적 실험의 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지역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도적 기반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중 주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기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 기반이 된다(문유경, 2016; 김태환 & 김은지, 2020).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가 도입되었다. 지속협은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 발굴, 시민 참여 확대, 정책 제안, 환경교육 및 캠페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윤순진, 2011; 환경부, 2021).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지역 지속협이 활동 중이며, 일부 지역은 조례 제정, 전담 인력 배치,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도화된 지역 지속가능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4; 송영일, 2019). 이들은 지방정부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지속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속가능발전 연계 정책을 실현하는 가교이자,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실천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협력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발전의 실행 가능성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UNESCAP, 2019). 따라서 각 지역의 지속협이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 거버넌스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윤순진, 2011; 김태환 & 김은지, 2020).

## 3. 지역 언론의 공론장 기능과 지속가능성 보도

지속가능발전은 단지 행정이나 제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인식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은 중요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한다(강현수 & 유현경, 2014; Entman, 1993). 지역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의식 형성에 기여하며,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는 사회적 중개자(media intermediary)로 기능한다(강현수 & 유현경, 2014).

특히 지역 언론은 지속협의 활동을 기사화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며, 동시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유도자가 되기도 한다(전상경 & 홍은주, 2016).

언론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언론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도하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Entman, 1993; Gamson & Modigliani, 1989).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사가 단순한 지역 행사로 보도될 경우 시민은 이를 일회성 이벤트로 인식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사례로서 구조화되어 보도될 경우 주민 인식은 보다 깊이 있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언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역화(Localization)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라 할 수 있다(UN-Habitat, 2016).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역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열악한 재정구조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벤트성 기사나 행정 중심의 보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심층적 담론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정환, 202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일부 연구는 지역 언론이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감시자이자 지역 공동체 구축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강현수 & 유현경, 2014). 이는 곧 지역 언론이 단순한 취재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지속가능성 인식을 촉진하고 지역 실천을 확산시키는 핵심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한다.

####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언론노출 종합지수(SDCMEI) 설계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언론노출 종합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Media Exposure Index, SDCMEI)를 만들어 지역별 지속협 활동의 가시성과 파급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지수는 단순히 기사 개수의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각 지역의 인구수·예산 규모·언론사 수라는 외부 조건 변수를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를 지향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합성지수(Composite Index) 연구 전통과 궤를 같이한다.

##### 1) 합성지수(Composite Index) 이론과 OECD 지침

합성지수는 서로 다른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지수로 산출하는 기법으로, OECD(2008)의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가 대표적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 OECD는 합성지수 구축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제안한다:

① 지표 선정, ② 정규화(Normalization), ③ 가중치 설정(Weighting), ④ 집계(Aggregation), 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SDCMEI 역시 이 지침을 준용하여, 세 가지 핵심 지표(기사/인구, 기사/예산, 기사/언론사 수)를 선정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지표 간 단위와 분포 차이를 보정하여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OECD 기준과 일치한다.

## 2) 국제적 합성지수 사례와의 비교

### (1)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Yale와 Columbia 대학이 공동 개발한 EPI는 대기질, 수질, 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다차원적 지표를 통합하여 국가별 환경 성과를 평가한다. EPI는 표준화된 서브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가중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SDCMEI 역시 기사/인구, 기사/예산, 기사/언론사 수라는 서브지수를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는 구조로, EPI와 유사한 이론적 설계를 따른다.

###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인덱스

UN SDSN이 발표하는 SDG 인덱스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국가 단위에서 측정하기 위해 합성지수를 활용한다. 특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정규화와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SDCMEI는 이를 지역 차원에 적용한 사례로, SDGs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지표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Mazziotta-Pareto Index (MPI)

MPI는 지표 간 균형성을 강조하는 합성지수로, 특정 지표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전체 점수에서 벌점을 부여한다. 이는 SDCMEI에도 응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언론 노출(기사 수)이 많더라도 예산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SDCMEI에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표의 극단값으로 인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 1. 연구 목적 및 접근 방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 활동이 지난 10년간 지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 거버넌스의 지역적 진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지속협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역할(예: 캠페인, 교육, 정책 제안 등)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추적하고, 시기별·지역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AI 기반 크롤링 도구)을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통합 분석에 기반한 사례 기반 종단연구(Longitudinal Case Study)이다. 기존의 문헌 기반 평면적 분석을 넘어, 시간 흐름에 따른 활동 주제의 변화, 언론 내 출현 빈도, 프레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하였다.

###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AI 도구를 활용해 만든 파이썬 웹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aver 뉴스 플랫폼에 게시된 기사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또는 ○○지속협)'이라는 키워드를 포

함한 기사를 자동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 매체는 지역 일간지 및 종합 일간지, 포털 제휴 언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로그, SNS 등과 같은 비공식 매체 기사는 제외했다.

데이터 수집 기간: 2015.01.01 ~ 2024.12.31

수집 대상 플랫폼: Naver 뉴스 (news.naver.com)

검색 키워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협”

AI 크롤링 도구 특징:

- 파이썬 기반 Selenium 및 BeautifulSoup 모듈 활용
- 기사 제목·본문·날짜·언론사·지역 태그 자동 추출
- 중복 기사 및 광고성 기사 자동 필터링 알고리즘 내장

최종 확보 기사 수: 38,642개 (데이터 정제 후 기사 개수)

분석 대상 지역: 전국 76개 지속협 설립 지역

(2024년 기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회비를 낸 지역에 한 함)

분석 범위:

- 기사 본문에서 지속협이 주체로 등장한 경우만 추출함.
- 등록 매체를 기준하였으며, 블로그, SNS 등 비공식 매체 기사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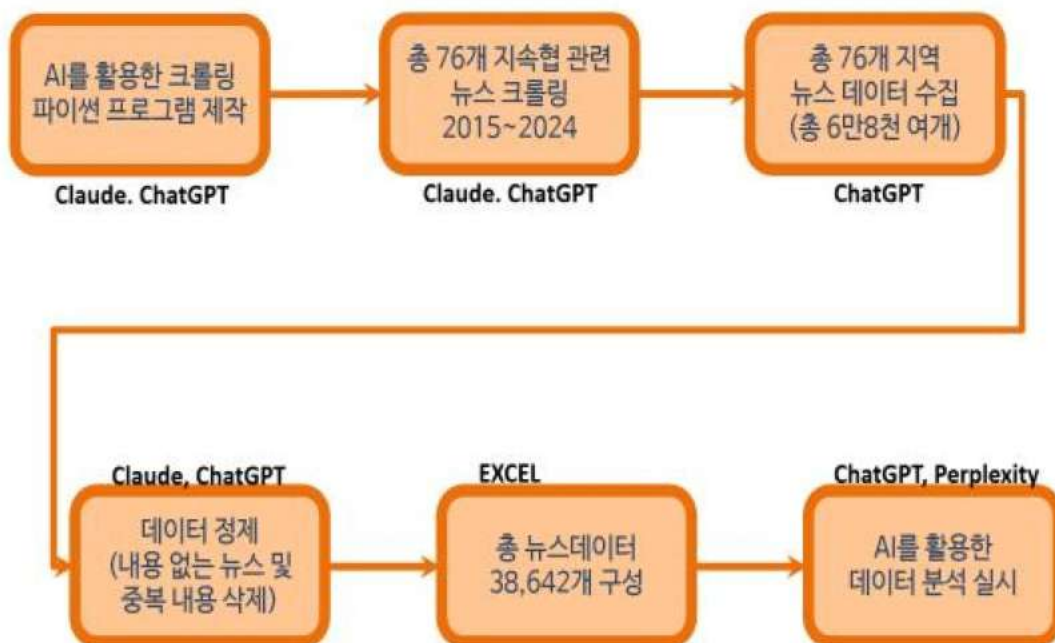


그림 26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표 1은 총 76개 지역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된 언론 자료를 크롤링한 결과이다. 데이터에는 지역별 도시, 크롤링한 정재된 기사 개수, 언급된 언론사 수, 지역별 인구현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회비 금액, 인구대비 별 기사 개수 비율, 그리고 언론사 대비 기사 개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38 크롤링 대상 지역 및 데이터 내역 (강원권 지역만)

순번	지역	도시	기사 개수	언론사 수	인구 (단위:명)	회비금액 (단위:원)	기사개수/인구	기사개수/언론사
1	강원권	강릉	646	197	209,439	500,000	0.31	3.28
2		강원특별자치도	399	141	1,535,807	1,500,000	0.03	2.83
3		속초시	254	63	82,054	300,000	0.31	4.03
4		원주	387	112	361,503	700,000	0.11	3.46
5		정선	360	105	34,202	300,000	1.05	3.43
6		춘천	568	156	286,426	500,000	0.20	3.64
7		태백	289	102	38,702	300,000	0.75	2.83
8		평창	643	197	40,659	300,000	1.58	3.26

#### IV. 분석결과

크롤링한 기사 개수가 가장 많은 1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801개), 2위는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781개), 3위 제천(770개), 4위 창원특례시(718개), 5위 대구광역시(717개), 6위 제주특별자치도(714개), 7위 부산광역시(693개), 8위 광주광역시(684개), 9위 김해시(677개), 그리고 10위 서천군(676개) 순이다. 76개 지역과 연계된 모든 기사 개수는 38,642개에 해당한다.

표 39 기사 개수별 순위표

순번	지역	도시	기사 개수
1	충청권	충청북도	801
2	전라권	전라북도	781
3	충청권	제천	770
4	경상권	창원시	718
5	경상권	대구	717
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714
7	경상권	부산	693
8	전라권	광주광역시	684
9	경상권	김해시	677
10	충청권	서천군	676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결과치는 사실상 타당성이 배재된 것이다. 본 연구의 방향성은 각 지역별 언론 기사 활동이 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하고 분석한 것으로 지역 내 인구대비 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규모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인구 100만인 곳에서 800개의 기사량과 인구 50만인 곳에서의 800개의 기사량은 언론 기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결과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별 인구대비와 1년 예산대비 기사 개수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지역별 인구, 1년 예산, 그리고 연계 언론사 수 대비 기사 개수

각 지역의 인구 수에 따른 기사 개수 비율을 살펴보면 평창, 서천군, 신안군, 정선, 태백, 청양군, 태안군, 연천군, 제천, 부여군, 보령시 순이다. 그리고 지속협 1년 예산에 따른 기사 개수를 검토할 때 서산시, 서천군, 제주시, 천안시, 신안군, 평창, 홍성군, 포항시, 보령시, 제전, 논산시 순이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비로 입금되는 금액을 토대로 각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 사용 예산을 짐작할 수 있다. 회비는 총 예산의 1%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김해시의 경우, 총 76개 지속협들 중에서 회비 규모로 기준할 때 32위에 해당하는 데 1년 지속협 예산은 전국지속협 회비를 기준할 때 72,000,000원인 셈이다. 1위인 서산시의 경우, 지속협 1년 예산은 15,000,000원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기사 개수 비율이 3.77%에 해당한다.

물론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 흔히 말하는 기삿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지역내 지속협 활동을 기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데이터를 기준하여 수리적 결과를 두고 판단할 때 예산 규모는 작아도 언론사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언론사가 다룬 지속가능발전관련 이슈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지역별 인구대비 기사 비율을, 표 4는 예산대비, 그리고 표 5는 언론사 수 대비 기사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표 3에서의 인구대비 기사 개수 비율은 언론보도지수(news coverage index)를 이용한 것이다(김진혁 외, 2020). 해당지역 인구 또는 지역 언론기관 수 대비 지역 i 관련 기사 수로 나타낸다.

표 40 지역별 인구대비 기사 비율

순번	지역	도시	기사 개수	인구(단위:명)	기사 개수/인구
1	강원권	평창	643	40,659	1.58
2	충청권	서천군	676	52,000	1.30
3	전라권	신안군	467	40,789	1.14
4	강원권	정선	360	34,202	1.05
5	강원권	태백	289	38,702	0.75
6	충청권	청양군	214	30,390	0.70
7	충청권	태안군	380	63,000	0.60
8	서울수도권	연천군	255	42,342	0.60
9	충청권	제천	770	129,000	0.60
10	충청권	부여군	383	65,000	0.59

표 4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 예산대비 기사 개수 비율을 뜻한다. 해당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공보활동 지표화 연구에서 해당 분석 지표 공식을 가져와 활용하였다. 기사 개수를 예산으로 정규화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보활동에 대한 계산

식에서 지속협 활동으로 범위를 좁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1 지역별 지속협 예산대비 기사 비율

순번	지역	도시	기사개수	지속협1년 예산	기사개수/예산
1	충청권	서산시	565	15,000,000	3.77
2	충청권	서천군	676	20,000,000	3.38
3	제주도	제주시	662	20,000,000	3.31
4	충청권	천안시	626	20,000,000	3.13
5	전라권	신안군	467	20,000,000	2.34
6	강원권	평창	643	30,000,000	2.14
7	충청권	홍성군	396	20,000,000	1.98
8	경상권	포항시	592	30,000,000	1.97
9	충청권	보령시	517	30,000,000	1.72
10	충청권	제천	770	47,000,000	1.64

언론사수 대비 기사비율에 해당하는 표 5는 지속가능발전 언론노출 지수에서 가져왔다. 해당 수식은 국제 NGO 활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해당지역의 언론기관 수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SDGs관련 기사 수를 생산해 낸 것을 살펴 봄으로써 SDGs 언론노 노출을 측정하여 지역간 비교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한 것이다.

표 42 지역별 언론사수 대비 기사 비율

순번	지역	도시	기사개수	언론사수	기사개수/언론사
1	충청권	제천	770	82	0.94
2	충청권	서천군	676	76	0.89
3	경상권	창원시	718	92	0.78
4	경상권	포항시	592	83	0.71
5	경상권	진주시	593	84	0.71
6	충청권	충주시	633	90	0.70
7	서울수도권	인천광역시	656	100	0.66
8	충청권	서산시	565	88	0.64
9	충청권	당진시	568	89	0.64
10	전라권	광주광역시	684	115	0.59

표 6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서천군이 인구대비, 예산대비, 그리고 언론사 수 대비 전체 순위 2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10위 안에 있는 지역으로 서천군을 포함해서 충청권인 재천이며, 전라권 신안군, 강원권 평창은 인구대비 및 예산 대비에서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 경상권 포항시와 충청권 서산시는 예산대비와 언론사 수 대비에서 10위에 자리한다.

표 43 세 가지 분석 결과 내 10위 지역

순위	지역	도시	기사개수/인구	지역	도시	기사개수/예산	지역	도시	기사개수/언론사
1	강원권	평창	1.58	충청권	서산시	3.77	충청권	제천	9.39
2	충청권	서천군	1.30	충청권	서천군	3.38	충청권	서천군	8.89

3	전라권	신안군	1.14	제주도	제주시	3.31	경상권	창원시	7.80
4	강원권	정선	1.05	충청권	천안시	3.13	경상권	포항시	7.13
5	강원권	태백	0.75	전라권	신안군	2.34	경상권	진주시	7.06
6	충청권	청양군	0.70	강원권	평창	2.14	충청권	충주시	7.03
7	충청권	태안군	0.60	충청권	홍성군	1.98	서울수도권	인천광역시	6.56
8	서울수도권	연천군	0.60	경상권	포항시	1.97	충청권	서산시	6.42
9	충청권	계천	0.60	충청권	보령시	1.72	충청권	당진시	6.38
10	충청권	부여군	0.59	충청권	계천	1.64	전라권	광주광역시	5.95

### 3. 언론 노출 종합지수 산출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 언론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정량화된 보도 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속협 언론노출 종합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Media Exposure Index, SDCMEI)를 설계하였다. 이 지수는 특정 지역의 지속협이 얼마나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했는지를 인구수, 예산 규모, 언론사 수라는 외부 조건 변수에 대한 상대적 조정을 통해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 1) 지표 구성 요소

SDCMEI는 다음 세 가지 지표를 구성요소로 한다.

$A_i$ : 기사개수/지방예산 - 지방정부 총예산 대비 기사 수를 나타내며, 예산 대비 언론 노출 효율성을 시사

$B_i$ : 기사개수/인구수 - 해당 지역의 지속협 관련 기사 수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대중 노출 강도를 측정

$C_i$ : 기사개수/지역 언론사 수 - 언론사 1개당 지속협 기사 평균으로, 언론 친화도 및 노출 빈도를 반영

#### 2) 정규화 절차

세 지표 간 단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표는 최대값 기준 정규화(Max Normalization)를 통해 0과 1 사이의 범위로 변환하였다. 정규화된 지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_i = \frac{A_i}{\max(A)}, \quad B'_i = \frac{B_i}{\max(B)}, \quad C'_i = \frac{C_i}{\max(C)}$$

이로써 모든 지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비교 가능하게 되며, 상대적 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 3) 종합지수 산식

정규화된 세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SDCMEI를 산출한다. 기본적으로는 세 요소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동일가중 모델을 적용하였다.

$$SDCMEI_{equal} = \frac{1}{3}(A'_i + B'_i + C'_i)$$

필요시 지표별 중요도를 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 모델(weighted model)도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하다.

$$SDCMEI_{weighted} = \alpha A'_i + \beta B'_i + \gamma C'_i, \quad \text{단, } \alpha + \beta + \gamma = 1$$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 언론 노출도와 관련된 활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지표를 활용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 지표는 다음과 같다:

- (1) 기사 개수 / 지자체 예산
- (2) 기사 개수 / 인구 수
- (3) 기사 개수 / 해당 지역 언론사 수

이들 지표는 각각 지속협 활동의 예산 대비 가시성, 주민 대비 언론 노출도, 지역 언론 구조 내에서의 노출 밀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지표는 단순 평균 처리할 경우, 각 항목이 가진 설명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 방식의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다.

기사 개수 / 예산 ( $W_1 = 0.5$ ): 공공 재정 대비 지속협의 언론 가시성을 나타내며, 자원의 효율성과 정책 우선도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하였다.

기사 개수 / 인구 ( $W_2 = 0.3$ ): 해당 지역 주민 1인당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로 해석할 수 있어, 참여 유도 가능성 측면에서 중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기사 개수 / 언론사 수 ( $W_3 = 0.2$ ): 지역 언론의 구조와 보도 집중도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서, 언론 생태계 내 지속가능발전 의제 반영 여부를 측정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종합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text{종합지수} = (0.5 \times \text{기사/예산}) + (0.3 \times \text{기사/인구}) + (0.2 \times \text{기사/언론사})$$

이와 같은 가중평균 방식을 통해,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실제 지역 여건과 언론환경을 반영한 상대적 평가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표 44 가중평균에 의한 종합지수 결과

순번	지역	도시	기사개수/예산	기사개수/인구	기사개수/언론사	가중평균에 의한 종합지수
1	충청권	서천군	3.38	1.30	0.89	0.93
2	충청권	서산시	3.77	0.32	0.64	0.73
3	강원권	평창	2.14	1.58	0.33	0.67
4	전라권	신안군	2.34	1.14	0.32	0.61
5	제주도	제주시	3.31	0.14	0.48	0.59
6	충청권	제천	1.64	0.60	0.94	0.58
7	충청권	천안시	3.13	0.10	0.50	0.57
8	경상권	포항시	1.97	0.12	0.71	0.47
9	충청권	홍성군	1.98	0.40	0.46	0.46
10	충청권	보령시	1.72	0.53	0.48	0.46

(4) 지수 해석 및 활용, 그리고 한계점

산출된 SDCMEI 값은 0~1 범위 내에서 해석되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의 지속협 활동이 외부 조건(인구, 예산, 언론사 수)을 감안하더라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단순 보도 건수를 넘어서, 활동의 공론장 도달 정도와 지속가능성 담론의 외연 확대 수준을 측정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지역은 서천군, 제천시, 평창군 등 중소도시 중심의 지자체였으며, 이는 규모나 예산보다는 지속협의 전략적 활동과 지역 언론과의 협력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SDCMEI는 언론 보도량을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유용한 도구이나,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한다. 먼저, 기사 수가 실질적 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절대 지표는 아니다. 기사 내용의 질적 차이(단순 홍보 vs 정책 제안 등)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산은 전체 지자체 예산을 사용했으므로, 실제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사 수 역시 활동성 기준이 아닌 등록 기준이므로 정확한 보도력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지수는 정량적 경향성 파악과 지역 간 비교의 보조 지표로 활용되며, 정성 분석과 병행할 때 해석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V. 종합분석 및 논의

1. 종합지수 상위 지역의 특징

서천군, 제천시, 평창군 등 중소도시 중심의 지속협이 SDCMEI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 특화된 의제 설정, 주민과 밀착된 캠페인을 통해 높은 언론 노출 효과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평창군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역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관광·환경·문화재생과 연계해 언론의 관심을 꾸준히 유도하였으며, 서천군은 생태도시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보도량 대비 주민 참여율을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규모나 재정여건보다는 지속협의 전략적 활동과 언론 파트너십이 언론 노출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 2. 대도시권의 상대적 부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도시 지속협은 절대 기사 수는 많았으나, 인구수와 예산 대비 SDCMEI 값은 낮았다. 이는 대규모 행정체계와 복잡한 언론 구조 속에서 개별 지속협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경향 때문이다. 예산이 많고 시민 수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단위 활동이 기사화되더라도 주민 1인당 노출 비율은 낮게 계산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시는 매년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만, 대규모 국제회의나 메가 이벤트 보도가 주를 이루어 지역 협의회의 세부 활동은 언론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3. 지속협 보도의 프레임 변화: “캠페인 주체”에서 “지역 거버넌스 핵심”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난 10여 년간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전환을 경험해 왔다. 초기 보도의 핵심은 주로 환경정화, 홍보 캠페인, 시민 참여 행사와 같은 활동에 맞춰져 있었으며, 지속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캠페인 주체”로 인식되었다. 당시 기사 제목에는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전개”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는 시민에게 지속협의 존재를 알리고, 눈에 보이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협은 점차 단발적 캠페인 주최자에서 정책과 담론을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였다. 2018년 이후 기사에서는 “찾아가는 처음학교 운영”, “지속가능발전대학 수료식”, “시민 토론회 개최” 등 교육·정책제안 활동이 빈번히 등장하였다. 이는 지속협이 단순히 홍보와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시민 역량 강화와 지역 의제 형성의 주체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부터 언론은 지속협을 지역의 환경·사회·경제 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묘사하며, 보도의 프레임은 점차 ‘교육·정책적 거버넌스 주체’로 전환되었다.

2021년 이후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ESG, 로컬푸드 순환경제와 같은 국가적·세계적 의제가 지역 보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실천마을 추진”과 같은 기사는 지속협이 단순히 캠페인을 주최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전환의 거버넌스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기의 언론은 지속협을 지역 정부, 기업, 시민을 연결하는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기사 프레임은 ‘캠페인 중심 활동’에서 ‘지역사회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프레임 변화는 곧 지속협 자체의 정체성 진화를 반영한다. 초기에는 주민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가 중심이었다면, 중기에는 시민 역량 강화와 정책 제안으로, 후기에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정착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지속협은 언론 속에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핵심 행위자”로 재구성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지역 언론이 지속협을 단순한 홍보 대상이 아닌 공론장의 주체로 인

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지속협 보도의 프레임은 캠페인성 보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 실행력을 평가하는 담론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김해시 사례

김해시는 기사 수 기준 전국 9위(677건)였으나, SDCMEI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대비 효율성이나 인구 대비 도달률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해시는 매년 '찾아가는 처음학교', '지속가능발전대학', '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해 왔지만, 지역 언론 보도는 주로 행사성 기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산·창원 등 대형 언론 시장과 인접해 있어 김해 지역 이슈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2025년 제4기 지속협 출범과 함께 공론장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언론 친화도 개선과 주민 도달률 제고 가능성이 기대된다.

### VI. 결론 및 제언

#### 1. 전략적 의제 설정의 필요성

기사 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로,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되는가이다. 언론이 단순히 “행사 개최”나 “환경정화 캠페인 진행”과 같은 단발성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면, 기사 건수는 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정책적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행사성 기사에 머무른 탓에 지역사회 의제 형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협은 단순 활동 주체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지역 거버넌스 강화, ESG 실천, 탄소중립 등 보다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제는 중앙정부 정책, 국제적 담론과도 연결되므로 언론 보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확산 효과가 훨씬 커진다. 즉, 지속협은 단순히 “보도되는 것”을 넘어서, 보도를 통해 정책 담론을 생산하고 공론장을 선도하는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제도화에도 직결된다.

#### 2. 지역 언론과의 상생적 관계 구축

SDCMEI 상위권에 오른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언론을 단순 홍보 창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론장 형성의 동반자(partner)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예컨대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 시리즈를 제작하여 특정 지속가능 의제를 장기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가 크게 확산되었다.

지속협이 언론을 “홍보 대상”이 아닌 “협력 주체”로 바라볼 때, 보도는 단순히 소식

을 알리는 기능을 넘어 지역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한다. 앞으로 지속협은 언론사와 공동 기획 보도를 추진하거나, 특정 의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심층 보도를 지원하는 등 언론과의 협력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생적 관계 구축은 담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 3. 지역 간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SDCMEI 격차는 장기적으로 거버넌스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都市는 풍부한 인적·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예산 규모 대비 언론 도달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소도시는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지역 특화 활동의 성과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지속협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역량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미디어 접근성과 정책 영향력을 중소도시와 공유할 수 있고, 중소도시는 효율적인 활동 모델과 지역 밀착형 의제 발굴 경험을 대도시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연합체 차원에서 언론 대응 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지속가능 거버넌스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4. 지수 활용의 한계와 보완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SDCMEI는 기사 수를 기반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기사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동일한 건수의 기사라 하더라도, 단순 보도자료 전달 기사와 심층 탐사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현행 SDCMEI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지방정부 전체 예산을 분모로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지속협 운영 예산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한계로 작용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및 내용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보도의 주제, 프레임, 심층성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사가 단순 행사성 보도인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담론 기사인지 구분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 전체 예산 대신 지속협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효율성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SDCMEI는 단순한 언론 노출 지표를 넘어, 지속협 활동의 사회적 파급력과 정책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종합 평가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협이 단순한 캠페인 주체를 넘어 지역사회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략적 의제 설정, 언론과의 상생, 네

트위크 강화, 그리고 지표 기반의 성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결합될 때, 지속협은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2)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3) *Ritorial Approach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Publishing.
- 4)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2020). *Localizing the SDGs: A Guide for Local Reporting and Monitoring*.
- 5)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 6) UNDP. (2016). *Localizing the SDGs: Tools for Local Implem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7) UNESCAP. (2019).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AP.
- 8) UN-Habitat. (2016). *Roadmap for Localizing the SDG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t Subnational Level*. Nairobi: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9) UN-Habitat. (2016). *The Role of Local Media in Supporting the SDGs*. Nairobi: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10)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19). *Towards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Barcelona: UCLG.
- 1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2) 강현수, 유현경. (2014).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지역 언론의 정책감시와 담론형성 기능. *한국지방정부학회보*, 18(4), 145-170.
- 13) 국제 NGO 활동 보고서 (UN SDSN Local Reporting Guide, 2020)
- 14) 김정환. (2022). 기후위기 보도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한계. *한국환경정책학회지*, 30(1), 101-128.
- 15) 김진혁 외. (2020). 기초자치단체 환경정책 보도지수와 주민의식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 16) 김태환, 김은지. (2020).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지역 협치의 제도화 방안: 지

- 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 34(2), 31-54.
- 17)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4). 지속가능발전 지방이행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서울.
  - 18) 문유경. (2016).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연구: 민·관 협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3), 83-113.
  - 19) 송영일. (2019).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지역화 전략: 전주시 지속협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2), 115-140.
  - 20) 윤순진. (20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지역 지속가능발전협회의 현황과 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보, 20(3), 101-128.
  - 21) 전상경, 홍은주. (2016). 지방언론의 지속가능발전 보도 특성과 지역 발전 담론 형성 가능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16(2), 72-101.
  - 22) 정수영. (2018). 지역 언론 보도량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보활동 평가. 지방정부학회보.
  - 2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지역 언론의 지속가능성 탐색: 공공적 가치와 정책 대안.
  - 24) 환경부. (202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세종: 환경부 지속가능전략 담당관실.

---

#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I·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발표자: 오용운 (음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빅데이터학과)  
2025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제3부: 한국 ESD와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지평  
2025년 11월 6일(목) 15:20~16:50

---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현재, 목표 달성까지 불과 5년이 남은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이 발표한 '2020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SDGs 진행 상황이 계획된 일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빈곤 퇴치, 의료 보건, 교육 분야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엔은 모범 사례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 각 국가의 SDGs 구현을 위한 정책과 실행을 핵심 조치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SDGs 이행은 '현지화(Localization)'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체계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은 도시 관리와 정책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방대한 양의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SDGs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한국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미래도시의 개념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SDGs와 스마트시티의 융합 개념으로서 SDGs 미래도시가 지닌 의의와 인증체계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인증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내각부 주도로 SDGs 미래도시 제도를 운영하여 2024년 기준 208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SDGs 추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SDGs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기반 자동 평가, 예측 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SDGs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넷째,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모델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제안한다. 한국의 정책 환경과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교 분석을 위해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사례를 포함한다. 시간적 범위는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제도가 시작된 2018년부터 현재(2025년)까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며, 한국형 모델의 구축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제시한다.

## II. SDGs 미래도시 개념과 인증체계

### 1. SDGs 미래도시의 개념과 특징

#### (1) SDGs와 스마트시티의 융합 개념

SDGs 미래도시(SDGs Future City)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스마트시티(Smart City) 개념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다. 전통적인 스마트시티가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SDGs 미래도시는 여기에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도시 발전을 추구한다.

일본 내각부의 정의에 따르면, SDGs 미래도시란 "SDGs의 이념에 따라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환경의 3개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도시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 통합

SDGs 미래도시의 핵심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사회(Society)의 3대 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모델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일본 후쿠시마현은 재생에너지 비율 60% 달성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나고야시는 스타트업 200개 육성과 AI 기반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3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포용성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을 포괄한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AI 기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 빈곤층을 15%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업 50개를 육성하는 등 포용적 경제성장 모델을 실현하였다.

####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기술 혁신

SDGs 미래도시는 IC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실시간 도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AI·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일본 삿포로시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도쿄도는 AI 기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45%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 인증체계의 필요성과 기능

### (1) SDGs 이행 수준의 객관적 평가

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글로벌 지표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이다. 각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 가능한 지표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인증체계는 지방정부가 SDGs 이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의 체계성, 실제 이행 성과, 혁신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2) 지방정부 간 경쟁력 제고 및 우수사례 확산

인증체계는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지방정부는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내각부로부터 강력한 홍보 지원을 받으며, 각 부처·기관에서 지원책 활용에 관한 조언을 받아 국내외에서 성공사례를 발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SDGs 미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 (3) 중앙-지방 거버넌스 강화 및 재정 지원 근거

인증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 중앙정부는 인증체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인증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기술·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 지방정부에 「종합 관리 및 보급·계몽 비용」과 「사업실시 비용」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SDGs 모델사업에 선정된 10개 도시에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 210개 도시 선정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 3. 국제사회의 SDGs 평가 동향

### (1) 유엔 SDGs 지표 체계

유엔 통계위원회는 SDGs의 진척상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232개의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를 제안하였다. 이는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지표(Indicator)라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7개 SDGs 목표별로 최소 3개에서 최대 17개의 지표가 할당되어 있으며, 각 지표는 국가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데이터 수집 인프라가 미비하여 지표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SDGs 이행 평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2) SDSN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와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매년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여 국가별 SDGs 성취도 순위를 발표한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총 112개 측정 지표 중 17개 지표에서 '빨간색(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분야)'을 받았다. 특히 목표 5(성평등),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4(해양생태계)와 목표 15(육상생태계)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SDGs 달성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3)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매년 발표하는 Smart City Index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평가한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취리히, 오슬로, 서울 등 선도도시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대중교통 네트워크 개선,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등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AI·빅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스마트 안전·치안 솔루션, 디지털 포용 정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일본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사례 분석

### 1.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제도 개요

#### (1) 추진 배경: 지방창생과 SDGs의 전략적 연계

일본은 2014년부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통해 지방창생(地方創生, Regional Revitalization) 정책을 추진해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쿄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다. 2016년 5월,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SDGs 실시지침'을 결정하였다. 이 실시지침에서는 일본 SDGs의 비전을 "지속가능하고 강인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향상이 실현된 미래의 선구자"로 명시하였다.

2018년, 일본 정부는 SDGs를 지방창생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SDGs 미래도시·지자체 SDGs 모델사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로, 2024년까지 210개 도시 선정을 핵심 성과 지표(KPI)로 설정하였다.

#### (2) 제도 운영: 내각부 중심의 선정 프로세스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선정은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이 주관하며,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2~3월: 공모 공고 및 지자체 제안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SDGs 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과 3개년 실행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안서에는 경제·사회·환경 3개 축의 통합적 접근, 독창성,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월 중순: 공청회 및 면접심사

선정 후보에 오른 지자체는 약 25분간(프레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15분) 면접심사를 받는다. 전문가 평가위원회는 제안 내용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5~6월: SDGs 미래도시 선정 및 발표

최종 평가를 거쳐 약 30개 내외의 도시가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며, 이 중 특히 선도적인 10개 프로젝트가 '지자체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을 받는다.

##### 7월 이후: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선정된 지자체는 3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기

적으로 시책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달성 정도를 명확히 한다.

### (3) 현황: 208개 도시 선정 (2024년 기준)

일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08개의 SDGs 미래도시를 선정하였다.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29개 도시 선정 (누적 29개) - 프로그램 시작, 지방창생 SDGs 금융 사업 시작
- 2019년: 31개 도시 선정 (누적 60개) - 지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강조
- 2020년: 33개 도시 선정 (누적 93개) - COVID-19 대응 프로젝트 증가
- 2021년: 31개 도시 선정 (누적 124개) - 그린 리커버리 및 탄소중립 사업 증가
- 2022년: 30개 도시 선정 (누적 154개) - 지역순환경제 모델 강화
- 2023년: 30개 도시 선정 (누적 184개) - 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시티 사업 증가
- 2024년: 24개 도시 선정 (누적 208개) -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제안 강조

매년 10개씩 선정되는 SDGs 모델사업은 2024년까지 총 70개에 달한다. 모델사업은 환경·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헬스케어·복지, 교육·인재육성, 스마트시티, 다문화 공생, 재해 대응·방재, 농림수산업 진흥 등 8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 2. 선정 기준과 평가 체계

### (1) 3대 구성요소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선정 기준은 크게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① 환경·사회·경제의 통합성(Integration)

경제, 사회, 환경 3개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영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환경)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경제)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사회)하는 등 3개 영역이 선순환하는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 ② 독창성(Originality)

국가 및 지방의 대표 모델로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 역사, 문화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SDGs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블루 카본 프로젝트'는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결합한 독창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 ③ 추진 체계와 수단(Implementation System)

SDGs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 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요코하마시는 'SDGs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기업, 대학, NPO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 평가 절차

4월 공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5~6월 선정 → 재정지원

평가위원회는 각 구성요소별로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이 가장 높은 도시가 공청회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청회에서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선정된 SDGs 미래도시는 3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3년차에는 종합 평가를 받아 우수 도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SDGs 모델사업: 10개 특화 프로젝트 집중 지원

SDGs 미래도시 중에서도 특히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10개 프로젝트는 '지자체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모델사업으로 선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각부의 강력한 홍보 지원과 함께 전국 및 국제적으로 우수사례로 확산될 기회를 얻는다. 2024년까지 선정된 70개 모델사업은 환경·에너지(19건), 지역경제 활성화(15건), 헬스케어·복지(12건), 교육·인재육성(9건), 스마트시티(8건), 다문화 공생(3건), 재해 대응·방재(2건), 농림수산업 진흥(2건)으로 분류된다.

## 3. 주요 성과와 시사점

### (1) 유형별 대표 사례

#### [환경·에너지] 후쿠시마현: 재생에너지 선도지역

후쿠시마현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재건을 추진하였다. 2019년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2024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비율 60% 달성과 CO2 배출량 35%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교육·인재육성] 오카야마시: ESD 추진 도시

오카야마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모범 도시로, 2018년 ESD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2022년 VR/AR 기반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학교 중퇴율 40% 감소, SDGs 교육 프로그램 90% 도입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스마트시티] 삿포로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삿포로시는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실현하였다. 도시 효율성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헬스케어·복지] 요코하마시: 포용적 경제성장 모델

요코하마시는 2018년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2024년 AI 기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 빈곤층을 15%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업 50개를 육성하였다.

#### [경제] 나고야시: 미래형 산업 육성

나고야시는 2020년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2024년 AI 기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200개를 육성하고 청년 실업률을 30% 감소시켰다.

### (2) 한국에의 시사점

#### 첫째, 단계별 접근 전략의 중요성

일본은 2018년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SDGs 미래도시 제도를 확대해왔다. 초기에는 제도 안착과 모범사례 발굴에 집중하고, 점차 특정 SDGs 목표에 집중된 전문화된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한국도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

일본의 SDGs 미래도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독창적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 획일적 모델이 아닌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모델을 장려해야 한다.

#### 셋째, 재정-기술 지원 연계의 효과성

일본은 SDGs 미래도시 선정과 재정 지원, 전문가 컨설팅, 홍보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한국도 인센티브 패키지를 설계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 넷째,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일본은 2018년 '지방창생 SDGs 민관협력플랫폼'을 설치하여 807개 자치단체와 2,618개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국도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IV.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 1.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 (1)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통합 플랫폼

AI·빅데이터 기반 SDGs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수집:** IoT 센서, 행정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웹 크롤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SDGs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 **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SDGs 17개 목표별 이행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
-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지도 기반 비교 분석, 시계열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정책 입안자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 (2)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연계 구조

시스템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플랫폼 두 플랫폼(Platform to Platform) 방식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SDGs 이행 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종합 관리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국가 R&D로 개발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108개 지자체에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SDGs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

#### (3) 개방형 데이터 허브 기반 상호운용성 확보

시스템은 개방형 데이터 허브(Open Data Hub) 구조를 채택하여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각 지방정부의 데이터 플랫폼 등과 API를 통해 연계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과 분석의 효율성을 높인다.

### 2. AI 기술 활용 방안

#### (1) 머신러닝 기반 SDGs 이행 수준 자동 평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방식을 적용하여, 과거 SDGs 미래도시 선정 사례와 평가 점수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제안서와 이행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일본의 208개 SDGs 미래도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을 최적화한다.

## (2) 자연어 처리(NLP)를 통한 정책문서·언론보도 분석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문서,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SDGs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한다.

정책 문서에서 SDGs 17개 목표별 연관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SDGs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방정부의 정책 문서에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하면 SDGs 목표 13(기후변화 대응)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자동으로 판단한다.

## (3) 예측 모델링: 목표 달성 가능성 시뮬레이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통해 특정 지방정부가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SDGs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를 분석하고,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률로 제시한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 3.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체계

## (1) 데이터 수집 체계

### ① IoT 센서 데이터

대기질 센서, 수질 모니터링 센서, 에너지 사용량 측정 센서 등 IoT 기기를 통해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 ② 행정 데이터베이스

지방정부의 행정 시스템에서 인구통계, 경제지표, 사회복지, 교통, 에너지, 폐기물 등 SDGs 관련 행정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 ③ 설문조사 및 시민 참여 데이터

시민 만족도 조사, 주민 참여 플랫폼, 민원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의 체감 지표를 수집한다.

### ④ 웹 크롤링 및 소셜미디어 분석

지방정부 홈페이지,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SDGs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 (2) 데이터 분석: 17개 SDGs 목표별 핵심지표 추출

수집된 빅데이터를 SDGs 17개 목표별로 분류하고, 각 목표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SDGs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한다.

- 대중교통 이용률
- 1인당 녹지 면적
- 미세먼지 농도
- 주택 보급률
- 슬럼 인구 비율

각 지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되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 (3) 시각화: 대시보드, 지도 기반 비교 분석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① 종합 대시보드

SDGs 17개 목표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차트, 색상 코드(녹색-주황-빨강) 등을 활용한 종합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 ② 지도 기반 비교 분석

전국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을 지도 위에 표시하여 지역별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시계열 그래프

연도별 SDGs 이행 수준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개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목표별 상세 분석 페이지

각 SDGs 목표를 클릭하면 세부 지표, 정책 현황, 우수사례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 4. 해외 사례

### (1) 한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한국은 2018년부터 국가 R&D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2021년 2월 기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통합플랫폼은 AI 기반 솔루션(선별감시, 차량정보, 얼굴인식 등)과 빅데이터 솔루션(개방형 데이터 허브, 블록체인 보안 등)을 통합한 구조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CCTV 정보, 이벤트 정보 등을 연계하는 Platform to Platform 구조를 갖추고 있다.

AI 및 빅데이터 기반 차량 동선 추적 시스템, 112 수배차량 추적, 119 작전지휘시스템 등 공공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SDGs 모니터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2) 일본: 데이터 활용형 스마트시티 추진사업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데이터 활용형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을 통해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횡단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삿포로시, 후지사와시 등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SDGs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3) 싱가포르: Virtual Singapore (3D 도시 디지털 트윈)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를 3D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구현한 'Virtual Singapore'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은 건물, 도로, 나무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3D로 모델링하고,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도시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도시계획, 재난 대응, 에너지 관리, 교통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SDGs 이행 시뮬레이션과 정책 효과 예측에도 활용되고 있다.

## V.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모델 제안

### 1. 인증체계 설계 방안

#### (1) 4단계 인증 등급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는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 ① 예비 SDGs 미래도시

SDGs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시작한 초기 단계의 지방정부. SDGs 17개 목표 중 5개 이상의 목표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경우 선정.

## ② 기본 SDGs 미래도시

SDGs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이행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지방정부. 환경·경제·사회 3개 축에서 균형잡힌 접근을 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 경우 선정.

## ③ 우수 SDGs 미래도시

SDGs 이행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례를 보유한 지방정부. SDGs 17개 목표 중 12개 이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개발한 경우 선정.

## ④ 최우수 SDGs 미래도시

국제적 수준의 SDGs 이행 성과를 달성하고, 국내외에서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는 지방정부. 유엔 자발적 지역 검토(VLR)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 SDGs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선정.

## (2) 평가 영역

SDGs 미래도시 인증은 다음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① 제도·계획 영역 (30점)

- SDGs 종합 계획의 체계성 (10점)
- 조례 제정 및 전담 조직 구성 (10점)
- 예산 배분 및 자원 확보 계획 (10점)

### ② 이행·성과 영역 (50점)

- SDGs 17개 목표별 이행 수준 (30점)
- 환경·경제·사회 통합성 (10점)
- 주민 체감도 및 만족도 (10점)

### ③ 혁신·확산 영역 (20점)

- 독창적 모델 개발 및 혁신성 (10점)
- 우수사례 확산 노력 (5점)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참여 (5점)

## (3) 평가 주체

###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주관

SDGs는 환경·경제·사회를 통합하는 개념이므로, 환경부(지속가능발전 총괄)와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총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 시민 평가단 참여

주민 체감도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평가단을 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실제 체감도를 조사한다.

## 2. AI·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로드맵

### (1) 1단계(2026): 핵심지표 선정,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목표: SDGs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주요 과제

- 한국형 SDGs 핵심지표(K-SDGs Indicators) 선정
- 중앙-광역-기초 연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시범 지자체 5개 선정 및 테스트베드 운영

## (2) 2단계(2027): AI 평가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목표: AI 기반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주요 과제

- 머신러닝 기반 SDGs 이행 수준 자동 평가 모델 개발
- 자연어 처리(NLP) 기반 정책 문서 분석 시스템 개발
- 시범 지자체 20개로 확대 및 평가 모델 검증
- 시각화 대시보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3) 3단계(2028-2030): 전국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고도화

목표: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간 SDGs 모니터링 체계 완성

주요 과제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로 확대
- 예측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능 고도화
- 국제 SDGs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업데이트

## 3. 기대효과

### (1) 정책적 효과: 객관적 평가로 예산 배분 효율화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와 AI·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수 지방정부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정부에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 (2) 지역적 효과: 도시 경쟁력 강화, 우수사례 확산

SDGs 미래도시로 인증받은 지방 정부는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한다.

### (3) 기술적 효과: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실현

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과거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던 정책 결정이 실시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30 SDGs 달성까지 5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촉진하기 위한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와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제도를 심층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08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환경·사회·경제의 통합성, 독창성, 추진 체계라는 3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정 지원, 홍보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기반 자동 평가, 자연어 처리를 통한 정책 분석, 예측 모델링 등의 기능을 통해 SDGs 이행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모델과 AI·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4단계 인증 등급, 3개 평가 영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 2. 정책 제언

### (1)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SDGs 미래도시 인증제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모니터링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2)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재정 지원, 홍보 지원,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설계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시민 참여형 데이터 수집 및 거버넌스 강화

SDGs 모니터링에서 시민의 체감도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시민 참여형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의 SDGs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등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향후 과제

### (1) 한국형 SDGs 지표체계 정립

유엔의 232개 글로벌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SDGs 지표체계(K-SDGs Indicators)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측정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지표는 대리지표(Proxy Indicator)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 (2) AI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AI 기반 자동 평가 시스템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지방정부에 편향(Bias)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평가 로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AI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 (3)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SDGs는 글로벌 목표이므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일본의 SDGs 미래도시 네트워크, 유엔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 플랫폼, OECD의 지역발전 프로그램

램 등과 연계하여 한국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해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ASEAN,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SDGs 미래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4) 장기적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 체계

SDGs 인증체계는 1회성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3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해야 한다.

또한 2030년 이후 포스트 SDGs 시대를 대비하여 인증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UN DESA(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SDSN & Bertelsmann Stiftung(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IMD(2024). Smart City Index 2024.

內閣府(2024). SDGs未来都市等選定都市一覽.

Yamasaki, K. & Yamada, T. (2022). A framework to assess the local implementation of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84.

Fukushima Prefecture: 204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2023년 기준 54.9% 달성)

서울특별시(2024).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동향

Yokohama City: Y-SDGs 인증제

오용운·한정은 (2024). "실용적 사회혁신 전략인 지방창생 SDGs 연구: 일본 SDGs 미래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2(3): 89-125

기타 국내외 정부, 지자체, 학술논문, UN, OECD 최신 공식 자료 등

---

## [부록]

### <표 1> 일본 SDGs 미래도시 연도별 선정 현황

표1. 일본 SDGs 미래도시 연도별 선정 현황

연도	선정 수	모델사업	누계	주요 주제
2018	29	10	29	지방장상 SDGs 적용 시작
2019	31	10	60	지역 활성화 강조
2020	33	10	93	COVID-19 대응
2021	31	10	124	그린 리커버리
2022	30	10	154	순환경제 모델
2023	30	10	184	스마트시티 증가
2024	24	10	208	혁신적 재건 강조

### <표 2> SDGs 17개 목표와 주요 지표 예시

표2. SDGs 17개 목표와 주요 지표 예시

목표	내용	주요 지표 예시
1	빈곤 퇴치	절대적 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지수, 지속가능한 농업 비율
3	건강과 웰빙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의료접근성
4	양질의 교육	문해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5	성평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 남녀 임금격차
6	깨끗한 물	안전한 식수 접근성, 수질 오염도
7	깨끗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 에너지 효율
8	양질의 일자리	실업률, 청년 고용률, 최저임금 준수율
9	산업 혁신	R&D 투자 비율, 인자로 보급률
10	불평등 감소	基尼계수, 소득분배율
11	지속가능한 도시	대중교통 이용률, 녹지면적, 대기질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재활용률,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적응계획
14	해양생태계	해양보호구역 비율, 해양오염도
15	육상생태계	산림면적, 생물다양성 지수
16	평화 정의	범죄율, 무력안정지수, 시민참여율
17	파트너십	ODA 비율, 국제협력 프로젝트 수

## <그림 1> AI·빅데이터 기반 SDGs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도

그림1. AI·빅데이터 기반 SDGs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도



## <그림 2>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로드맵

그림2. 한국형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로드맵



---

##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한국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발표자 소개

오용운

- 현) 음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 인증센터 센터장
- 현) 아시아태평양 SDGs·ESG 연구소 총괄PM
- 주요 연구분야: SDGs 지역화, 스마트시티, 지방창생, AI·빅데이터, SDGs미래도시

연락처

- 이메일: [ohyongun76@gmail.com]
- 소속: 음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빅데이터학과

---

※ 본 발표자료는 학술대회 발표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예시:

오용운(2025). "SDGs 미래도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I·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025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5년 11월 6일. 경기도 화성.

---

!